

동행 · 포용 · 나눔 · 사랑,

그 10년의 기록

(2014 - 2024)

Partnership

Social Inclusion

Sharing

Love

신협사회공헌재단

창립 10주년 백서



Cover Story

동행·포용·나눔·사랑의 기록

신협사회공헌재단 창립 10주년 백서

<동행·포용·나눔·사랑, 그 10년의 기록(2014~2024)>은

신협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한 동행과 포용, 나눔과 사랑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온기와 희망을 전하는 진정성 있는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협이 나누는 함께의 가치가 저마다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포용·나눔·사랑,
그 10년의 기록



2014

2024

신협사회공헌재단
창립 10주년 백서

(발간사)



함께해 온 10년, 나눔의 가치를 되새깁니다

함께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4년 10월 전국의 신협과 중앙회, 임직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공헌 특화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을 오롯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재단은 그동안 많은 성과와 모범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국의 신협과 함께 재난 발생 지역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신협의 금융서비스가 소외된 이웃에게까지 닿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사업을 펼치고, 인재발굴을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수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쉽 없이 달려온 결과 누적 기부금 조성액은 600억 원을 넘어섰고, 온세상 나눔 캠페인, 어부바 멘토링 등은 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모델로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10만여 명의 기부자 및 봉사자분들과 531개의 기부 참여신협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구어온 신협사회공헌재단의 10년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자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신협사회공헌재단 창립 10주년 백서 『동행·포용·나눔·사랑, 그 10년의 기록(2014-2024)』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백서를 통해 동행경제, 인재양성, 지역나눔 등 재단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주요 성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걸어온 시간과 경험을 통해 신협과 재단이 나아갈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함께해 온 10년의 세월이 늘 그래왔듯이,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며 가장 그늘진 곳에서 가장 따뜻한 빛을 발하는 사회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의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신협사회공헌재단에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 김윤식

(축하)

우리 사회 나눔문화 발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재단 출범과 함께 사회공헌에 활발히 참여해 온 전국의 신협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고 지역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전국의 신협과 임직원이 주축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설립 취지에 맞게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협력사업, 어부바 멘토링을 비롯한 인재양성 및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경제'와 '협동'을 주제로 어부바 멘토링을 진행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도 꾸준히 참여하여 2023년 신협사회공헌재단과 69개 신협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연대와 실천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그 노고에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재단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길 바라며,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재단의 노력과 헌신이 빛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조규홍

대한민국 신협 및 신협인들의 뜻을 모아 만든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은 조합원 서비스를 위한 헌신에 힘입어 글로벌 협동조합의 힘을 강화하는 데 일조해 온 신협 운동의 모범이 된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014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 위해 신협사회공헌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오직 신협인의 기부만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자발적 기부협동조합입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타 금융기관과는 차별화된 협동조합으로서 신협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역할은 대단히 의미가 큼니다.

지난 10년간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잘살기 위한 경제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이라는 신협 운동의 3대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렇듯 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은 신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의 활동을 통해 신협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게 됩니다.

많은 해외 신협을 대표해 지난 10년간 이룬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성취를 축하합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빛날 수 있기를 빌며, 신협사회공헌재단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세계신협협의회 사무총장 엘리사 맥카터 라보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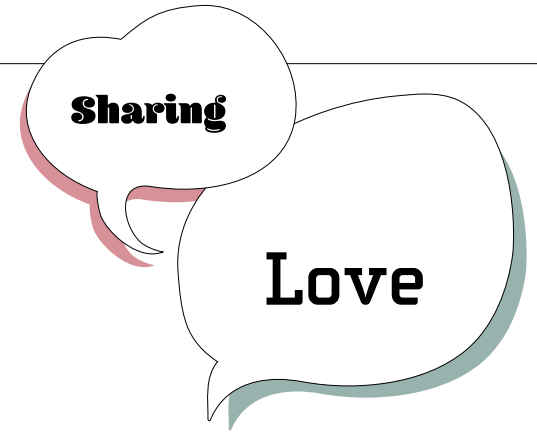
Elissa McCarter LaBorde



동행 · 포용 · 나눔 · 사랑, 그 10년의 기록 (2014 - 2024)



신협사회공헌재단 창립 10주년 백서



발간사	002
축사	004

Intro

함께 걸어온 10년 그 빛나는 10대 모먼트	008
1 함께 내딛은 희망찬 첫걸음	009
2 대한민국 최초의 기부형 협동조합	010
3 신협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룬 결실	011
4 진정성을 담아낸 재단의 사명	012
5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노력	013
6 신협 운동 '3대 실천 과제'와 함께하는 동행	014
7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기틀 마련	018
8 신협 8대 포용금융의 든든한 지원군	019
9 함께의 가치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재단	020
10 10년간 32만 명의 희망이 된 600억 원의 기적	021

Part 1

사업소개	022
동행경제	
포용금융지원	024
지역특화지원	030
지역경제 활성화	036
사회적경제 활성화	043
지난사업	047
인재양성	
협동조합 인재양성	049
전통문화 인재양성	055
미래세대 성장지원	059
지난사업	067
지역나눔	
복지사각지대 발굴	069
지역사회 문제해결	074
지역나눔 활성화	080
특별지원사업	085
국제협력사업	091
지난사업	095

Part 2

나눔활동	098
아너스클럽	
기부의 가치를 논(論)하다	100
'법인' Q&A 인터뷰	
기부라는 힘을 전파하다	106
'개인' Q&A 인터뷰	
개인기부	
기부를 실천하는 신협인들	112
정기기부·특별기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신협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의 결실	118

Vision

비전	122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	122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124
다음 세대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126
그늘진 곳을 비출 때 비로소 세상은 밝아집니다	128
함께의 가치로 함께할 100년을 꿈꿉니다	130

Appendix

부록	132
창립멤버 인터뷰	134
주요 연혁	136
기부금/사업비 현황	138
임원/직원/수상 현황	140
아너스클럽/법인 및 개인기부자 명단	146

10

함께 걸어온 10년 그 빛나는 10대 모먼트 Moments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걸어온 10년은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며 수많은 희망과 나눔이
밝게 빛난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정을 빛낸 10가지 찬란한 순간을 되돌아보며,
함께한 발걸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의미 있는 변화를 되새깁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60년을 뛰어넘는 세월 동안 사회적 약자의 곁을 지켜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해 온 신협의 가치를 이어받아, 2014년 10월 14일 출범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는 2014년 4월 시작되어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신협중앙회 이사회가 사회공헌법인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신협 임직원의 뜻을 모아 발기인 66명을 포함해 설립 동이자 1,117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공식 명칭은 임직원 공모를 통해 신협사회공헌재단으로 정했습니다.

2 — 대한민국 최초의 기부형 협동조합



2015.1.29. 현판석 제막



신탁사회공헌재단 현판석

신탁사회공헌재단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고 지역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창립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 아닌, 주 사업 전체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공헌사업만으로 이뤄진 협동조합은 국내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3 — 신탁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룬 결실



2015.1.29. 출범식



2016.3.31. 정기대의원총회

재단 설립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신탁인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신탁에서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중앙집중적인 사회공헌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는냐는 회의론과 자원을 더 축적한 후에 설립해도 늦지 않다는 시기상조론이 이유였습니다.

이다. 이에 설립준비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약 3개월 간 제주를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을 순회방문해 신탁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들에게 재단 설립의 필요성, 주요 사업 내용, 향후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4 — 진정성을 담아낸 재단의 사명



전통시장을 방문한 김운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



함안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착공식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설립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①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자선·사회봉사 활동 등을 조직·관리함으로써 인간 존중의 신협 정신을 실현하고
- ②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대·협력·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협동 사회를 건설하며
- ③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발전하는 신협상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의 정관에는 설립 목적을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및 봉사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사회적 기여 욕구에 부응하며,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5 —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노력



어부바 모금함



온세상 나눔 캠페인

출범 당시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활동 기반을 구축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을 확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감대 확산과 조직·제도의 체계적 강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 정립을 통한 실효성 제고, 신협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강화, 신협의 3대 실천 과제와 연계된 공헌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에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위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자원봉사

인증단체 지정, 기부금 모집단체 등록, 공증면제기관 지정 등 지속적인 재단 사업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재단의 수입과 지출, 기부금 등 내용을 신협 그룹웨어에 공개하고, 분기별 소식지를 발간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나눔문화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기부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누적 1,000만 원 이상 기부한 신협과 누적 500만 원 이상 기부한 임직원을 아너스클럽으로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습니다.

6 — 신협 운동 '3대 실천 과제'와 함께하는 동행



필리핀 봉사활동



우리동네 어부바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사업에 있어 신협 운동의 3대 실천 과제인 '잘살기 위한 경제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신협의 사회적가치 제고와 신협 운동의 확산에 집중해 왔습니다.

7 경제 성장을 돕는 '잘살기 위한 경제운동'



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지원

'잘살기 위한 경제운동'은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신협을 통해 대출 중심의 희망프로그램, 저금 중심의 행복프로그램과 사회공헌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금융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신협중앙회의 지역 전통문화를 회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특화지원사업을 지원하며 사업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같은 해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상인교육·판로지원 등 맞춤형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2 배움의 기회를 여는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어부바 멘토링



국악영재 육성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전국 실험과 지역아동센터 간의 결연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경제관념과 협동의 가치를 전파하는 실험 협동·경제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희망멘토링 부문에서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21년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현재는 어부바 멘토링이란 이름으로 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해 소외계층 아동 및 실험 조합원 자녀들에게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어부바 원어원 영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2021년부터는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전통한국음악예술원과 협력하여 국악 영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사람과 사람을 잇는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



우리동네 어부바



의료 봉사활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은 소외계층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임직원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온 온누리사랑을 캠페인과 2015년부터 에너지 빈곤 계층에게 연탄과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온세상 나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한 재난구호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 설립 이후부터 국내의 소외지역민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며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정착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단과 손잡고 한방 의료봉사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2017년 5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전문 직종 실험인들로 결성된 프로보노 봉사단을 발족해, 농어촌 소외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장수 사진·미용·집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7 —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기틀 마련



재난재해구호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설립 당시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믿음과 나눔의 신협 정신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 사회적 책임 이행, 조합원의 사회공헌 욕구 충족이라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18년에는 비전과 핵심 가치를 재정비하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새롭게 수립한 비전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실현'이었고, 3대 핵심 가치는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비전과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신협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그 위상과 책임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8 — 신협 8대 포용금융의 든든한 지원군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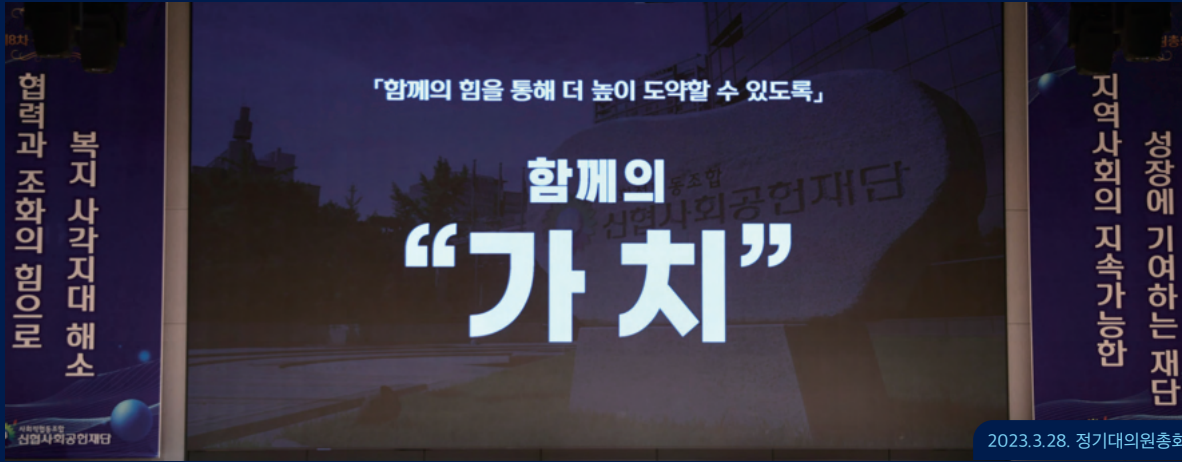
신협은 저출산·고령화·경기침체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부터 포용금융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의 안정적인 주택 마련을 위한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고령자를 위한 효어부바예탁금, 고용·산업 위기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더불어사회

나눔지원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해, 다문화되는 사회 속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9 — 함께의 가치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재단



2023.1.10. 컨설팅 워크숍



2023.3.28. 정기대의원총회



2023.12.14. 사회공헌의날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3년 미래 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실시하여 새로운 비전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과 조화의 힘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는 새로운 미션을 설정하고, '함께의 가치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재단'이라는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새로운 비전은 총회, 이사회, 사회공헌의 날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많은 신협인이 뜻을 모아 미래

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한 결과로, 이는 신협의 근간이 되는 '더불어 사는 협동조합 정신의 회복과 실천'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재단의 의지를 담아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역시 기존 신협의 3대 실천 과제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행경제', 협동조합형 인재 발굴을 위한 '인재양성',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나눔'으로 명칭을 재정립하여 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10 — 10년간 32만 명의 희망이 된 600억 원의 기적

(단위: 천원)

연도	신협중앙회	신협	임직원	모금함	합계
2015년	1,250,755	1,135,804	497,211	-	2,883,770
2016년	1,297,000	950,121	746,596	10,102	3,003,577
2017년	1,505,806	955,676	718,089	12,293	3,191,863
2018년	1,818,170	1,024,550	578,447	19,978	3,441,144
2019년	3,817,160	1,380,878	556,264	27,442	5,784,742
2020년	11,629,461	1,376,233	589,706	13,853	13,613,054
2021년	11,161,010	2,251,529	592,932	31,256	14,037,529
2022년	4,075,048	1,607,334	563,160	13,032	6,258,573
2023년	3,156,953	1,767,525	632,451	18,195	5,576,000
누적	39,711,363	12,449,650	5,474,856	146,151	57,790,252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출범 당시, 전국 신협 및 신협중앙회 임직원 10,500명과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조합원이 매일 1만 원씩 기부해 재원을 마련하고 연간 최소 20억 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재단은 2015년 2,540명의 조합원과 1억 6,900만 원의 출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총기부금 28억 8,337만 원, 정기기부 약정 7,456명 등 짧은 기간에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매년 안정적이고 자생적인 기반을

마련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나갔고, 특히 매년 기부금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설립 4년 만에 누적기부금 100억 원을 돌파했고, 2020년에는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단은 조합원 2,986명, 연간 기부금 55억 7,600만 원, 누적 총기부금 577억 8,900만 원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국 신협인이 따뜻한 마음과 기금을 모아 설립된 우리 재단은 지난 10년간 누적기부금 600억 원을 돌파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 32만 명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왔습니다.

이제 재단은 더 밝은 100년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더 큰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사업 소개

동행경제

- 포용금융지원**
 -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 어부바효(孝)예탁금
 - 고용위기지역 금융지원
 - 다문화가정 금융지원
- 지역특화지원**
 - 전주한지 활성화
 - 국가유산 보존
 - 제주천년돌담길 조성
 - 서천군 한산모시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지원
 - 소상공인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 지난사업**
 - 자활지원 금융프로그램

인재양성

- 협동조합 인재양성**
 - 어부바 멘토링
- 전통문화 인재양성**
 - 국악영재 발굴
 - 전통문화 교육지원
- 미래세대 성장지원**
 - 소외계층 대학생 장학금지원
 - 1실험 1아동 결연사업
- 지난사업**
 - 어린이 축구교실
 - 어부바 원어민 영어교실

지역나눔

- 복지사각지대 발굴**
 - 온누리에 사랑을
- 지역사회 문제해결**
 - 우리동네 어부바
- 지역나눔 활성화**
 - 은세상 나눔 캠페인
- 특별지원사업**
 -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 재난재해구호
 - 후원사업
- 국제협력사업**
 - 해외 실험 지원
 - 해외 봉사활동
- 지난사업**
 - 의료 봉사활동
 - 프로보노 봉사단





사회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다

——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외 다수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신협이 저출산, 고령화, 고용위기, 경기침체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전개한 포용금융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재단의 지원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안정적인 주택 마련을 위한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고령자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어부바호예탁금, 고용·사업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용위기지역 금융지원, 감염성 질환 등 사회재난 금융지원,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 금융지원 등이 있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신협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은 출생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며 서민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1월 출시한 금융사 최초의 출산 장려 대출상품이다. 셋째 자녀가 2018년 이후 출생한 무주택자 다자녀가정에 약 2.4%대의 변동금리로 최대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이 상품은 2019년 12월 재단을 통해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다.

기존 변동금리를 3.0% 고정금리로 보장하고, 이 가운데 1.5% 금리를 재단이 지원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어떤 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보다도 현저히 낮은 금리의 상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은 자격 요건을 둘째 이하 자녀가 2018년 이후 출생한 가정으로 확대해 상품의 가치를 더했다.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최다 취급신협,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은 무려 48건으로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의 최다 취급신협이다.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과 직원들은 다른 금융은 흉내 내지 못하는 신협의 사회적가치를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인식했다. 이에 라디오와 전단 광고 외에 제휴 중인 ‘부동산 사랑방’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띄워 대출이 필요한 젊은 부부의 관심을 이끌었다.

“하루에 많게는 80건 이상의 문의를 받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금리 1.5% 지원과 둘째 자녀로 자격 요건이 완화된 2019년 12월 이후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버팀목’이라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최 한 규 광주문화신협 전무



최한규 광주문화신협 전무



김윤석 광주문화신협 주임

김윤석 광주문화신협 주임은 신입 시절부터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을 담당하면서 신협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대출을 받은 70% 가까이가 신규 조합원이었고, 이들을 포함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신협에 대한 이미지가 한층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상품이 있다는 걸 안내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조합원님들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한 조합원께서 둘째가 ‘복덩이’라고 하시던데 그게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의 이미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 김윤석 광주문화신협 주임

최한규 광주문화신협 전무는 “도움이 필요한 조합원들이 신협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신협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시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획과 정책 지원을 다양하게 제공해 더욱 많은 조합원이 신협의 따뜻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의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보조금 지원금액은 2023년 2억 400만 원이었으며, 누적 8억 2,700만 원에 이른다.



mini interview

손성미 조합원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로 가족의 삶이 바뀌었죠.”

결혼과 함께 남편과 풋살장을 운영했는데, 당시에는 일이 바빠 주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셋째를 출산한 이듬해인 2020년 25평 전세 아파트 만기가 도래하면서 주택 매매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때 신협에 담보대출을 문의했다가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을 알게 되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운영하던 풋살장 한 군데가 문을 닫게 된 시점이어서 30년 만기, 1.5% 금리의 대출로 33평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대비 같았는지 몰라요. 집을 산 직후 때마침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 다시 새 풋살장도 운영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사업도 잘되어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을 통해 신협을 제 삶의 동반자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어부바 해드리는 마음으로, 어부바효(孝)예탁금

2019년 5월 1일 출시한 어부바효예탁금은 실버 조합원을 위한 효(孝)의 마음을 담은 신협만의 사회공헌상품이다. 어부바효예탁금에 가입하면 신협사회공헌재단이 보험료 전액 지원은 물론 상해사망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되는 신협상해사망공제에 무료 가입된다. 또한 가입자 또는 부모에게 월 2회 전화안부 서비스와 함께 진료과목별 명의(名醫) 안내·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치매 검사·간호사 병원 동행·간병 서비스 제휴 등의 헬스케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과 질병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신협은 금융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버 조합원을 위한 돌봄과 효의 마음을 담아 어부바효예탁금을 출시했다. 어부바효예탁금은 2019년 555계좌가 개설되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1,435계좌로 수요가 급증하며 현재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어부바효예탁금 상해사망 공제료 지원금액은 2023년 기준 누적 2,900만 원에 이른다.



광주문화신협, 어부바효예탁금

위기지역 살리기, 고용위기지역 금융지원

신협은 2019년 6월부터 '지역경제 살리기, 신협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가 고용·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인 군산과 거제에 재기의 희망을 주기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특별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지원대출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은 1인당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무담보·무이자 대출이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이 4%대의 대출이자를 기부금으로 제공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3년까지 누적 32억 5,0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군산과 거제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와 화재·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도 큰 위로와 도움을 제공했다. 2020년과 2021년 신협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4%대의 대출이자를 공제해 최대 1년간 1,000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1.5%의 이자 지원금을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강원도 고한·사북에는 1인당 2,000만 원 이내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이는 모두 신협사회공헌재단의 대출이자 지원으로 진행됐다.

이 외에도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0년 9월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입은 하동지역 수재민, 2022년과 2023년 발생한 호우 및 태풍에 손해를 입은 전국의 조합원, 화재로 재산과 일터를 잃은 2023년 10월 대구 매천시장과 2024년 1월 충남 서천시장에도 더불어민주당지원대출에 대한 금리를 지원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사회재난 금융지원 금액은 2023년까지 누적 4억 2,700만 원에 이른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포용금융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2년 9월 신협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출시한 여·수신 상품의 금융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금융 수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신협은 자녀 1인 이상을 둔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공헌 성격의 금융상품을 통해 약 2만 가구에 총 1,300억 원 규모의 포용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신협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최대 1,000만 원 최장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지원대출을 운용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대출이자 5% 중 3%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2%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신협은 같은 기간 월 30만 원까지 최장 1년 동안 납부해 만기 해지 시 최고 연 7%의 금리를 적용받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 다드림 적금도 출시했다. 7%의 높은 금리는 기본이율 3.5%에 신협사회공헌재단의 3.5% 우대이율 지원을 통해 추진할 수 있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3년 7,500만 원의 다문화가정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신협의 포용금융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로 장기적인 비전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든든한 지원을 통해 신협의 포용금융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동행경제 2 지역특화지원

전통의 가치를 지키며 경제를 살리다

‘전주한지 활성화’ 외 다수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우수한 전통문화와 스토리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대표 상품을 특화하는 사업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재단의 지원사업은 전주한지 활성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제주돌담 활성화, 한산모시 육성 지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회공헌활동인 행복한집 프로젝트와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 등이 있다.

전주한지의 재조명, 전주한지 활성화

신협과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에서 오래도록 유지해 온 특화산업의 부흥에 주목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첫 프로젝트는 2018년 12월 전주시 및 전주한지협동조합과 체결한 ‘전주한지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이었다. 이후 신협은 민관 파트너십을 토대로 전주한지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신협은 전주한지협동조합의 안정화를 위해 사무국 운영비를 후원하고, 이와 동시에 전주한지장 후계자 양성사업 후원 및 운영지원, 전주한지문화축제 지원 및 한지투어 프로그램 개발, 전주한지마을 조성 추진, 전주한지 제품개발 및 판매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간 전주한지는 전통문화 기술로 고군분투하며 지역 내에서 계승하고자 노력을 이어왔으나,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임현아 전주시 한지산업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정체되어 있던 전주한지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신협이 그 역할을 앞장서 맡아줬다.”고 평가했다.

“신협은 민간 사업 파트너로서 전주한지 활성화를 위한 고민에 나서면서 전주한지 활성화를 위한 기회의 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불어 넣어 주었죠.”

- 임현아 전주시 한지산업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신협을 통해 처음 시도한 전주한지장 후계자 지원 사업은 타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한지문화축제 지원과 한지 투어 프로그램 개발은 자치기관에서만 움직였던 지역축제에 민간기관인 신협이 동참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변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었다.

“전주한지마을 조성은 그간 지역에서 고민만 하고 현실화시키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신협이 동참하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어 가시화되었습니다. 전주한지 제품개발 및 판매지원은 정말 아픈 부분이었는데 신협 덕분에 현대적인 제품으로 되살아나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 임현아 전주시 한지산업지원센터 책임연구원

mini interview

오남용 전주한지협동조합 이사장

“신협의 지원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열었어요!”

기존 판매조합에서 2018년 신협과 함께 협동조합을 새롭게 설립하면서 다양한 사업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협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성과입니다.

덕분에 전주한지협동조합은 억 단위 매출을 달성하고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협의 지원으로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2023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협에게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한지를 이용한 아이템, 지속가능한 사업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신협의 노하우를 담아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몇 년째 꾸준히 협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2020.9.19.
강진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



행복한집 프로젝트와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9년부터 전통한지의 생활화를 위한 신협 지역특화지원의 일환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행복한집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취약가정에 전주 전통한지를 활용한 친환경 벽지·장판지 도배를 지원하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전국 21개 신협 및 지역 두손모아봉사단이 사업에 참여해 45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총 510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통문화 기반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증진하고 있다. 은하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과장은 “행복한집 프로젝트는 후원금으로 사업의 시작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신협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과정에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다.

“전국 각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을 초록우산과 신협이 함께 발굴하여, 선정된 가정에 한지 도배와 장판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면서도 건강한 삶의 터전을 찾아주고, 우리 한지의 우수성도 널리 알리는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인 전주한지를 활용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더한 품격 있는 주거개선 사업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 은하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과장

한편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2년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취약계층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을 시작했다. 어린이 999명에게 KTX를 타고 전통문화의 메카 전주로 여행하는 기회 제공했다. 2023년에도 사업은 이어져 취약계층 어린이 929명이 전통한복·한식·한옥·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전주시 기차여행 외에 신라문화의 고장으로 찬란한 화랑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경주시 기차여행을 추가했다.

서순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은 본 사업에 대해 “신협, 코레일, 초록우산 세 기관은 서로 협력해 코로나19 시기 답답함을 느꼈을 아이들에게 여행을 통해 해방감을 느끼고 우리 역사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을 기획했다.”며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은 전주와 경주의 산교육 현장에서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배우며 경험을 통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2021. 10. 30.
신협가족과 함께하는
동춘당 문화재지킴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신협은 2020년 11월 국가유산청(舊 문화재청)과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금융권 최초로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된 바 있다. 이후 2021년부터 본격적인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2021년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주요 50개소에 안면인식 발열 감지장치,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 전주한지 마스크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물품을 지원하며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안심하고 전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조선 4대 궁을 포함한 궁궐·왕릉에 전주한지를 활용한 약 1억 원 규모의 창호지 6,700장을 지원했으며, 신협 가족 봉사단 240여 명이 성균관·담양 소재원·무열왕릉 등에서 잡초 제거 등 문화재를 직접 가꾸고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전주한지로 궁궐·종묘·왕릉의 보존관리 품질을 높이고 관람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은 국가유산으로 연결된 한지와 궁궐 등의 융합형 보존과 활용 사업의 모범적 사례로서 의미 있는 성과였다.

2022년에는 250여 명의 신협 가족 봉사단이 서울 종묘, 보령 성주사지, 전주 경기전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문화재를 직접 가꾸고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9월에는 한지장 등 국가무형유산 6개 종목의 공방 등 전승공간 개선을 위해 내부 단장, 방음시설 확충, 음향기기

교체 등을 비롯한 각종 보수작업 비용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어 2023년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의 안정적인 전승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34명을 선정해 6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악기장·조각장·소목장·공시장 등 기능 17개 종목과 함께 발탈·가곡·가사·서도소리 등 예능 5개 종목이었다.

장영기 국가유산청 민관협력 사무관은 “그동안 무형유산을 후원해 온 사례가 많지만, 신협은 지원 종목과 인원·후원 금액 등에서 역대 최고 규모이자 전승자들의 활동 공간인 공방·전시장·공연장 등에 필요한 리모델링·장비·도구·재료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인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2023.10.12.
와흘메밀마을
제주천년돌담길 완공식

와흘메밀마을 제주천년돌담길 조성 사업

신협은 2022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돌담 문화에서 선조들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제주 돌담을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제주 돌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원과 제주 돌 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제주돌담보전회와 협력해 ‘신협 제주천년돌담 릴레이 쌓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2023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와흘리 마을공동체 소유 메밀밭에 1km 길이의 돌담길을 쌓았다. 이 프로젝트에는 전국의 신협 제주연수단 1,000명이 동참했으며, 돌담길은 상공에서 바라봤을 때 ‘와흘’이란 글자로 보이도록 만들어져 와흘메밀마을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 명소로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종 제주돌담보존회 부회장은 “기업과 사회단체와 마을이 협력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물론이고, 제주 돌 문화와 제주 돌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힘을 신게 됨으로써 제주도의 미래 문화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와흘메밀마을 제주천년돌담길 조성의 결과는 놀라웠다. 2024년 5월 와흘메밀마을 제주천년돌담길 축제 기간에 방문객 수가 8만 명을 넘어 2023년 가을에 수확한 메밀 전량을 소비하며 지역 소득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또한 비수기에도 개별 관광객들이 신협에서 제작한 반지 조형물을 찾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신협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우리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마을의 독자적인 자립을 모색하는 노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주인 삶의 뿌리인 제주 돌담의 가치를 미래 문화와 먹거리 등으로 연결하여 고민해 준 신협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 김기종 제주돌담보존회 부회장

한편 신협은 2024년 7월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숲길에 전통 제주 돌담길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와흘메밀마을 제주천년돌담길 전경

서천군 한산모시 육성 지원사업

신협은 2023년 5월 서천군과 ‘한산모시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산모시의 전통 계승과 현대화를 통해 모시 산업의 발전과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협 한산모시 양말 세트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으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를 시작으로 향후 문화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한산모시를 활용한 스포츠용품 신제품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9년부터 유통구조 변화, 대형마트 진입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선정해 지원하는 전통시장 상생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신협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

전통시장 상생사업은 신협 인근의 전통시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신협의 근간이기도 한 전통시장과 신협 간 상생에 기여하고 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9년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점진신협과 든솔신협 등 중점지원사업지 2개 신협과 광주어룡신협과 새오산신협, 삼익신협 등 예산지원사업지 3개 신협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같은 해 11월부터 맞춤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예컨대 점진신협은 대전중앙시장의 메인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면서 신협 결제 기능을 탑재한 온라인 구매 기능을 추가했으며, 광주어룡신협은 송정매일시장 입구에 대형 간판을 설치하고 시장과 제휴해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새오산신협은 오산오색시장 내에 신협ATM 설치를 통해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객을 위한 장바구니를 제공했다. 삼익신협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용산종합큰시장의 할인쿠폰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기에 충분했다. 이후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 상인 교육, 판로 지원 등 맞춤형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2019년 5개 신협으로 출발한 사업은 2020년 11개 신협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에는 49개 신협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난 2022년에는 신규사업을 추가하며 신협과 전통시장의 사업 참여 효과를 높여 나갔다. 공모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기존의 신협 희망 사업 외에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을 기용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전통시장 홍보 사업과 VMD(Visual merchandiser) 전문업체와 협력해 조합원 매대 환경을 개선하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VMD 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재단은 2022년 38건, 2023년 26건의 전통시장 상생사업을 진행했다.

전통시장 홍보영상 촬영 중인 개그맨 이상호, 이상민



상인과 고객 모두를 만족시킨 VMD 개선 사업

문창신협은 공모를 통해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문창시장에 신협 전통시장 VMD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10개 점포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점포 이미지 개선과 점포관리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효율적이고 시각적인 제품 진열과 점포개선을 통해 고객만족서비스와 매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

고은성 문창신협 전무는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이었고 힘든 경기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도와드릴지 고민하던 시점에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매대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는 공문을 보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사업 당시 참여 계기를 밝혔다.

VMD는 상품의 콘셉트에 맞춰 제품을 전시하는 등 매장 전체를 꾸미는 것으로, 문창신협은 점포별 업종과 개성을 반영한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며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점포별 VMD 요소를 개발해 매대 제작·컬러·바구니·POP·그래픽을 기준으로 점포 맞춤형 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고은성 문창신협 전무



mini interview

김종기 문창시장 내 영광상회 사장

“진정한 상생 활동에 감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비로라도 매대를 만들 계획을 세웠으나 장사도 안 되고 경기도 안 좋아서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신협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개선후에 상품이 선명하게 보이고 훨씬 쾌적해져서 손님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어나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창신협은 20년 전부터 여름과 겨울에 차 배달을 봉사하고 있는데,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상인들끼리 돈독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들도 이야기를 나누다 물건 하나 더 사주시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문창신협 직원들이 거르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봉사해 주셔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문창시장에서 40년간 일하면서 조합원과 전통시장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하는 문창신협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상생의 가치를 느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채소 상회 9곳과 의류 상회 1곳을 진행했는데, 이전까지는 매대가 없어 바닥에 채소를 내려놓다 보니 진열이 불편하기도 하고 한계도 많았습니다. 개선 사업을 통해 매대와 바구니 등이 생기면서 더 많은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은 물론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도 개선된 환경에 만족했고, 다른 상인들도 요청할 만큼 호응이 높았습니다.”

- 고은성 문창신협 전무

문창신협은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문창시장에서 2003년부터 20년 넘게 여름과 겨울에 차 배달 봉사를 운영하고 있다. 겨울에는 매일 오전 따뜻한 커피와 녹차를,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후에 시원한 매실차를 배달한다. 이처럼 문창신협은 본점이 인접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관심이 높다.

“저희 문창신탁 임직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수록 시장 상인과 고객들의 신탁 거래가 활발해지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경험이 있어 참여 열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도 매출과 환경개선을 위해 문창신탁과 상의하는 돈독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탁사회공헌재단 사업과 연계해 입간판 교체, 고객을 위한 카트 비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고은성 문창신탁 전무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 마련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시작되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크게 3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는데,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무상 대여해 운영을 지원하고 홍보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소상공인 결연업체를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어부바플랜 특별이벤트, 소상공인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자문서비스가 있었다.

그 결과 재단은 2019년 찾아가는 자문서비스로 11개 신탁에서 31개 업체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 190대, 찾아가는 자문서비스 40개 신탁 95명, 어부바플랜 특별이벤트 지원으로 75개 신탁을 통해 총 1,833만 원을 지원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은 할인쿠폰 발행과 컨설팅 등을 통해 실적이 증가하고 참여 소상공인이 변화 의지를 보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후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이어졌다. 2021년에는 소상공인 어부바플랜이 신규 결연 이벤트 151개 신탁과 할인쿠폰 이벤트 212개 신탁으로 세분해 규모를 확대했다. 그 결과 단말기 지원 40대, 찾아가는 자문서비스 46개 신탁 95명, 어부바플랜으로 총 2억 1,512만 원을 지원했다.

2022년에는 282개 신탁이 참여한 소상공인 어부바플랜 외에 6개 신탁을 통해 신탁소상공인 희망지원대출의 보조금을 지급해 1억 3,403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270개 신탁의 소상공인 어부바플랜 지원 외에 9개 신탁의 신탁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의 보조금을 포함해 1억 6,883만 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신탁의 주된 조합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밀착 지원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금융지원을 통해 운영 부담을 완화하며,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원주밝음신탁,
소상공인 지원사업

원주밝음신탁, 창의적 노력으로 소상공인 혜택을 극대화하다

대부분 신탁과 마찬가지로 원주밝음신탁 역시 오랜 세월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다. 회계사와 법무사 등을 통해 다양한 컨설팅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물품 등 직접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 단체와의 협업은 물론,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과 함께 20년 전부터 의료봉사와 돌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도식 원주밝음신탁 이사장

이도식 원주밝음신탁 이사장은 “소상공인, 특히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원주밝음신탁을 53년간 지탱해 온 조합원으로, 조합원을 적극 지원하며 상생하는 것이야말로 원주밝음신탁의 존재 이유”라고 밝히며, “저희가 생각하는 신탁의 역할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틈새를 신탁이 각 지역에서 촘촘하게 메꿔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주밝음신탁은 2021년 소상공인 지원 거점 신탁에 선정되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과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고, 워크숍과 소상공인 전문가양성 과정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원주밝음신협은 홍보가 가장 중요한 지원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어부바플랜을 통해 결연업체의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손소독제 등 물품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자문 서비스를 통해 상권분석 상담을 진행했고, 중앙시장번영회와의 협약으로 물품 구매와 선물세트 전달 등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당시 원주밝음신협의 전 임직원이 힘을 합해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조합원의 효능감을 높였다. 그 결과 원주밝음신협은 2021년 전국 신협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활동 우수신협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본부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당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담당했던 이돈영 원주밝음신협 차장은 “재단의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신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간 것에서 창의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무 담당자였던 최영호 원주밝음신협 대리는 “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저희가 발로 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을 드리면서 경제적 공생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향후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도식 원주밝음신협 이사장

mini
interview

최순자 용흥감자탕 사장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고마운 어부바플랜!”

“원주밝음신협의 최영호 대리가 먼저 노후화된 메뉴판을 교체하자고 제안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신협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어 매출도 늘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원주에서 용흥감자탕을 운영하는 최순자 조합원은 2021년 어부바플랜을 통해 지원받은 기억을 생생히 떠올렸다. 당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였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고 언제나 먼저 도움을 제안해 주는 신협이 여간 고맙지 않았다.

“메뉴판 교체를 포함해 방역물품도 지원받았어요. 남들이 볼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는 작은 것도 하나 쉽게 바꾸지 못하는 형편에 도움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되지요.”

40년 전부터 신협과 거래해 온 최순자 조합원은 신협을 언제나 곁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여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신협이 가족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동행경제 /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동조합 성장과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지원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외 다수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6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발판으로 2023년에는 자체적으로 신협-협동조합 간 협력 공모사업을 기획해 협동조합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위한 신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 등 협동조합 어부바 프로젝트 지원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신협은 이에 맞춰 사회공헌반을 신설하고 신협-협동조합 간 상호이해 증진, 지역단위 협력사업 확대,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을 추진해 나갔다. 특히 2013년 9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MOU를 맺고 협동조합 활성화에 나섰고,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공모사업(現 청년 등 협동조합 어부바 프로젝트)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년협동조합 창업공모를 후원했다. 일부 창업팀에 사업화 자금과 금융비용 조달, 세무회계 프로그램 싸유비즈쿵(CU bizcoop) 지원, 신협쇼핑몰(CUmall) 입점 기회 등을 제공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창업에 성공한 협동조합에 성과 장려금을 후원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8개 협동조합을 선정해 포상금과 매출지원, 금융 멘토링을 진행했다. 2023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2개의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해 후원했다. 아트릿사회적협동조합과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포용 사회를 위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공동체성 회복’ 프로젝트, 데칼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인라이트먼트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패션브랜드 PROUD.i 런칭 및 룩북 제작’이 그 대상이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청년 등 협동조합 어부바 프로젝트를 통해 누적 86개 팀에 1억 4,044만 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재단은 2015년 기획재정부의 ‘사회서비스분야 협동조합 표준모델 개발사업’ 참여로 2개 협동조합에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6년에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와 함께 30개 신생 협동조합에 경영코칭을 지원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협동조합 작은행사’를 통해 총 34개 협동조합에 3,300만 원을 후원하는 한편, SK그룹의 사회성과어워드(SPC)에 신협상 수여 및 후원으로 5개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8,000만 원을 후원했다. 또한, 2018년에는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컨설팅 지원금 2,000만 원을, 2020년과 2022년에는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창립 및 운영 지원금 1억 9,800만 원을 각각 후원했다.

신협-협동조합 어부바 공모사업 운영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이전까지 청년 등 협동조합 어부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3년 신협-협동조합 어부바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과 신협이 연계한 사회적경제 협력사업을 발굴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신협의 존재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재단은 공모를 통해 24개의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을 선정하고 의료/돌봄, 에너지/환경, 지역사회 등 3개 분야로 나눠 21개 프로젝트에 대해 총 30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었다.



나울수 화성우리신협 이사장

나상철 화성우리신협 상무

화성우리신협의 신협-협동조합 어부바

화성우리신협은 2023년 신협-협동조합 어부바 공모사업을 통해 유기동물보호소 간식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화성·발안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며, 2017년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던 화성우리신협은 최근 지역사회의 문제로 떠오른 유기동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

“유기견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 불황마저 겹치면서 열악한 유기동물보호소의 현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간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는 화성그린에너지협동조합에 사업을 제안해 진행했습니다.”
- 나상철 화성우리신협 상무

그 결과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은 유기동물보호소 4곳을 선정해 매월 간식을 제공했으며, 화성그린에너지협동조합은 유기동물보호소 2곳에 태양광 패널 설치로 선풍기 20대를 돌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화성우리신협은 두 협동조합과 협력해 발품을 팔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열악한 유기동물보호소를 선정했다. 임신화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화성우리신협에서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보호소 선정 재량권을 준 것은 물론, 직접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화성우리신협은 사업 기간이 끝난 2024년에도 해당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화성우리신협은 유기동물보호소 간식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했다. 나을수 화성우리신협 이사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돌봄과 환경 등 지역사회 복지의 영역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히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장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은 물론 신협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신협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윤이 목표인 제1금융권이 하지 못하는 가치를 추구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상생은 의미가 큼니다. 예컨대 2015년 설립한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은 어느덧 연 매출 5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사회적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신협도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 나을수 화성우리신협 이사장

mini
interview

임 신 화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신협은 사회적경제의 동반자”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 지원 이종협동조합 연합회의 30개 회원사 중에 가장 선배에 속합니다. 신생 협동조합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지역에 있는 신협에 찾아가서 거래를 시작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신협은 어떤 금융기관보다도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크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이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이자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의 당사자로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운데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분이 거의 50%에 이릅니다. 이들이 금융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장애인금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협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규모 금융교육교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과 SH청년임대주택 입주 지원

한편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2년부터 한신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일반대학원 사회적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과 지원 부문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학습과 교류 등 폭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에 신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3년 누적 6,000만 원의 장학기부금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2년부터 SH청년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 금융상품을 시행해 2023년 기준 누적 8건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사업

취약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자활지원 금융프로그램’

신협사회공헌재단은 본격적인 출범 첫해인 2015년 9월부터 약 2년간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자활지원 금융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출과 적금 등 신협의 금융서비스, 재단의 재정지원과 사회서비스를 접목한 자활지원 금융프로그램은 나름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향후 재단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자립의 희망과 행복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

자활지원 금융프로그램은 신협의 본질적 금융 업무에 복지혜택을 결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신협 정신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특히 자활자금의 조성뿐 아니라 자활 기간 중 위험방지, 자립 기반을 위한 자산 형성, 자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도록 했다.

자활지원 금융프로그램은 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하도록 가입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희망프로그램과 행복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먼저 소득 수단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프로그램은 자활을 위한 대출·자활 서비스·공제·자립지원 적금까지 4단계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1단계는 소득창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2년 만기 300만 원 이내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2단계는 자활 환경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제공 등 사회서비스를, 3단계는 자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보장 공제 상품을 무료로 가입시켜 주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자활의 최종 단계로 자산 형성을 위해 신협의 행복자유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소득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자의 자산 형성에 주력하는 행복프로그램은 적금·자활 서비스·공제 등 3단계의 혜택을 제공하고, 적금 만기 시 자립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협에서 대출 및 적금 실행, 신협중앙회가 공제 서비스, 그리고 재단이 대출이자와 적금 만기 축하금, 공제료와 생계 물품 등 재정을 맡은 공동 지원으로 의미를 더했다.

재단 사업의 가능성과 이정표를 제시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5년 5월부터 희망프로그램과 행복프로그램 개발에 나선 뒤 2015년 9월부터 참여신협에서 취약계층을 발굴해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출상품인 희망프로그램은 7개 신협에서 7건을, 적금상품인 행복프로그램은 21개 신협에서 63건을 취급해 1,118만 원을 지원했다.

자활지원 금융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해 신협의 주력 서비스가 총동원된 대한민국 최초의 패키지형 프로그램이라는 점,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프로그램으로 설계했다는 점, 자활대상자가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서비스로 구성했다는 점, 그리고 신협의 본질이기도 한 착한 금융서비스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신협 임직원이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자활대상자를 발굴해야 하는 어려움과 헛살론과 미소금융 등 저소득계층 대상 정책금융과의 차별성 저하, 자활 금액 의미의 모호성으로 실질적인 자활 지원과 연계하기에 미흡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수요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자활지원 금융프로그램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과 함께 대상의 명확화 서비스의 차별화 등에 대한 값진 경험과 교훈을 제공하며 향후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신규 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었다.



인재양성 / 협동조합 인재양성

아이들의 올바른 경제관념 위한 길잡이 — '어부바 멘토링'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16년부터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어부바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신협과 인근 아동복지시설이 결연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경제교육과 문화 체험을 제공하며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에 도움을 주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신협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신협 협동·경제 멘토링으로 출발

어부바 멘토링은 신협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제교육을 전국적 단위로 조직해 신협의 사회공헌활동 시너지를 높이고, 아울러 신협의 업(業)과 밀접한 주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적 아래 2016년 신협 협동·경제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신협 사회공헌재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휴먼네트워크사업단이 공동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해 첫발을 내디뎠다. 2016년 당시 전국 15개 주요 시도에 소재한 80개 신협에서 515명의 임직원 멘토가 참여해 인근 80개 아동복지시설의 멘티 1,862명에게 총 6개월간 야외활동, 문화체험, 금융서비스 교육을 제공했다.

이후 2019년 어부바 멘토링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갈수록 규모가 확대되어 현재 신협사회공헌재단의 대표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23년 기준 어부바 멘토링은 전국 215개 신협과 228개 아동복지시설이 참여해 942명의 멘토와, 5,933명의 멘티가 1,578회의 활동을 진행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3년 기준으로 아동복지시설별로 최대 400만 원까지 제공해 총 7억 4,000만 원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7억 1,000만 원의 후원금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특히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어부바 멘토링을 위해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금융교육 특화 교재와 교구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멘토링에 앞서 참가하는 신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멘토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여 멘토링의 기본 개념, 금융교육 강의법 등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한라신협, 어부바 멘토링

미래세대를 성장시키는 어부바 멘토링

어부바 멘토링 우수신협들은 아동복지시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멘티들에게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중 2016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한라신협과 2018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수지신협은 모두 우수활동 신협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 2회와 신협중앙회장 표창 1회를 받은 공통점이 있다. 한라신협은 함께의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융경제교육 이외에 안전체험관 방문, 여름 물놀이, 가족운동회,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고 있다. 강정신 한라신협 이사장은 어부바 멘토링에 대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있는 신협의 선하고 따뜻한 금융 이미지를 유지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경제 주체로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기찬 수지신협 이사장

수지신협은 매년 사업이 시작되면 신협 멘토링 담당 직원이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 후 아이들의 성장과 경제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이 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이기찬 수지신협 이사장은 “신협의 젊은 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하면서 금융 업무뿐 아니라 신협의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현장에서 배우게 된다. 이는 곧 신협 구성원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으로 이어져 내부적으로도 매우 큰 교육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어부바 멘토링에 참여해 2022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상, 2023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며 단기간에 괄목할 성과를 낸 호성신협은 지역아동센터와의 소통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 사업을 담당하는 박건 호성신협 사원은 “멘토와 멘티가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친밀감을 높이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세종우리신협 대리는 신협에서 근무하며 익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경제적·정서적 발달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어부바 멘토링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고, 또한 어렸을 때의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어부바 멘토링 사업은 경제 개념을

전은경 LH행복꿈터 동백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장
 “어부바 멘토링은 가장 차별화되고
 실질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

mini
 interview



용인시 초당마을에 있는 LH행복꿈터 동백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는 2024년 수지신협과 함께 어부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전은경 센터장은 어부바 멘토링에 대해 여타의 외부 프로그램과 비교해 차별화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한다.

“기존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이 매칭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강사와 일정을 조율한 뒤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어부바 멘토링은 사전교육을 통해 방향성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워 매우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멘토가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면서 라포가 잘 형성될 뿐만 아니라, 실제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멘토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은 물론 직업에 대한 경험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부바 멘토링은 협약식부터 인상적이었다. 신협의 설립 배경과 철학,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신협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이 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협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신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바른 경제관을 형성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큰 보람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사업이 여러 센터로 확장되어 더 많은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워주는 소중한 기회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우리신협은 2016년부터 어부바 멘토링에 참여하며 신협중앙회장표창 2회, 보건복지부장관상 1회 수상했다.

재단-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협-아동복지시설의 유기적 협력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어부바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하나의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재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협과 아동복지시설 간 협력이 잘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2016년 80개 신협으로 시작해 2024년 226개 신협이 참가하며 183% 성장한 비결을 협력에서 찾았다.

“어부바 멘토링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이 업(業)을 살려서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기업이 임직원이 참여하는 활동들이 단순 봉사활동에 머무는 것과 다르게 협동조합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의 다음 세대를 육성하는 활동으로 재단의 가치인 인재양성과 지역나눔을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으로 인연을 맺은 기관과 멘토링 외의 다양한 활동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보게 됩니다.”

- 신예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선임

신예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선임은 “어부바 멘토링에 참여했던 아동복지시설은 사업의 장점과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보이기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문화생활 경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어부바 멘토링은 공동체 의식과 협동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로, 아이들은 물론 아동복지시설과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아동복지시설과 매칭할 때 어부바 멘토링에 대해 경제를 놀이형식으로 배우는 참여형 활동이라는 점과 신협 임직원이 직접 멘토로 참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많은 매력을 느끼십니다.”

- 신예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선임

마지막으로 신예슬 선임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뿐 아니라 역할의 부담감까지 있는 쉽지 않은 활동이었음에도 묵묵히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신협 임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어부바 멘토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지신협, 어부바 멘토링



멘티의 정서 발달과 실험 인지도 향상에 기여

어부바 멘토링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정서 발달과 실험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실험 멘토의 지원으로 멘티가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학교와 센터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진행한 멘토링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이 같은 평가를 뒷받침한다.

먼저 5,261명의 멘티가 참여한 설문 결과, 멘토가 새로운 지식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답한 멘티는 82%, 멘토링 후 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생겼다는 응답은 74%, 내년에도 멘토링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88%에 이르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제교육으로는 실험 견학, 전통시장 체험, 보이스피싱 교육 등을 꼽았으며, 향후 멘토와 함께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문화 활동과 체험, 여행 등을 꼽았다.

70명의 실험 임직원 멘토가 참여한 설문에서는 72%가 멘티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68%가 실험에서 멘토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준다고 답했다. 아울러 어부바 멘토링이 개인적인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답한 멘토도 73%에 이르렀다.

211명의 아동복지시설 담당자가 참여한 설문에서는 무려 99%가 어부바 멘토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매칭 실험이 협조적이라고 답했으며, 전원이 멘토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신규 개설 희망 필수 프로그램으로 가상화폐·주식·대출 등을 꼽기도 했다.

[2016년~2023년] 어부바 멘토링 추진 현황

연도	실험	아동복지시설	활동횟수	멘토(임직원)	멘티(아동)
2016년	80개	80개	473회	515명	1,862명
2017년	84개	85개	626회	486명	1,919명
2018년	91개	92개	648회	615명	2,250명
2019년	98개	106개	753회	636명	2,569명
2020년	123개	126개	694회	512명	2,882명
2021년	162개	169개	1,185회	685명	4,178명
2022년	180개	188개	1,359회	811명	4,845명
2023년	215개	228개	1,578회	942명	5,933명
누적	1,033개	1,074개	7,316회	5,202명	26,438명



인재양성 2 전통문화 인재양성

미래세대와 함께 전통예술의 내일을 꿈꾸다

‘국악영재 발굴’ 및 ‘전통문화 교육지원’

실험사회공헌재단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21년부터 군산에 있는 전통한국 음악예술원과 함께 전통예술교육 및 국악영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과 어르신에게 한국무용·타악·관소리·민요 등 다양한 분야의 전통예술을 교육하는 한편, 2022년부터는 국악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선발해 국악영재로 양성하고 있다.

전통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무료 교육

신협사회공헌재단의 국악영재 양성사업은 신협이 지속적으로 힘써오고 있는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 예술 접근성을 높여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함은 물론, 국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영재를 교육해 전통문화 예술을 지속 보급하며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사업 파트너인 전통한국음악예술원은 전통 및 창작 음악의 지속적인 연구와 보급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발전, 지역공연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도모하며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단체이다. 특히 국악영재 발굴 및 양성과 노년층의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복지 실현,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전통한국음악예술원은 아동과 어르신 약 300명에게 한국 무용 타악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분야의 전통예술을 교육하고, 2022년부터는 영재반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국악영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21년에는 126명, 2022년에는 110명, 2023년에는 120명에게 국악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국악 교육과 영재 발굴 외에 전통음악 체험과 연1회 정기공연 등으로 교육을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억 3,000만원을 지원하며 전통예술교육에 힘쓰고 있다.

56 | 국악영재 양성사업, 국내 국악대회 각종 성과 달성



다양한 대회 수상과 영재 발굴 성과

전통한국음악예술원은 국악 관련 대회에서 수상을 이어가며 값진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2022년 7월 열린 ‘제34회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에서 강하린이 초등부 저학년 한국무용부문 특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10월 개최된 ‘제30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초등부 무용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2023년에도 성과가 이어졌다. 그해 4월에 열린 ‘통일기원 제9회 세종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단체부 판소리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개최된 ‘제9회 부여백제 전국국악경연대회’ 중등부 판소리부문 대상,

mini
interview

김금희 전통한국음악예술원장
“국악에 대한 자부심과 영재 발굴의 책임감으로!”



전라북도 판소리 이수자이자 전통한국음악예술원을 이끌고 있는 김금희 원장은 “신협의 지원으로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국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단순히 체험 위주의 무료 교육이 아닌 국악의 매력과 가치를 이해하고 영재를 발굴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사업의 의미를 전했다.

“현장에서 보면 예체능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한국음악예술원의 국악 교육은 신협이라는 또 다른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더욱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은 큰 결단과 의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제11회 모여라 한음(국악) 영재들 경연대회’ 앓은반 대상과 판소리 대상, 지도자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또한 8월에 열린 ‘2023 동량청소년 종합예술제’에서 판소리 으뜸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다.

2024년에도 수상 소식이 계속됐다. 4월에 열린 ‘통일기원 제10회 세종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이완 외 5명이 단체부 판소리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박은유 외 5명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어 5월에는 ‘제36회 전국 유·초·중·고 무용경연대회’에서 강하린 외 5명이 전체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강하린은 초등부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6월에는 ‘제7회 대한민국의무형문화재 춤 제전’에서 강하린이 초등부 대상을 차지하며 자신의 기량을 더욱 확고히 했다. 7월에는 ‘서울예술대학교 동량청소년 종합예술제’ 한국음악부문에서 신정훈 외 7명이 으뜸상을, 안지민 외 4명이 버금상, 그리고 이동호 외 다수 학생이 일쭉상을 차지하며 우수한 실력을 선보였다. 같은 달 ‘제15회 아트밸리 한음(국악) 꿈나무 경연대회’에서는 고경민과 강하린이 각각 타악 및 무용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제12회 모여라!! 한음(국악) 영재들’에서는 김소연 외 13명과 김연아 외 6명이 민요 및 판소리부문에서 각각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획득했다. 10월에는 ‘제42회 전국국악대전’에서 최유리가 판소리 일반부 대상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신희사회공헌재단이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는 김하람은 5월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초등부 판소리부문에서 장려상을, 9월 ‘제24회 익산 전국 판소리·고법 경연대회’ 판소리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전통문화가 잊히는 상황에서 신희가 교육과 지원을 해줘서 매우 감사합니다. 미래 세대가 우리 고전 예술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해서 커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 명 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이수자

국악으로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생 강하린은 전통한국음악예술원 국악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발레학원을 다녔으나, 한국무용에 매력을 느껴 지금은 매주 토요일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하린이의 장래 희망은 선생님처럼 한국무용 교수가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생 김하람은 2023년 국내 국악대회에서 4번이나 수상한 판소리 영재로, 신희사회공헌재단에서 3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하람이는 어린 시절 상처로 심리치료를 받던 중에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전통한국음악예술원 국악 교육을 찾았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지만 판소리를 할 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치고 목소리도 우렁차다. 하람이는 “어른이 되어도 계속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신희사회공헌재단은 우수하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를 미래세대에 전수해 후대에 가치와 유산이 이어지도록 기여하는 일에 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전통문화를 비롯한 우리나라 문화 예술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인재양성 3 미래세대 성장지원

교육기회 격차 해소에 힘쓰다

— ‘소외계층 장학금지원’ 및 ‘1신희 1아동 결연사업’

신희사회공헌재단은 교육기회 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2년부터 장기적인 후원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1신희 1아동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통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평등한 교육 기회를 위한 노력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취약계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은 2019년 군산, 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 자녀 후원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신협사회공헌재단은 해당 지역 내 신협 조합원 가정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61명에게 1억 7,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후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0년부터 사회공헌활동 참여기회가 적었던 직장 신협, 지역 및 종교단체 신협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해당 신협으로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에 대한 열의를 이어가고 있는 대학생들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소외계층 대학생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이들이 학업에 집중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연 2회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누적 1,106명의 학생에게 10억 4,598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19년~2024년] 소외계층 장학금 추진 현황

연도	인원	참여신협	지원금액
2019년	61명	10개	1억 7,800만 원
2020년	181명	26개	1억 2,900만 원
2021년	279명	114개	2억 2,698만 원
2022년	289명	125개	2억 5,000만 원
2023년	233명	105개	2억 1,400만 원
2024년	63명	48개	4,800만 원
누적	1,106명	428개	10억 4,598만 원

직장 및 단체신협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기회 제공

2021년부터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남대학교의료원신협은 유대 관계에 있는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 광 해 영남대학교의료원신협 이사장

최광해 영남대학교의료원신협 이사장은 “지역 신협에 비해 자산 규모가 영세해 자체적으로 장학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직장 신협을 중심으로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좋은 제도를 지원해 주어 매년 잘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의 조합원에게 신협을 알리고 호감도를 높이는 역할이 첫 번째 긍정적 효과라면, 간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합원 사이에서도 장학금 사업이 이야기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인식하고 각성하는 순기능도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 광 해 영남대학교의료원신협 이사장

2021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박명희 응암동천주교회신협 실무책임자는 무엇보다 철저히 수혜자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치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대상을 취약계층 대학생으로 하면서, 장학금 지급 방법 등을 신협 자율에 맡기고, 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사진 등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행정 절차 하나하나에서 대상자를 먼저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박 명 희 응암동천주교회신협 실무책임자

홍춘매 응암동천주교회신협 이사장은 사업 참여 두 번째 해부터 주민센터와 의논해 거래 유무와 상관없이 장학금 지급을 시작했을 때 거래자이어야 하는지, 성적이 좋아야 하는지, 학생들이 향후 홍보활동에 참여해야 하는지 많은 문의를 받았던 기억을 회상했다.

“신협이 요란한 행사 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학생들을 응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어려운 학생을 돕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협과 무슨 일이든 의논할 수 있고,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 홍 춘 매 응암동천주교회신협 이사장

생활비 지원으로 효용성 높은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은 등록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일반 장학금과 달리 생활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효용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2021년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합천신협은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을 발굴하기 쉽지 않아 이듬해부터 합천 유일의 보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합천애육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육원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은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받지만, 생활비는 직접 마련해야 한다. 학업과 생계유지를 병행하며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신협사회공헌재단 장학금이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대체할 수 있어 학생들이 얻는 혜택은 매우 크다.

서정홍 합천신협 이사장은 “자금 부족으로 신협 스스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에 긍지를 느끼며, 이러한 활동이 신협경영과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합천신협, 장학금 전달식

mini interview

이유나 영남대학교의료원 간호사
“신협, 반가운 이름!”

2022년 하반기에 학과 교수님의 추천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라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교재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서류 절차도 쉬웠고 상담 직원분도 너무 친절히 대해 주셔서 신협이라는 금융기관을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 영남대학교의료원에 취업해 직장 신협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척이나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받은 만큼 나누며 살고자 합니다.

1신협 1아동 결연사업, 지속적 후원으로 한 아이의 성장을 돕다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은 지역 내에 있는 소외계층 아동을 정기후원해 건강한 성장을 돕기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만 18세 미만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후원을 지속한다. 신협중앙회 지역본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운영을 총괄하며, 신협이 아동 추천과 후원금 납부 등 사업 진행을,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중간 지원 역할로서 후원금을 총괄해 사업을 수행한다.



제주지역 1신협 1아동 결연사업 협약식



광주전남지역 1신협 1아동 결연사업 기부금 전달식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은 2022년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2023년부터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대되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오랜 기간 개별 후원을 해오던 제주 지역의 신협들은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모색했고, 그 뜻이 지역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초록우산의 역할과 맞아떨어져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이 탄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2022년에는 제주에 이어 인천경기와 충북 지역본부가 시작한 이후, 2023년 전국 417개 신협이 합류했으며, 2024년에는 마침내 전국 10개 지역본부가 모두 참여하며 자발적으로 사업을 꽃 피웠다.

김파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과장은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시적 후원도 큰 도움이 되지만 학원비 등 아이의 학업 유지와 가정의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정기 후원금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아이는 걱정 없이 학원에 갈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버스를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때그때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용돈을 관리하며 꿈을 키우고 나아가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꾸준히 후원하는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진정성 있는 사업입니다.”

- 김 파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과장

동서울신협, 한 아이가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무게감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기부사업을 넘어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매달 누군가를 꾸준히 돕는 일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을 접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조성필 동서울신협 이사장

동서울신협은 현재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을 통해 10명의 아동에게 매월 후원하고 있다. 10명 모두 한부모가정이며, 아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 돌봄 공백에 따른 정서적 불안과 심하게는 발달 지연을 겪고 있었다. 동서울신협은 이들을 위해 생활비와 학업비를 지원했고, 경감된 양육비 부담은 학업 수준의 향상과 심리적 안정 등 전반적인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성필 동서울신협 이사장은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에 대해 “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의 어른으로서, 지역의 이웃으로서 꾸준히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다른 기부활동보다 애착심과 책임감이 더 드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은아 동서울신협 대리는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기부금 및 지원 활동보다 무게감이 있으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액수이지만 한 아이의 미래를 위해 계속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진부신협, 사회적 연대와 책임은 가장 보람된 가치

진부신협은 2023년 8월부터 한부모가정의 10살 남자아이와 1신협 1아동 결연을 이어 나가고 있다. 가족은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주 2회 혈액투석을 하는 아버지뿐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에게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은 큰 힘이 되고 있다. 축구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이는 이번 신협의 후원으로 축구교실에 등록해 열심히 축구를 배우며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진부신협 직원들은 별도의 기부를 통해 아이에게 축구용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동희 진부신협 부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적인 후원과 응원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은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고 신협과 아동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신협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실현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 동 희 진부신협 부장

제상신협, 작은 힘을 이끌어 큰 힘을 만드는 방법

제상신협은 2022년 말,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의 결연아동 어머니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지속적인 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 아동은 뇌종양을 앓고 있는 누나를 대신해 어머니의 집안일도 돕는 착한 중학생으로, 학업 의지가 강해 후원금을 학원비로 사용하며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해가 바뀌고 이 아동이 우수한 성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아동의 어머니도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근 조리사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르며 자립 의지를 다졌다고 했다. 제상신협 임직원들 모두가 뿌듯함과 몽클함을 느낌 순간이었다.

이예지 제상신협 사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아이가 올바른 가치와 목표를 갖고 성장하는 데 일관성 있게 응원하는 진정성을 담은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을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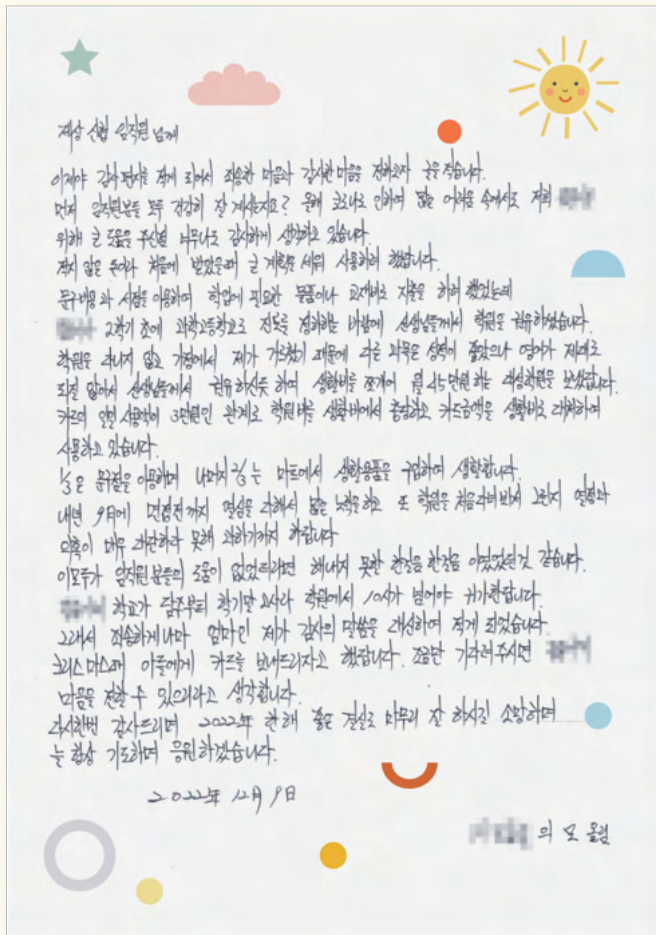
김병식 제상신협 이사장은 “지금까지의 막대한 후원과 달리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은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 미래 가치와 성장이 담보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이 일정 기간 책임과 의무를 갖고 지원한다면 아동 또한 그러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어른이 되었을 때 대를 잇는 나눔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성공은 미래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하는 길이 되고, 이는 신협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 김 병 식 제상신협 이사장

1신협 1아동 결연사업 추진 현황

구분	참여신협	수혜아동	연간 후원금
서울	20개	57명	71,500,000원
부산경남	34개	51명	61,200,000원
인천경기	113개	150명	179,000,000원
대구경북	22개	27명	43,200,000원
대전충남	85개	90명	108,000,000원
광주전남	50개	55명	66,000,000원
충북	51개	72명	46,550,000원
전북	46개	47명	55,800,000원
강원	5개	5명	6,000,000원
제주	25개	40명	62,400,000원
누적	451개	594명	699,650,000원



1신협 아동 결연사업 수혜자 편지
제상신협 임직원님께

이제야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OO를 위해 큰 도움을 주신 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 처음에 받았을 때 큰 계획을 세워 사용하려 했답니다. 문구와 교재비로 지출하려 했는데, OO의 진로를 고민한 선생님께서 학원을 권유했습니다. 학원을 가지 않아서인지 다른 과목은 성적이 좋았으나 영어가 부족해 생활비를 쪼개어 보내고 있습니다. 학원을 처음 다녀봐서 그런지 열정과 의욕이 대단하다 못해 과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두가 임직원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2년 한 해 좋은 결실로 마무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지난사업

모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어린이 축구교실’ 및 ‘어부바 원어민 영어교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스포츠와 교육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와 함께 어린이 축구교실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과 조합원 자녀들에게 협동심과 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어부바 원어민 영어교실을 통해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학습 결손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며 교육 양극화 해소에 기여했다.

협동심과 사회성 함양 기회 제공한, 신협 어린이 축구교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플랜비스포츠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7년부터 2년간 어린이 축구교실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플랜비스포츠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2016년 추진한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최우수팀으로, 당시 박항서 감독과 경남FC 행정 프런트 출신 직원들 그리고 은퇴 축구선수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역나눔'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형 인재를 발굴하고 함께의 가치를 전달하며, 다음 세대가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어린이 축구교실은 신협연수원에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60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가운데 제1기 교실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59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가운데 제2기 교실을 진행했다. 2018년에는 4회로 확대 진행해 누적 368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축구강습, 재능진단, 축구 기본기 훈련, 미니 리그전, 협동조합 교육 등의 프로그램 외에 제1기에는 설기현, 제2기에는 김병지 등 전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인회가 진행됐다.

2018년에는 규모를 확대해 전반기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후반기에는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총 4회를 운영했다. 먼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제1기 축구교실에는 60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으며,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충남 부여군청 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제2기 축구교실에는 63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10월 19일부터 21일에는 62명의 어린이와 함께 담양리조트에서 제3기 축구교실을, 10월 26일부터 28일에는 63명의 어린이와 함께 창원축구센터에서 4기 축구교실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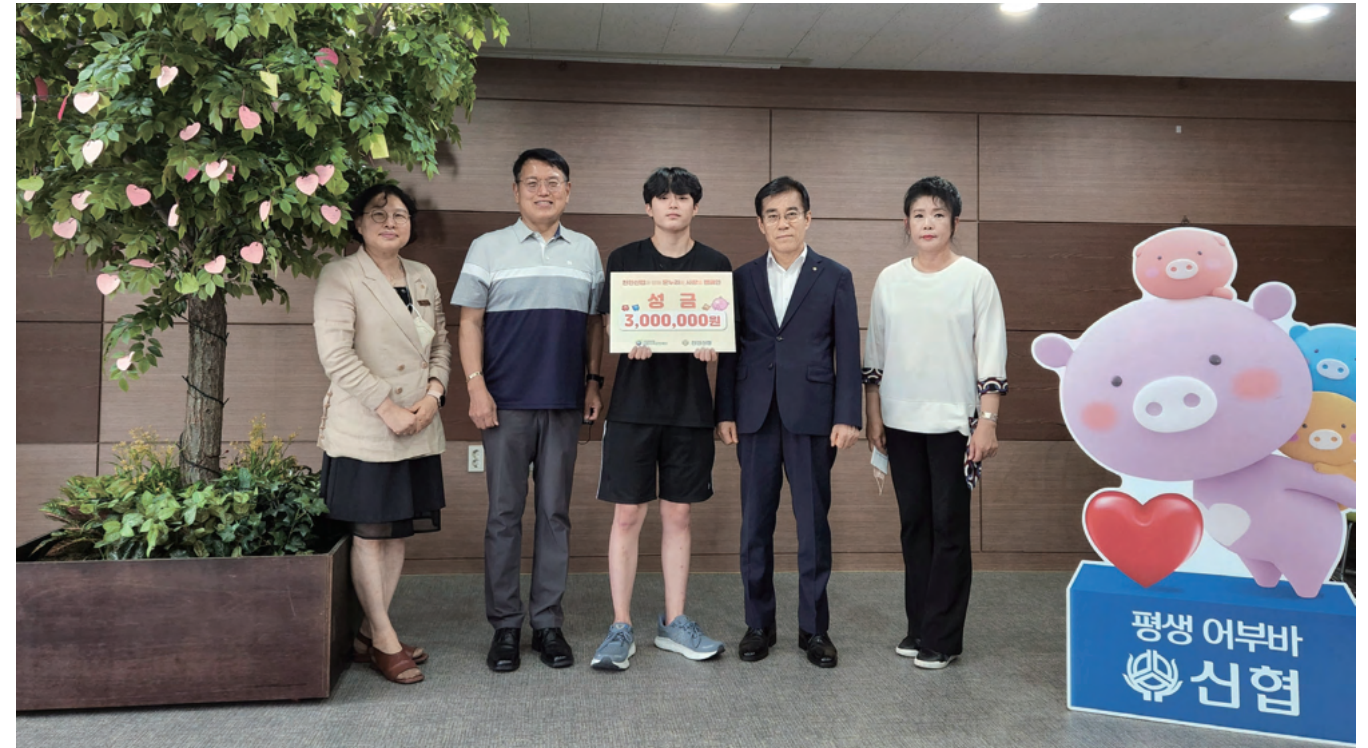
어린이 축구교실은 참여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나 재단 사업의 우선순위와 인적 물적 자원 투입 등을 고려해 사업을 잠정 종료했다.

다양한 문화 체험까지 겸비한, 어부바 원어민 영어교실

어부바 원어민 영어교실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협이 원어민 강사를 모집해 10~15명의 초등학생 아동에게 무상으로 기초학습·생활 회화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밖에도 헬로윈 파티·추수감사절·블랙 프라이데이 등 외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국제영어마을·생태공원·지역 문화관 등 다문화 감수성 발달을 위한 야외 활동을 함께 제공했다.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달구벌신협, 서해중앙신협, 광주원광신협, 경남제일신협, 김포한강신협을 선정해 총 5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전국 6개 신협에서 63명, 2021년에는 24개 신협에서 321명, 2022년에는 30개 신협에서 412명의 아동에게 원어민 영어교육을 제공해 누적 65개 신협, 849명의 아동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어부바 원어민 영어교실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돌봄의 기능까지 수행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재단의 가치체계, 그리고 교육사업의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지역나눔 /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발적으로 시작한 전통의 기부 캠페인

‘온누리에 사랑을’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은 1998년 3월, 조합원들과의 유대가 깊었던 신협 임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조성하며 시작된 신협중앙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5년 6월 사업을 이관받아 수혜자 발굴을 지역별 할당 방식에서 기부자 추천과 임직원 선정 방식으로 변경해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캠페인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은 1998년 3월 신협중앙회가 매월 발행하던 회보 『해피스토리 신협』에 ‘1,000원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모토로 매달 1,000원씩 모아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전하는 「온누리에 사랑을」 고정 코너를 운영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며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재단은 신협중앙회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은 뒤 2017년 8월, 카카오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같이가치’ 채널에 신협 온누리에 사랑을 공익모금 페이지를 구축해 내부 채널과 외부 채널 두 개의 트랙으로 지원활동을 펼쳐 나갔다. ‘같이가치’ 채널을 통한 전 국민 캠페인은 모금함에 전국 복지관에서 신청한 사례 중 선정된 이웃의 사연을 게재하고 재단에서 제공하는 시드머니와 네티즌의 댓글, 공유 등의 간접 참여를 금액으로 환산해 기부금을 사례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2022년까지 운영되었다.

현재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은 신협 임직원이 주변의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해 재단에 추천하고 재단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해 긴급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1인당 200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 상황이 심각하여 긴급성금이 필요한 경우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재단이 사업을 이관한 후 2015년 25가정에 6,050만 원을 지원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53가정에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23년까지 누적 742가정에, 임직원 참여 누적 23억 5,300만 원을 지원했다.

[2015년~2023년]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 추진 현황

연도	참여신협	지원가정	지원금액
2015년	33개	25가정	6,050만 원
2016년	39개	41가정	9,550만 원
2017년	22개	33가정	1억 550만 원
2018년	20개	30가정	1억 81만 원
2019년	25개	36가정	1억 3,200만 원
2020년	52개	65가정	2억 206만 원
2021년	71개	83가정	2억 5,300만 원
2022년	88개	101가정	2억 9,400만 원
2023년	51개	53가정	1억 6,300만 원
누적	401개	743가정	22억 5,400만 원

mini interview

김정혁 경일신협 이사장

“온누리에 사랑은 사회공헌의 꽃!”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은 생활고를 겪는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유익하고 또한 널리 알려진 캠페인으로 진속하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교회와 기타 단체를 통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했는데, 평소 성실하게 살다가 불행한 이유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성금으로 지원되어 정말 급한 곳, 필요한 부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피부가 내려앉아 한쪽 시력을 잃어가는 분이 눈썹 거상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 일이 있었는데요. 수술을 마치고 신협 덕분에 잘 치료할 수 있었다며 정말 고맙다고 웃어주시는 모습에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을 통해 많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ini interview

이주원 동인천신협 서기보

“보육원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온누리에 사랑은”

신협과 가까운 곳에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30~40명이 선생님들의 보살핌을 받아 생활하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퇴소해 홀로 살아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을지 알아보다가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인천신협에서는 매년 보육원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육원 졸업 후 꿈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데, 한 아이가 신협에 지원받은 금액을 예금하러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금 개설을 하면서 저축 습관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밝음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해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은 다른 복지사업과 다르게 금전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한 성금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소득자나 가정폭력피해 가정 등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폭 넓게 주변 이웃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돕는 형태로도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mini
interview

서동열 방림신협 이사장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에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2015년 4월 직원이었던 시절 지역본부의 권유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당에서 빈첸시오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접 대상자를 추천해 도움을 드린 적이 있고, 방림신협에서도 매년 적극적인 발걸음 통해 도움이 필요한 조합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조합원이 직접 찾아와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후로도 신협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과 작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수혜 가정에 대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지켜보며 필요시 꾸준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mini
interview

이현주 방림신협 부장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을 통해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2018년에 지원한 사례로,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홀로 아픈 아이를 돌보며 힘든 시기를 보내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해당 캠페인을 통해 도심을 벗어나 아이의 건강에 적합한 자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아이의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에 지원한 사례로, 홀로 두 아들을 부양하며 힘겹게 살아가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해당 캠페인 덕분에 스포츠맨스 국가대표를 꿈꾸는 아들의 의상비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그해 전국체전에서 아들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고, 작은 도움 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의 기본적 가치는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모태가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방림신협은 이러한 가치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mini
interview

장광속 이리신협 이사장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가뭄 속의 단비 같은”

이리신협은 천주교 신자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신협으로,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조합원의 상당수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성당 소식지에서 말기암 환자로 새벽에 거리에 나가 폐지를 수집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조합원의 소식을 접하고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에 추천했지요.

수혜자로 선정되어 300만 원을 전달하자 당분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해하던 모습이 선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조합원님은 2021년 11월 암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라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뿌듯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분이 계시지만, 이리신협에서는 신협과 거래하는 어려운 조합원을 우선 추천해 2021년부터 5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임직원 대부분이 매월 성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직원들 스스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대상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수혜 가정에는 매년 김치와 물품을 후원하며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에 사랑을 후원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가뭄 속의 단비처럼 쓰입니다. 사회에서 내몰린 이웃을 생각하는 참된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캠페인이자, 내가 신협인임을 깨닫게 해 주는 캠페인으로,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mini
interview

배범진 천안신협 이사장

“지역과의 직접 소통과 실질적 지원에 보람 느껴”

온누리에 사랑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신협사회공헌재단을 연결해 꼭 필요한 곳으로 지원이 갈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신협은 2020년부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2023년까지 5개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월세 10만 원이 밀려 거리로 나앉게 된 어르신을 지원하면서 가족관계에 따른 제도적 허점으로 고생하는 이웃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은 한정된 자금이 정말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협이 지역사회와 잘 소통하고 직접 보고 판단해 수혜 대상을 선정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주변을 보면 많은 분이 관심을 기울이며 동참하고 있는데, 이처럼 실질적인 지원 덕분에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많은 가정에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역나눔 2 지역사회 문제해결

우리동네를 살리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 ‘우리동네 어부바’ —

전국 신협은 각 지역에서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한 2011년 발족한 두손모아봉사단은 신협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15개 지역별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설립 이후 전국 신협과 두손모아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동네, 나눔으로 어부바하기

전국 신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복지와 문화 후생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 발족한 두손모아봉사단은 김장 나눔·사랑의 집수리·취약계층

아동 지원·노숙인 무료 급식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 왔다. 특히 두손모아봉사단 활동은 신협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당면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활동을 직접 계획해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표방하며 신협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재단은 2015년부터 두손모아봉사단의 활동비를 지원해왔으며, 2019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신협과 두손모아봉사단이 지역사회 특성에 더욱 적합한 사회공헌활동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선정된 각 신협과 봉사단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다문화가정, 경력 단절 여성, 재가 장애인, 홀몸 어르신, 지역아동센터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대상에게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동네 어부바는 2015년 3,7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2,500여 명에게 지원을 시작하며 2023년까지 누적 12만 9,037명에게 나눔을 제공할 수 있었다.

[2015년~2023년] 우리동네 어부바 추진 현황

연도	참여신협	봉사자	지원대상	지원예산
2015년	-	3,700명	2,500명	151,536,000원
2016년	-	-	11,226명	139,420,100원
2017년	-	1,519명	6,595명	146,680,000원
2018년	-	2,069명	19,119명	184,100,000원
2019년	433개	5,301명	30,634명	257,699,690원
2020년	349개	1,172명	18,006명	284,837,868원
2021년	333개	5,490명	13,840명	473,076,460원
2022년	416개	2,446명	17,983명	597,926,000원
2023년	325개	1,294명	9,134명	507,740,850원
누적	1,856개	22,991명	129,037명	2,743,016,968원

신목신협, 5060 중장년 도시농부 텃밭 가꾸기 어부바 프로젝트

신목신협은 2024년 신정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5060 중장년 도시농부, 텃밭 가꾸기 어부바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1인 가구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도시농장 텃밭을 가꾼다는 아이디어가 시작이었다. 신목신협은 2023년 어르신을 위한 테마여행 동호회를 운영하며 사회적 관계가 삶에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신목신협, 5060 중장년 도시농부 텃밭가꾸기

아주신협, 저장강박세대 홈케어로 쾌적한 일상 찾기 프로젝트

중장년 1인 가구 남성들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활동에 의미를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여기에 디지털 금융 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시금치(시니어 금융 치료) 프로그램과 요리 교실을 추가해 5060 중장년 남성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전반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했다.

2024년 6월과 7월 두 달에 걸쳐 8명의 5060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1교시는 텃밭가꾸기, 2교시는 금융교육과 요리 교실을 겨주로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기존에 고독사 위험군 5060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추가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참여자들 역시 회기를 거듭할수록 진심으로 참여하며 매주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업을 담당한 최정은 신목신협 주임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나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활동하며, 말 그대로 우리 동네와 ‘연결’된다고 느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지왕 신목신협 이사장은 “이번 우리동네 어부바는 신협 운동 3대 정신 중 협동의 가치를 통해 1인 가구 5060 중장년층이 사회에서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자들과 복지관 관계자뿐 아니라 지역주민께 신목신협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린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주신협, 저장 강박 세대 홈케어로 쾌적한 일상 찾기

아주신협에서는 2023년과 2024년 거제시청 사회복지과와 함께 ‘아주신협과 함께하는 저장강박세대 홈케어로 쾌적한 일상찾기’ 사업을 운영했다. 윤상찬 아주신협 이사장의 신규 사업 발굴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은 실태 파악을 거치며 예상외로 대상 세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처한 극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위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해당 세대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던 곳을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상 찬 아주신협 이사장

아주신협은 공무원과 이웃, 전문용역업체, 보건소, 소방서 등 지역 내 가용자원과 연계해 대상자 발굴과 가족 면담 및 설득부터 폐기물 처리와 청소, 심리상담 및 치료, 안전 점검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유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의 긴밀한 협조와 도움을 받기도 했다.

“처음 접촉했을 때 대상 가구가 완강히 거부하고 진행 단계에서 물건에 강한 집착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깨끗해진 집안 내부와 화장실 등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특히 구경하던 이웃들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윤종경 아주신협 전무

윤상찬 아주신협 이사장은 “신협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동네 어부바의 사업설정과 방향이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관내 관공서와 언론기관을 통해 자연스러운 홍보는 물론 신협의 이미지가 크게 높아져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제민신협, '한 장, 愛담다' 사진전 포스터 및 전경

제민신협, '한 장, 愛담다'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프로젝트

제민신협에서는 2023년부터 ‘한 장, 愛담다’라는 이름으로 장수사진(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사업을 진행했다. 한 장, 愛담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맞물려 빈부격차, 장애 등으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전 본인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 사진을 추억으로 남겨주는 사업이다. 기존 영정사진의 선입관을 벗어던지고 ‘현재의 순간을 기록한다’는 관점에서 자유롭게 활기 넘치는 추억을 선사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이를 위해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해 원하는 스타일을 파악하고 사진작가, 의상, 헤어 메이크업 전문가와 함께 촬영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 증명사진 찍어내듯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마치 연예인 모델이 된 것 같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촬영한 모든 사진은 파일과 액자로 무료

제공된 것은 물론 제민신협 본점 무인카페(CAFE:IN)에 사진전을 진행해 지역민들과 뜻깊은 추억을 만들기도 했다.

고문화 제민신협 이사장은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추진한 사업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멋진 옷을 입고 밝게 웃고 있는 본인의 모습이 담긴 액자사진을 받고 흐뭇해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웃고 사는 것’을 나누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한 장, 愛담다 사업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진성용 제민신협 전무는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맞게 진행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이라고 우리동네 어부바를 평가했다.

풀무신협,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의료·돌봄 사업

풀무신협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흥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돌봄 관련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을 운영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추구하는 흥성의료사협 활동에 공감하며 협업을 통해 매 2주마다 어르신들을 방문해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건강꾸러미 배달과 매주 2회 진행되는 그림 그리기, 영화 감상, 춤추기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어르신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년층의 근력 향상을 통한 낙상 예방 운동모임도 진행되고 있다. 매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늘어나면서 어느덧 흥성의 중요한 지역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풀무신협, 의료·돌봄 사업

“농촌 고령화와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에 필요한 돌봄을 스스로’ 마련하는 자치 역량입니다. 마을 단체 간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계속거주’ 여건 마련과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활동은 ‘자치’의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안 상 균 흥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강현주 풀무신협 전무는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어 관계의 끈을 이어가고 일상의 어려움을 협동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을 차원의 문제해결을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을 통해 시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재단이 지원하고 흥성의료사협과 협업하는 현재 사업이 오랫동안 함께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인천두손모아봉사단,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나눔과 봉사 활동

인천두손모아봉사단은 2017년부터 인천의 비영리민간단체 ‘건강과 나눔’과 함께 어린이건강 축제를 주관해 무료 진료를 시행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건강 먹거리와 학용품, 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지원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가정 밖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별 청소년 쉼터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 및 고민 상담 등을 통해 범죄예방과 성장기 필요 물품들을 지원하고 구강검진을 통한 치과 치료 사업을 전개했다.

김인규 인천두손모아봉사단장은 “인천두손모아봉사단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8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동네 어부바를 시작으로 나눔의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회적·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꾸준히 봉사하는 데 신협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 인 규 인천두손모아봉사단장

인천두손모아봉사단, 가정 밖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

‘온세상 나눔 캠페인’

2015년 신협사회공헌재단 창립 1주년을 기념한 연탄 봉사로 시작된 온세상 나눔 캠페인은 매년 전국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난방용품을 전달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연말 캠페인이다. 재단 창립기념일인 10월 1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 신협에서 소외계층 가정에 난방용품과 함께 건강식품 및 생필품 등을 직접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단의 전국 단위 첫 기획 사업

온세상 나눔 캠페인은 2015년 10월 14일 신협사회공헌재단 창립 1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친 것이 시작이었다. 신협의 일상적인 절기 봉사를 조합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조직화한 것으로, 전국 195개 신협, 봉사자 3,748명이 참여해 전국에 연탄 53만 9,788장을 전달했다. 이 사업은 재단이 진행한 전국 단위 첫 기획 사업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사업은 2016년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연탄 외에 방한용품과 생필품으로 나눔 범위를 확대하며 온세상 나눔 캠페인으로 명명됐다. 2017년부터 빈 박스에 생필품 등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어부바박스 나눔사업을 동시 진행하며, 이후 신협 임직원이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오기 전 한파에 취약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미리 발굴해 각 가정에 이불·온열매트 등 난방용품을 직접 전달하며 보살피는 신협의 대표 나눔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온세상 나눔 캠페인은 2023년 672개 신협에서 봉사자 4,802명이 2만 1,758가정을 방문해 6억 5,000만 원 상당의 난방용품 1만 6,000여 개와 생필품·식품 등을 담은 어부바박스 1만여 개를 전달했다. 2023년까지 누적 4,103개 신협에서 봉사자 4만 5,073명이 참여, 10만 6,889가정에 나눔을 실천했다.

온세상 나눔 캠페인 연탄나눔



온세상 나눔 캠페인 어부바박스 나눔



mini
interview

양철성 부산시중양신탁 이사장

“겨울을 비추는 한 줄기 햇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운 임직원에게 온세상 나눔 캠페인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시중양신탁 임직원들의 참여가 가장 높은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뤄질 뿐 아니라 재참여율 또한 매우 높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매년 겨울 추운 날씨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어부바박스가 한 줄기 햇살이 되어 두렵지 않다는 후기를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뿌듯한 마음과 함께 신탁이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온세상 나눔 캠페인을 진행할 때 남구노인복지관과 치매 예방 캠페인을 병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배려 창구와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이라는 배너, 전단 등을 매장에 비치해 대부분이 고령층인 조합원의 관심을 불러 모았고, 이를 계기로 복지관과 결연해 지속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탁사회공헌재단의 캠페인에 접목해 사회적가치를 다양하게 실현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중양신탁



반월신탁

mini
interview

박진환 반월신탁 이사장

“나눔 자체의 온기를 전하다”

반월신탁은 지역 내 독거노인과 아동 이외에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선진학교, 멘토링활동 중인 지역아동센터, 수급비를 지원받는 조합원 등 다양한 대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세상 나눔 캠페인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온세상 나눔 캠페인은 물품 자체의 중요성보다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는 마음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부바박스를 받는 어린이들에게 그들을 응원하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가 있다는 기분이 전달되기를,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일주일 뒤 한 할머니께서 신탁에 찾아와 손으로 뜯은 수세미 10개와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해줘서 고맙다’는 편지를 전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 모두 감동받은 일이 떠오릅니다. 각박해지는 세상에 물건 이상의 사람의 온정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가슴에 새긴 시간이었습니다.

mini
interview

배영복 조선대학교전무

“작은 성의가 큰 변화를 이끈다는 믿음으로”

온세상 나눔 캠페인은 조선대학교신탁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특별한 활동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나눔의 의미로 매년 온세상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신탁은 조선대학교 내 환경미화에 힘써주시는 미화원들께 온정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겨울에는 따뜻함과 안락함을 나누는 상장을 담아 이불 세트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특히 한 미화원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한 이불이 큰 위로가 된다는 감사 인사를 전해주셔서 감동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조선대학교신탁 임직원들은 온세상 나눔 캠페인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작은 성의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하고, 더불어 내부적으로도 더욱 끈끈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신탁



남부신탁

mini
interview

이만우 남부신탁 이사장

“사랑으로 담긴 김장 나누기”

남부신탁은 매년 임직원과 조합원이 함께 김장을 해서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년 가정에 우선해 난방용품·생필품 등과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합원이 직접 농사지는 품질 좋은 배추와 채소들을 구입하고, 오랜 기간 한정식집을 운영한 조합원님의 주도로 질 좋고 맛 좋은 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치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매년 캠페인이 끝나면 구매 문의가 들어올 정도입니다. 여분의 김장을 지역 내 12개 경로당에도 전달하고 있는데, 매년 경로당 어르신들이 남부신탁의 김치가 맛있다면 신탁으로 김치를 사러 오시곤 합니다.

온세상 나눔 캠페인은 신탁 임직원과 조합원이 함께 준비하는 행사이기에 신탁에 대한 신뢰가 향상됨은 물론이고, 봉사를 통해 얻는 보람은 도덕적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져 수준 높은 윤리의식이 강조되는 금융기관의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mini
interview

안창남 삼척신협 이사장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는 작은 나눔”

삼척신협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한 끝에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부서와 협의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온세상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바쁘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정 속에서도 ‘나눔’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모두가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으로 어떤 일정보다도 우선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척은 지리적으로 태풍과 봄철 산불이라는 자연재해에 항상 노출되어 크고 작은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2019년에는 태풍 ‘미탁’으로 삼척 해안가 4개 마을이 초토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거액의 지원금을 후원해 주셨고 삼척신협 임직원도 자원봉사와 함께 어부바 박스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작은 나눔, 사소한 행동이 힘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온세상 나눔 캠페인 역시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는 따뜻한 나눔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할 계획입니다.

[2015년~2023년] 온세상 나눔캠페인 추진 현황

연도	참여신협	봉사자	지원대상	난방용품	연탄	지원금액
2015년	195개	3,748명	1,441명	-	550,000개	139,154,000원
2016년	210개	3,813명	4,370명	4,343개	195,302개	302,411,730원
2017년	285개	5,017명	6,875명	5,811개	152,839개	337,091,333원
2018년	342개	4,835명	8,607명	14,225개	121,217개	340,946,333원
2019년	432개	5,865명	9,146명	16,214개	110,232개	408,957,000원
2020년	630개	6,080명	16,950명	88,328개	-	666,859,700원
2021년	668개	5,713명	19,975명	21,532개	-	684,590,779원
2022년	669개	5,200명	17,767명	14,629개	-	591,733,400원
2023년	672개	4,802명	21,758명	16,878개	-	656,734,000원
누적	4,103개	45,073명	106,889명	181,960개	1,129,590개	4,128,478,275원



지역나눔 4 특별지원사업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폭넓은 후원 —————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외 다수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대전시에 국내 최초 저상버스 탑승 예약 시스템 도입을 지원했다. 또한 강원도 산불,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내외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사회복지 시설과 단체에 대한 후원사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2022.11. 16. 대전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업무협약식



2023.7.3. 대전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시연회

국내 최초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구축

신협사회공헌재단은 대전광역시, SK행복나눔재단, 위즈온협동조합과 협력해 2023년 7월 1일 저상버스 탑승 예약시스템을 구축했다.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을 통해 대전시는 국내 최초로 버스 운전기사와 예약 승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서비스는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전용 앱 '위버스'를 통해 예약·탑승·길 안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위버스'로 저상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고 탑승 예약을 신청하면, 해당 버스의 운전기사가 리프트를 내리고 안내방송을 하는 등 휠체어의 원활한 탑승을 지원한다. 또한 위버스는 SK행복나눔재단이 개발해 2023년 5월 론칭한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 서비스 '휠비' 기능을 탑재해 교통약자가 버스 하차 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휠체어 이동 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동성과 안전성까지 담보하고 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2년 11월 대전광역시, SK행복나눔재단, 위즈온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시 버스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저상버스 탑승 예약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23년 7월 1일 서비스 도입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의 저상버스 대기 시간을 줄이고 안전성 확보, 이동 편의 증진은 물론 장애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는 대전시 저상버스 약 400대에 전면 도입되어 대전시민 누구나 '위버스' 앱을 무상으로 내려받아 사용하고 있다.

예약 시스템 도입 이후 2023년 대전시 휠체어 사용자의 저상버스 탑승 횟수는 약 450회로, 서비스 설치 전 연간 탑승 횟수 12회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휠체어 이동정보 수집 자원봉사 시행

한편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3년 7월 SK행복나눔재단과 함께 휠체어 이동정보 수집을 위한 임직원 자원봉사를 진행했다. 자원봉사는 2021년부터 휠체어 사용자의 정보 부재에 따른 이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휠체어 이동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실험 임직원은 장애 이해 교육을 받은 후 대전 정부청사역-시청역 일대의 보행로 및 장애물, 건물과 시설의 출입구, 승강기, 계단, 장애인 화장실 등 휠체어 이동 시 고려해야 할 이동 정보를 찾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 후 로드 스캐너에 등록했다. 아울러 대전 지역 실험 전 지점의 임직원이 각 지점 주변 반경 200~500m 내 이동 정보 수집 활동을 추가로 시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약 3만개의 이동 정보는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 서비스 휠비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에게 제공되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과 휠체어 내비게이션 지원사업은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성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은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유아차, 보행 보조 기구 등을 사용하는 모든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교통약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3.7.17. 휠체어 이동정보 수집 봉사활동 발대식



2023.7.17. 휠체어 이동정보 수집 봉사활동

재난·재해 피해 지역 지역민과 소상공인 지원

신협사회공헌재단은 국내외 재난·재해 발생 시 해당 지역 실험과 연계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성금, 코로나 극복 성금, 울진·삼척 산불 피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전국 실험 및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앞장선 바 있다.



2020.3.9.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금 전달



2022.4.4. 경북·강원 등 산불 피해 이웃 돕기

신협은 2014년 9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억 3,500만여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후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천재지변과 사고 등 재난으로 아픔을 겪는 이들이 생길 때마다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활동으로 회복에 위로를 전하고 있다.

2016년 1월 대구 팔달신시장 화재에 1,500만 원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경주 지진 당시 5,000만 원, 2016년 10월 태풍 차바 피해 때는 전남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성금 2,000만 원을 포함해 울산 부산 제주지역에도 각각 2,000만 원씩 전달했다.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때에는 3,000만 원을 기부했다.

2017년에는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에 2,000만 원, 4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피해에 2,000만 원, 5월 강원도 산불 피해에 1,000만 원, 8월 대전 중앙시장 화재 피해에 1,000만 원, 9월 충북 호우피해에 2,000만 원, 11월 포항 지진피해에 6,500만 원 등 총 6차례에 걸쳐 1억 4,500만 원을 지원했다.

2018년 11월에는 경북 영덕 태풍피해 성금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9년에는 1월 연이어 화재로 피해를 당한 원주 중앙시장(2,000만 원)과 목포 신중앙시장(1,000만 원), 2월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2,500만 원)의 시장 상인들을 위해 5,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 2019년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해 강원도가 국가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는 불과 3일 만에 13억 원의 성금을 모금해 전달했으며, 11월 강원 및 경북 지역 태풍 미탁 피해 당시에는 6,000만 원을 지원했다.

2000년에는 화재와 태풍 등 기존의 재난 재해 이외에 코로나19의 창궐로 국가적 피해가 이어졌다. 이에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손 세정제 25만 개, 마스크 5만 개 포함 21억 원의 코로나 19 위기극복 성금을 마련했다. 이 외에 충남 금산군을 포함한 7개 지역 호우피해에 자원봉사와 함께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9월 청량리청과물시장 화재 피해에도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호주 산불 피해에 1억 원, 베트남 호우 피해에 5,000만 원 등 해외의 재난 재해에 대해서도 성금을 전달했다. 2021년에는 호남 지역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억 원, 영덕 화재 피해 복구 지원에 5,000만 원, 청량리청과물시장 화재 피해 복구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2022년은 재난 재해가 잇따른 한 해로, 신협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구호사업에 앞장섰다. 먼저 신협은 3월 산불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 지역 이재민 구호 활동과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 785개 신협과 신협중앙회 임직원이 모금한 12억 4,000만 원에 신협사회공헌재단의 기부금 1억 원을 더해 총 13억 4,000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또한 7월에는 그해 2월 발생한 광주 양동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광주·전남 74개 신협이 모금한 4,230만 원에 신협사회공헌재단의 기부금 5,77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을 기부했다. 이어 8월과 9월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성금 3억 5,000만 원과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 공금을 포함 총 15억 원을 지원했으며, 10월에는 대구 매천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4,500만 원의 성금과 함께 신협 차원에서 30억 원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2023년에는 인천 현대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인천경기지역 105개 신협이 모금한 5,355만 원에 신협사회공헌재단의 기부금 2,645만 원을 더해 총 8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억 원의 기금을 전달한 데 이어 2024년 1월에는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조합원을 위해 22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재난·재해발생 시 재단을 중심으로 전국 신협과 임직원의 자발적 성금 참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실효성 있고 신속한 금융지원으로 피해민과 조합원의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2022년 베스티안재단 업무협약식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헤민서 설날 특별 봉사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후원

신협사회공헌재단은 다각적인 사회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복지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먼저 재단은 2016년 대전꿈의오케스트라와 경북천사오케스트라 운영비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후원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사회적협동조합 헤민서의 '독사자·무연고자 공영장례 및 엔딩노트 사업'과 부산시치과의사회 나눔봉사단의 '무료 치과진료소 운영' 등 3개 사업을 후원했으며, 2018년에도 헤민서의 '임종노트 및 공영장례 사업'과 나눔봉사단의 '무료 치과진료소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2019년에는 기존 사업 외에도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불우 영화인 주거복지 사업' 등 4개 사업을 후원했다.

2020년에는 전통예술단체 다락방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베스티안재단의 '성인 화상 환자 의료비 지원', 아트챔버 오케스트라의 '지역아동센터 및 취약계층 아동 오케스트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한국연기자협회의 '숏 폼 콘텐츠' 제작지원 등 14개 사업을 후원했다. 이어 2021년에는 대한장애인농구협회,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포함한 8개의 사회공헌사업을 추가로 후원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갔다.

2022년에는 헤아림나눔센터의 '노숙인 무료급식소', 베스티안재단의 '노인 화상예방교육', 헤민서의 '어르신 소원여행 및 생신잔치', 중앙치매예방협회의 '생활지원사 치매예방전문가 교육' 등 12개 사업을 후원했으며, 2023년 역시 헤민서, 베스티안재단 등 4개 사업을 계속해서 후원했다.

그 결과 재단은 2023년까지 총 50개 단체에 19억 8,900만 원을 후원했다.



지역나눔 5 국제협력사업

글로벌 협력을 통한 가치 확산

———— ‘해외 신협 지원’ 및 ‘해외 봉사활동’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WOCCU) 이사국이자 아시아신협연합회(ACCU)의 회장국으로서 신협사회공헌재단을 통해 해외 신협의 사업을 지원하며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해외 신협 지원사업으로는 ACCU의 'BDS(Business Development Service) 사업'과 '차세대 신협 리더 양성 프로젝트', 그리고 캐리비안신협연합회(CCCU)의 금융서비스 디지털화 사업이 있다. 이와 함께, 신협사회공헌재단은 해외 신협 지원뿐 아니라 임직원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저개발국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신협의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다.



2023년 ACCU 지원사업 현장방문

해외 신탁 지원사업, 글로벌 협력을 통한 가치 확산

아시아신탁연합회(ACCU)의 BDS(Business Development Service)사업은 저개발국 청년과 여성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매뉴얼 개발과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서비스이다. 신탁사회공헌재단은 ACCU가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30만 달러를 후원했다.

이후 신탁사회공헌재단은 ACCU의 ‘차세대 아시아 신탁 리더 양성사업’을 2023년부터 2년간 총 10만 달러를 후원했다. BDS 사업 종료 후 신규 출범한 ‘차세대 아시아 신탁 리더 양성 사업’은 아시아신탁연합회 회원국 내 청년 조직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비즈니스 지원, 협동조합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아시아 신탁 발전에 이바지할 미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캐리비안 IDEAS 프로젝트’ 지원

캐리비안신탁연합회(CCCU)는 카리브해 인근 7개국인 앵귤라,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몬세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의 신탁 연합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CCCU 조합원들은 디지털 금융서비스 부족으로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민국 신탁은 CCCU의 금융서비스 시스템 운영 디지털화 사업인 ‘캐리비안 IDEAS(Implementing Digital Experiences and Services)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었다.

지역 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가속화하기 위한 IDEAS 프로젝트는 데이터 분석 및 운영시스템 개발, 디지털화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다.

신탁사회공헌재단은 2022년 4월 CCCU, WOCCU, 세계신탁재단(WFCU)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간 30만 달러 지원을 약정했다. 아울러 2023년 2월 CCCU가

신탁중앙회를 방문해 네트워크 및 학습, 주요 시설 실사, IT 시스템 개발 연수, 감독 및 규제 관련 연수, 우수신탁인 의왕신탁 사례 방문 등을 진행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신탁중앙회가 CCCU를 방문해 사업 지원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2차 연도인 2024년에는 동캐리비안 신탁 금융결제 구현을 위해 제안된 ACH(Atomated Clearing House) 솔루션을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단계별 내용을 동시 실행해 금융서비스 디지털화를 도입할 예정이다.



2019년 임직원 필리핀 봉사활동

임직원 해외 봉사, 저개발국 발전을 위한 공헌활동

신탁사회공헌재단은 한국신탁의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신탁국과의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해외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임직원 해외 봉사활동은 저개발국 지역사회에서 신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고유 사회공헌활동이자 일반 직원의 참여를 통해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 장으로 활용되었다.

신탁사회공헌재단은 열린의사회와 함께 의료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2014년 7월 태풍 피해를 당한 필리핀 타클로반에서 1,000여 명을 진료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7월에는 몽골의 빈민촌인 바야호쇼구에서 1,500여 명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시행했다. 2016년 6월에는 지진피해를 당한 네팔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1,900여 명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17년 5월에는 두손모아봉사단과 열린의사회 의료진 45명이 참여해 스리랑카 폴론나루와 지역에서 지역민 2,472명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다.



2018년 임직원 캄보디아 봉사활동

2018년에는 굿네이버스 및 굿네이버스 캄보디아 지부와 협력해 임직원 22명이 캄보디아 프롬펜 쩡아엑 지역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건립했다. 신협 임직원들은 직업훈련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외벽을 페인팅하고 어린이 클럽 2개소의 환경을 정비했으며,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동물원 현장학습과 미니 운동회를 병행했다.

직업훈련센터는 2019년 완공 이후 지역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신협 후원 명패를 부착해 교육생과 관광객에게 홍보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2019년에는 심사를 통해 선발한 전국 임직원 15명이 필리핀을 방문해 필리핀신협연합회와 필리핀협동조합연합회에 발전기금 8만 달러를 전달하고, 필리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후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0년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해외 봉사활동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며, 향후 재개하며 ACCU 회원국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난사업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나눔 실천 ‘의료 봉사활동’, ‘프로보노 봉사단’, ‘차량지원사업’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4년부터 국내의 소외지역민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정착시켜 나갔다. 2017년 5월에는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의 전문 재능을 활용한 프로보노 봉사단을 발족했다. 전문 직종 신협인들로 결성된 이 봉사단은 농어촌 소외지역에 의료서비스와 장수사진, 이·미용, 집수리 등을 지원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복지기관 및 시설에 차량을 지원하여 사회적약자와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했다.

열린사회와 함께한 의료 봉사활동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열린사회와 협력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1997년에 설립된 열린사회회는 의료진·자원봉사자·후원회원 등 총 3,500여 명이 소속된 국내 최대 민간 의료봉사단체이다. 이 사업은 경제적·지리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합원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갔다.

내과·외과·치과·한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사랑의 밥차’ 서비스와 퓨전국악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문화체험도 선사했다. 이 사업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의료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열린사회회와 함께한 의료봉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9개 지역에서 의료 소외계층 8,288명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열린사회와 함께한 의료 봉사활동



경희대학교와 함께한 한방의료봉사

경희대학교와 함께한 한방의료봉사

한방의료봉사는 2015년 7월 26일부터 5일간 경희대학교 한의대와 간호대 학생으로 구성된 피닉스(Phoenix) 의료봉사단과 손잡고 김천신협과 인근 지례초등학교에서 ‘김천시민을 위한 한방의료봉사’ 무료 진료를 진행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2018년까지 1년에 두 차례 한방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침·뜸·한약 처방 등 다양한 한방 진료를 무료로 제공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이동진료소 운영·질병 예방 교육과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2018년 하계 봉사활동에서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최초로 참여해 스트레스·우울증 등을 위한 진료 및 치매검진센터를 운영했다. 한방의료봉사는 2019년부터 경희대 의료봉사단 녹원회가 참여해 동·하계에 두 차례씩 1년 총 4회로 확대했다. 한방의료봉사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6개 지역에서 의료 취약계층 1만 4,303명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프로보노 봉사단 장수사진



프로보노 봉사단 집수리 지원

프로보노 봉사단, 재능으로 실현한 나눔의 가치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의사·미용사·사진사 등 전문 직종 신협인들로 구성된 프로보노 봉사단을 발족하여, 농어촌 소외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외에 장수사진, 이·미용, 집수리 등의 사업을 운영했다. 2017년 5월 27일 여수 개도리 화정면 모전마을회관에서 광주전남치과의사신협과 여수참조은신협 임직원·조합원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약 100명에게 치과 진료는 물론 장수사진 촬영, 이·미용, 페인트 칠, 중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어 2017년 12월 2일에는 부산시치과의사회관에서 부산시치과의사회·자갈치신협·부산장우신협·청십자신협·지역본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신협 취약계층 어르신과 시각장애인 70명에게 치과 진료와 장수사진, 이·미용 서비스, 중식 제공 외에 수지침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위한 어부바 차량지원사업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장애인과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의 복리와 이동권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와 승합차를 기증하는 ‘어부바 차량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대전시청 장애인 무료 저상 순환버스를 기부하며 시작됐다. 이후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과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차량 지원사업을 펼쳤다.

2023년까지 소록도, 은평장애인어르신돌봄센터, 세계로지역아동센터, 성남시청 등 27개 장애인·노약자·아동 복지 단체, 지방 자치 단체에 29대의 차량을 지원했다. 특히 2023년에는 3억 9,300만 원을 들여 장애인 단체 4개, 노인 단체 3개, 아동·청소년 단체 1개, 사회적경제 조직 2개 등 10개 단체에 10대의 차량을 지원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으로 이동 수단을 선정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신협 어부바 차량을 지원해 더 많은 교통약자가 병원 이동과 체육·문화 활동 등을 원활히 하며 일상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협 기부 의미

- 법인 Q&A | 기부의 가치를 논(論)하다
- 개인 Q&A | 기부라는 힘을 전파하다

- 기부를 실천하는 신협인들
정기기부·특별기부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의 결실





‘신탁 아너스클럽’은 누적 기부금 1,000만 원 이상의 법인(신탁)과 누적 기부금 500만 원 이상의 개인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신탁의 나눔문화를 선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신탁인들의 모임이다.

기부의 가치를 논(論)하다

— 아너스클럽 ‘법인’ Q&A 인터뷰

아너스클럽의 등급별 누적 1위 법인(신탁)인 광주문화신탁의 김남석 상임이사, 청운신탁의 오성화 전무, 든술신탁의 박승환 이사장, 우산신탁의 김재일 이사장, 의령신탁의 손명동 상임이사가 ‘기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전국적인 사회공헌에 동참하는 마음

Q 지금까지 어떻게 조합원과 임직원의 뜻을 모아 기부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은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 경영을 하면서 매년 순이익의 7%를 사회공헌 비용으로 책정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이 설립되면서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공헌에 동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시작하게 됐다.

청운신탁 — 청운신탁은 환경미화원들이 모여서 만든 신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 당연히 사회공헌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자금을 모아 기부하고 있다.

우산신탁 — 우산신탁 역시 1994년 광주의 광산구에서 시작했다. 지역에 영세민들이 많아 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기부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든술신탁 — 든술신탁은 1978년 구로3동성당신탁으로 출발해 어려운 시기도 많았으나 조합원님들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명실상부한 지역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했다. 주변 어려운 이웃과 동행한다는 조합원과 임직원의 뜻이 자연스럽게 모여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의령신탁 — 의령신탁은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시골 신탁으로 기부에 관한 관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재단 설립 이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결심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취지에 발맞춰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오성화 청운신탁 전무



김남석 광주문화신탁 상임이사



김재일 우산신탁 이사장



박승환 든술신탁 이사장



손명동 의령신탁 상임이사

Q 직접적인 활동 외에 재단을 통한 기부 의미는 무엇인가.

광주문화신탁 — 신탁이 상생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국 신탁을 한마음 한뜻으로 합쳐야 한다. 또한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신탁의 존재 이유를 전 국민에게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청운신탁 — 개별 신탁이 처한 환경에서 신탁에 맞게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재단의 기부는 중앙에서 체계적이고 꼭 필요한 곳에 한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

우산신탁 — 개별 신탁이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재원은 조성하면 되지만 효율적 집행 방식과 용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재단의 미션은 신탁이 추구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든술신탁 —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여럿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신탁의 목표인 복지사회 건설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당연히 재단에 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령신탁 — 재단을 통한 기부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 기부보다 체계적이고 신탁의 사회적가치를 집중적으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참여하고 있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Q 신탁의 기부 철학이 궁금하다.

광주문화신탁 —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게 신탁의 사명이다. 광주문화신탁은 자산규모가 아주 적을 때부터 기부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2년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청운신탁 — 돈은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자유를 제공한다. 돈이 없어 기본생활을 할 수 없고 공부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는 이유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신탁이 나서 그들이 인생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산신탁 — 나눔이란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남기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을 포괄한다. 나눔을 통해 얻는 만족감을 비롯해 지역에서 높아지는 신탁의 위상 등이 그러하다. 남기기 위해 하는 나눔이야말로 지속성을 유지하며 신탁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기에 기부 활동의 근본이 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든술신탁 —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세상은 스스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좋은 기부 문화가 긍정적인 사회적 에너지가 되어 주위를 더 밝게 한다고 믿는다. 요즘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기부 문화를 더 실천해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

의령신탁 —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신탁의 가치 속에 기부의 정당성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사회라는 테두리에서 같이 살아가야 한다.

Q 직원과 조합원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광주문화신탁 — 우리는 매월 결산이 끝나면 모두 모여 현안과 함께 사회공헌과 기부 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두 달에 한 번 정기 이사회에서도 임직원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공헌 중심의 조직 문화로 녹아들고 있다.

청운신탁 — 청운신탁은 사회공헌 관련해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별도 사회공헌팀을 만들었고 현재 4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다. 그 외에 부대사업으로 어린이집과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며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공헌 사업을 시스템화하는 구조적 과정에서 직원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형성되고 있다.

우산신탁 — 사회공헌 활동의 공감대 형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임직원·조합원들과 접점이 있을 때마다 나눔의 가치를 설파하고자 노력한다. 예시로 신입 사원이 입사하면 신탁의 나눔 철학을 이야기하고 조합원 교육 행사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든솔신탁 — 평소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 진정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질 것이다. 또한 든솔신탁은 서울 ‘구로동’이라는 특수성으로 공단 이미지가 남아 있고 노인들도 많이 사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김장 행사를 포함해 다양한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의령신탁 — 선도적인 기부는 자발적으로 전파되는 힘이 있다. 개인적으로 지역대학에 3억 원을 기부한 일이 알려졌는데, 지역에서 파장도 크고 기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자연적으로 이뤄진 경험이 있다. 그러한 사례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눔!

Q 가장 관심 있는 사회공헌 활동 분야가 궁금하다.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은 2012년에 장학재단을 설립해 생활 환경이 어려운 지역 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10년 넘은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장학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2023년 출생률이 0.72명으로 정도가 심각하다. 보육시설 등 저출생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운신탁 — 개인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도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진다. 이는 신탁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산신탁 —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탁은 농촌의 신탁이라고 생각한다. 농촌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우대 정책과 특산물 판매 등이 활성화되는 데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를 포함해 갈수록 심화하는 빈부의 격차, 복지사각지대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든솔신탁 —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로 한 10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양육시설과 청소년 보호 감호시설에 대해 알고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다. 이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는 계기가 마련되어 신탁과 동행하는 미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의령신탁 —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재단에서 전문적인 시각과 지식으로 좋은 사업을 잘 발굴하고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재단의 10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광주문화신탁 — 재단이 설립되고 그동안 신탁에서 하지 못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신탁 임직원이 매월 기부에 참여하는 기부 문화 정착에도 재단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신탁에 대해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운신탁 — 재단의 그간 활동을 보면서 동참하고 있는 우리 임직원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부심이 생긴다. 그런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밝고 따뜻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산신탁 — 개별 신탁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아너스클럽 제도를 만든 점은 신탁 운동에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신탁에도 귀감이 되는 활동으로, 신탁 이사장으로서 매우 영광스럽다고 생각한다. 아너스클럽 법인(신탁)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을 해 기부에 새로운 동력을 얻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든솔신탁 — 재단이 첫걸음을 뗄 때는 생소했는데, 지금은 어느 기업 사회공헌재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했다. 한결같이 노력하는 아름다움을 잃지 말고 실천하는 나눔의 자세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령신탁 — 재단이 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동참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탁과 재단의 일원으로 포함됐다는 것이 기쁘다는 말로 평가를 같음하고 싶다.



기부라는 힘을 전파하다

— 아너스클럽 ‘개인’ Q&A 인터뷰

개인 아너스클럽의 최영훈 대구대서신협 이사장, 전영호 팔공신협 이사장, 조종훈 대전동부신협 이사장, 이경탁 전주삼천신협 상임감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로부터 꾸준하고 적극적인 기부 활동을 하는 힘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재단에 꾸준히 기부하는 이유

Q 언제 어떤 계기로 재단에 기부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최영훈 — 재단 설립 당시 전국신협실무책임자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취지에 공감해 발기인 대회부터 동참했다. 또한 재단 설립 후 초대 감사를 역임하며 재단 역할을 잘 알기에 처음부터 미래 신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부하고 있다.

전영호 — 저 역시 우리 임직원의 기부와 참여를 바탕으로 설립한 재단의 가치에 적극 공감해 처음부터 참여하게 되었다.

이경탁 — 재단 설립 당시 신협중앙회 직원으로 자연스럽게 동참했다. 1년 전 퇴직 후 신협으로 재취업하면서 덤으로 얻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월정액을 올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종훈 — 저 역시 신협이 첫 직장이 보니 재단 설립 때부터 함께 하게 되었다. 재단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부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Q 직접적인 활동 외에 재단을 통한 기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최영훈 — 신협인으로서 자부심이 생기고 외적으로는 신협의 신뢰도와 공신력이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 또한 신협 임직원 대부분이 각 지역에서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재단 기부가 적으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최영훈 대구대서신협 이사장

전영호 팔공신협 이사장

전영호 — 12년째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학기 마칠 때마다 학교에 기부하고 있다. 이런 단기적인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기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이경탁 — 주변에 기부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많다. 그럼에도 신협이기 때문에 재단에 기부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가장 잘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기부 효능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

조종훈 — 같은 맥락으로 한마디로 소속감인 것 같다. 신협이니깐 당연히 우선으로 신협에 기부하게 된다.

기부에는 선순환의 힘이 있다!

Q 기부를 오래도록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최영훈 — 젊었을 때부터 민주평통 등 단체 활동을 많이 해오면서 봉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 거창하게는 사명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재단의 설립 멤버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이 열심히 기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경탁 전주삼천신협 상임감사

조종훈 대전동부신협 이사장

전영호 — 20년 전 신협대학교 MBA 1기인데, 당시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MBA 졸업식 밤에 동기들이 식사 자리에서 치료비에 보태라며 100만 원을 주었다. 얘기를 하니 아내가 참 따뜻한 조직이라며 올랐던 기억이 난다. 평생 신협을 통해 밥 먹고 아이 키웠으니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경탁 — 기부는 꾸준히 나눠서 하면 가능하지만, 모아서 한 번에 한다는 건 생각이 많이지게 된다. 또 월정액을 정해 자동이체로 두면 종종 의미를 있게 된다. 저는 월정액에 일부러 딸의 몫을 정해두고 가끔 ‘너도 동참하고 있다’는 말을 해준다. 그러면 의미도 상기하고 유대감도 형성되는 것 같아 즐겁다.

조종훈 — 다른 의미로 기부는 자신을 위해 하는 것 같다. 마음도 그렇고, 그 기분이 육체적 건강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습관처럼 하고 있다.

Q 기부가 보람을 넘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최영훈 — 조종훈 이사장 말씀에 공감한다. 기부를 통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 인품도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더구나 신협을 이끄는 리더로서 신뢰를 주어야 하는데, 기부 활동이 큰 힘이 된다. 도덕적인 책임을 갖고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이 기부를 통해 길러졌다고 생각한다.

전영호 — 2023년에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1,000만 원을 기부한 일이 있다.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소식이 전해져 아내가 지면을 통해 알게 됐는데, 오히려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다. 기부가 일상화되었기에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경탁 — 기부의 가장 큰 힘은 시야가 넓어지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무심코 넘겼을 일들이 눈에 뜨이기 시작하면서 기부에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조종훈 — 경비하시는 분께 생수 한 병이라도 드리면 그분보다 내가 더 기분이 좋다. 또한 기부는 주위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작년에 아내가 재단에 200만 원을 기부한 적이 있는데, 이후 엄청난 활력을 느끼는 것을 보았다. 기부에는 선순환의 힘이 있다.

“20주년까지 무한한 발전을!”

Q 재단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는가.

최영훈 — 개인적으로는 지정 기부 제도를 축소하고 재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기부금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지정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신탁에서 충분하게 그 이상 역할을 하고 있어 쓰임새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 기부를 확대하는 것이 재단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신탁의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전영호 — 신탁의 3대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당부를 드린다.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그 분야로 활동할 일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젊은이들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젊은이들한테 협동조합의 개념과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조종훈 — 저 역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특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너무 많다. 이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꾸준히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

Q 재단의 10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최영훈 — 저는 선행과 봉사를 구분하고 싶다. 선행은 마음 씀씀이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봉사는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즉 봉사는 희생이

필요하다. 재단의 역할에는 사람들의 열정과 참여를 이끄는 노력도 뒤따른다고 하겠다. 지난 10년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향후 봉사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더 멋진 재단이 될 것 같다.

전영호 — 지난 10년간 상당히 잘 성장했다고 말씀드린다. 이제는 틀을 보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지역마다 1억 원 이상 기부자를 위한 아너스클럽이 운영하고 있다. 재단도 5,000만 원 이상 클럽을 만들어 더 많은 분이 퇴직 유무와 관계없이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경탁 — 재단이 10년간 신탁 사회공헌 활동의 구심점이 되어 주었다. 재단 덕분에 사회공헌 활동의 동력과 선순환이 생긴 것 같다. 지금까지 잘 왔고, 앞으로의 발전에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종훈 — 앞서 주신 말씀에 공감한다. 신탁의 역사는 60년이 넘었지만, 재단은 사실상 10살이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훨씬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개선점과 미래 지향점에 대해 재단 사무국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재단을 응원하며 20주년을 기다리고 싶다.

기부를 실천하는 신협인들

정기기부·특별기부

10년간 꾸준히 기부를 이어온 신협인부터 최근 기부를 시작하거나 특별기부로 나눔을 실천한 신협인들까지. 일상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기부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소개한다.

10년 연속 정기기부 문실 신협중앙회 감사팀 차장 아너스클럽 그랜드마스터가 될 때까지

문실 신협중앙회 감사팀 차장은 재단이 정기기부 제도를 시작한 2015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매월 꾸준히 정기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가톨릭 가정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봉사활동과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신협사회공헌재단 출범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신협인이 되고자 매월 정기·정액 기부와 가족 기부를 하고 있다.

“국내기관과 국제기구 몇 군데에 기부를 해오다가 재단 기부금 조성과 임직원 참여 확대의 밑거름이 되고자 가족 참여형 기부까지 추가해 2022년부터 모은 금액을 합쳐 재단에 일괄 기부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실 차장은 기부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봉사는 ‘참여형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을 함께하고 직접 도움을 줄 때 더 큰 보람과 기쁨 느낄 수 있었고, 사정상 봉사활동에 소홀하게 되어 반성하면서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고 겸양한다.

“기부는 ‘할 수 있을 때 하자’ 즉,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의 중요성과 일관성이 기부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남을 도울 방법은 다양하지만, 꾸준한 기부를 통해 느끼는 보람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기운을 줍니다. 나보다 힘들게 사는 이에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부족하지만 늘 채우려 애쓰고 노력하면서 실천하는 신협인이 되겠습니다.”

문실 차장은 재단 아너스클럽의 그랜드마스터가 되고, 나아가 아너스클럽 엔젤이 될 때까지 기부를 이어나가려고 한다. 아울러 여건이 허락하는 때에는 개인적인 재능을 발휘해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평소에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10년 연속 정기기부 홍선영 신협중앙회 정보보호반 차장 기부는 재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

“특별한 계기나 결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재단을 설립한 취지와 활동에 공감하면서 그 첫걸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회공헌을 하는 방식 중에 어쩌면 기부가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재단 덕분에 저 역시도 정기기부라는 방식으로 사회공헌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홍선영 신협중앙회 정보보호반 차장은 재단 창립 이후 10년간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다양한 기부처와 기부 수단이 있지만 홍선영 차장은 직접 기부처를 발굴할 수도 있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이 이뤄지는 재단을 통한 기부로 더욱 큰 의미와 보람을 갖고 있다.

“어머니는 부자가 아니었는데도 자기 것을 아껴 어려운 사람뿐 아니라 불쌍한 동물까지 챙기고 먹였습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만큼 더 잘 보이고 잘 들리기 마련입니다. 기부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는 만큼 더 많이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부는 가진 재산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크기에 더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부가 마음먹고 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 녹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선영 차장은 조손 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다. 아이의 고통은 어른들의 무책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도 아이들에게 일회성 지원이 아닌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한 돌봄과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기부자로서 모니터링도 게을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신규 정기기부 박태민 신협중앙회 홍보전략팀 주임
기부는 겸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식

박태민 신협중앙회 홍보전략팀 주임은 입사하기 전까지 재단에서 이토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차츰 신협이 중요시하는 가치들을 알게 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접하게 되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기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신협 구성원으로서 매일 재단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기부자로서 수혜자와 좀 더 맞아 아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 기부금 모집과 활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니 요즘 같은 때에 더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민 주임은 기부가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한 사람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주변 사람과 사회로부터 많은 도움과 운이 뒤따라야 한다. 기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사회와 타인을 위해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부는 겸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느낀다.

“기부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제 삶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기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도 재무 계획을 잘 세우고, 과소비하지 않으며 책임감 있게 살고 싶습니다.”

박태민 주임은 앞으로 기부 참여뿐 아니라 직접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변화를 추구하는 경험이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신규 정기기부 임보미 신협중앙회 기획조정팀 주임
기부를 통해 삶에 나눔의 정신이 배어들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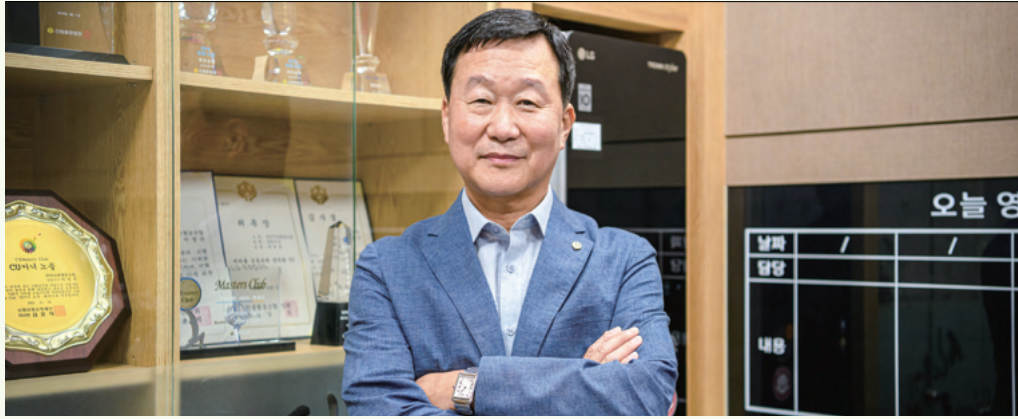
“취준생 시절에 직장인이 된다면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신협 중앙회에 입사하면서 재단과 정기기부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막연한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다른 분들과 힘을 합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보미 신협중앙회 기획조정팀 주임은 재단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큰 매력을 느껴 재단 소식을 꼼꼼히 챙겨 보고 있다. 그럴 때마다 보람과 함께 신협 정신에 조금 더 가까워짐을 느끼게 된다.

“저는 기부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자. 기부를 통해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기에 사실 다른 누구보다 저를 위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고 싶을 때, 저만의 동기에 의해 기부하고 싶습니다.”

임보미 주임은 최근 뉴스를 접하며 노인 빈곤에 관심이 많아졌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어부바 차량 전달 등 노인복지 관련 사항도 살펴보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관련 복지가 늘어날수록 포용하는 사회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대전역 동광장에서 어르신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걸 보았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웃으며 봉사하시는 분들과, 즐겁게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기부금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쓰인다면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면서 제 삶에 나눔의 정신이 배어지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부 박영균 장안신협 이사장
기부는 나에게 주는 선물

박영균 장안신협 이사장은 전국 신협 재직자 중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아너스클럽 1위 회원이다. 그는 각종 시상금뿐 아니라 부친상 조의금을 기부한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협 생활 중 처음 애사를 겪으면서 많은 분의 위로를 받으며 같이 살고 나누는 신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생각하다가 평소 감사한 일이 있으면 꼭 주변과 나누셨던 아버님을 떠올리게 되었고, 아버님의 평소 신념에 따라 재단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도 잘했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박영균 이사장은 오래전 1월 1일 광고산 해돋이 행사 때의 한 사건을 떠올린다.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지역민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민간 구조 차량이 큰 힘이 되었는데, 실은 그 차량이 곁에 있던 안병대 장안신협 상임이사가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이전까지 기부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생각이 정리되었다고 말한다.

“혼자가 아닌 주변 이웃과 무엇이든 나누고 베풀고 손 내밀어 주는 삶은 그대로 저에게 돌아옵니다. 무엇을 바라지 않아도 큰 위로와 감사로 돌아오니 삶 자체가 더 행복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므로 기부와 나눔의 실천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공헌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신협사회공헌재단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기관이다. 재단에서 잘 운영해 세상에 헛살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에 주저없이 기부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밝힌다.

“기부에 대해 생각은 있는데 실천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머뭇거린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신협인으로 살며 받은 것 중에서 조금만 십시일반 나누면 됩니다. 나눔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때 무한한 보람과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특별기부 김천신협
공동체를 성장시킨 ‘희망 1004 프로젝트’

김천신협 봉사단은 제단체 누적 기부 1위의 신협이다. 몇몇 조합원들과 직원이 소규모로 시작한 기부는 ‘희망 1004 프로젝트’를 계기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이는 김천신협이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천신협 희망 1004 프로젝트는 2015년 5월 26일 102명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인본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과 섬김의 따뜻한 금융이라는 뜻으로 시작한 후원사업입니다. 매월 자발적으로 1,004원의 금액 혹은 그 이상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결과 김천신협 조합원의 기부금은 2016년 9월부터 매년 꾸준히 확대되어 누적 금액이 무려 1억 3,346만 4,338원에 이르고 있다. 조합원 기부 참여가 종종 있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좀처럼 흔하지 않은 큰 규모의 사례로 주목된다.

“기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합원 개개인이 느끼는 보람과 자부심, 그리고 기부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부금이 재단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신뢰감이 기부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김천신협은 기부를 통해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기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행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을 채우는 일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힘이 김천신협의 기부문화를 만들고 있다.

“일부 기부자들은 기부금의 사용처와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기부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자,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의 결실

지역사회공헌 인정신협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2023년 기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은 총 531개이며, 이 가운데 신협사회공헌재단과 전국 69개 신협이 선정되어 단일기업 중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선도하는 신협사회공헌재단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꾸준히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고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2019년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해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NGO와 기업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우수한 민간 자원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NGO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의 사회공헌을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E(환경경영), S(사회적 책임경영), G(투명경영) 3개 영역 7개 분야 2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사회적가치 창출, 지속가능성, 투명성 및 신뢰성, 혁신성, 평가 및 성과 측정, 인프라 및 지원 체계,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을 선정했다.

그 결과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성과 영향 영역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선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재단과 함께 전국 69개 신협이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69개 신협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소상공인,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따로 또 같이 힘을 발휘하는 사회공헌활동

신협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활성화된 것에 신협의 역할이 있었다고 밝힌다. “신협은 때로는 개별 단위로, 때로는 하나의 이름으로 전국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신협이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전체 신협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지역 내 위상이 올라가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재단을 통해 진행되는 사회공헌활동은 전국 단위로 체계화된 힘을 발휘합니다.”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선정된 신협 가운데 광주문화신협과 전주파티마신협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2022년에는 신협사회공헌재단과 천안우리신협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협은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이익을 지역사회와 서민에게 환원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금융기관이 될 것이다.



전주파티마신협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1 전주파티마신협

전주파티마신협은 2023년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2020년부터 5년째 운영 중인 ‘파티마신협 어부바 간식꾸러미박스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주파티마신협은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며 ‘복지사회 건설’을 지상 목표로,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으면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사회적 파급력과 권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 이외 분야에서 수상이 늘어나면서 전주파티마신협의 성과가 더욱 빛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춘제 전주파티마신협 이사장

전주파티마신협은 매년 연말 사회공헌 예산과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가급적 모든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조합원의 참여를 이끄는 데 노력하고 있다. 양춘제 이사장은 “단순히 활동을 수행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목표를 완수하고자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전주파티마신협이 사회공헌 활동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밝혔다.

“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모두 참여 의사를 내고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경험하며 사회공헌에 관한 철학도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로 조직을 구성해 많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 미 정 전주파티마신협 과장

전주파티마신협은 앞으로도 지역의 그늘진 곳을 밝혀주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그 담은 사회공헌 활동에 있다고 강조한다.



천안우리신협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2 천안우리신협

천안우리신협은 2023년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에는 독거 어르신 정서 지원사업 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해 해결 방법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확산해 나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천안우리신협은 2년 동안 사회공헌사업을 실천하는 데 노력했다면 2023년부터는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해 해결하며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2018년부터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독거 어르신 정서 지원사업으로 직원들이 손자가 되어 주1회 안부 전화와 식사 배달

등을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도 큰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양 현 속 천안우리신협 상무

천안우리신협은 매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인증을 위해 보고서를 쓰면서 갈수록 더 많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사업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에 김영순 이사장은 향후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있어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에게 재단의 지원과 활동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많은 사업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협들과 지역사회가 더욱 끈끈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더 훌륭한 지원과 활동으로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 김 영 순 천안우리신협 이사장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

10년 전, 전국 신협과 임직원의 뜻을 모아 작지만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의 발자국에 불과했던 움직임이 모여 이제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위해 '함께'의 가치를 펼치는 더 큰 꿈을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VISION HOUSE



협력과 조화의 힘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

함께의 가치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재단

1

동행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성

- 포용금융 지원사업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사업

2

인재양성

협동조합형 인재 발굴을 통한
협동조합 가치 전수

- 협동조합형 인재양성사업
- 전통문화 인재양성사업
- 미래세대 지원사업

3

지역나눔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 지역나눔 활성화 사업
- 국제협력사업
- 특별지원사업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서민의 삶이 나아집니다.

서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때 지속가능한 미래가 열립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며,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집니다.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꿈꾸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이해하는
인재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성장 세대별 교육으로
협동조합의 가치를 전수하며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늘진 곳을 비출 때 비로소 세상은 밝아집니다

세상에는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늘진 곳이 존재합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그곳을 찾아 밝히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가족 돌봄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 청년과,
고령화에 따라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 신중년 등
세상을 밝히는 사회 이슈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함께의 가치로 함께할 100년을 꿈꿉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재단과 신협,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나눔의 선순환을 지향합니다.
단순히 계량적 성과가 아닌 측정 가능한 사회변화를 만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공유한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모두의 삶에 함께의 가치가 닿아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이뤄질 때까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 기부금/사업비 현황
- 임원/직원/수상 현황
- 아너스클럽/법인 및 개인기부자 명단

부록





문철상 초대 이사장(前 신협중앙회장)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꿈꾼 작은 발걸음

초기 신협 운동이 가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에 있었다면 오늘날 신협의 역할은 삶의 희망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신협이 처음 이 땅에 뿌리 내렸던 정신으로 돌아가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등대 역할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신협사회공헌재단 출범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둡고 그늘진 곳에 햇살 같은 신협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의지로 길을 만들고, 소외계층과 동행하며 희망과 온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 간절한 첫발을 내디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했고, 세상은 재단과 함께한 많은 신협인의 도움으로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당시의 작은 발걸음이 거대한 도약의 시작이었음을 증명해준 재단과 모든 신협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 설립에 힘쓴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재단과 신협이 함께 그려나갈 아름다운 동행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인철 신협중앙회 IT이사(前 신협중앙회 사회공헌팀장)

더 많은 이들이, 더 오래도록, 우리의 방식대로!

창립총회를 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주년이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난 뒤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신협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중복된 기능의 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는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돌봄과 지역사회에의 기여는 시혜가 아닌 신협의 존재가치이며, 이러한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확산하기 위해 재단의 역할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신협인들이 호응해 주셨고 재단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재단을 설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신협과 함께 오래도록 영속할 수 있고,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면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은 협동조합이었고 재단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공헌 전문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재단이 신협을 대표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신협의 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초창기 재단 설립을 담당할 실무자로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재단이 신협의 멋진 동반자로서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재단 설립의 씨를 뿌리다

- 4. 17. 사회공헌법인 설립 추진방향 보고(신협중앙회 임원워크숍)
- 7. 2. 신협중앙회 이사회 사회공헌법인 설립 추진 승인
- 10. 1. 발기인회의 개최(신협연수원, 51명 참석, 정관(안) 및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임원후보자 추천 등)
- 10. 14. 창립총회 개최[한밭체육관, 719명 참석, 정관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임원선출(초대 이사장 문철상 신협중앙회장)]
- 12. 26. 기획재정부 인가(인가번호 제28호)

2015

재단 운영을 시작하다

- 1. 8. 법인등기(법인등록번호 160151-0009464)
- 1. 29. 출범식 및 현판석 제막
- 3. 31.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66호)
- 4. 16. 자원봉사단체 인증(대전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 9. 21. 제1기 자활지원금융프로그램 시범 개시

2016

재단 안정화 기반을 구축하다

- 1. 18. 의사록 인증 제외 법인 지정(법무부 고시 제2016-1호)
- 3. 31. 제1차 정기대의원총회
- 8. 1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MOU 체결
- 12. 31.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경제발전 공로 부문)

2017

신협의 대표 공익법인으로 자리잡다

- 2. 24. 재해성금심의위원회 설치
- 3. 28. 제2차 정기대의원총회
- 5. 27. 신협 프로보노 봉사단 발족
- 9. 25.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 같이가치 with 카카오 모금함 오픈
- 11. 29. 부산시치과의사회 나눔봉사단 MOU 체결

2018

사업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다

- 3. 7. 행정안전부 재난 수습분야 MOU 체결
- 3. 30.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
- 5. 31. 재단 창립 이후 누적 기부금 100억원 달성
- 10. 16.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희망 멘토링 부문)
- 11. 5. 캄보디아 쩡아엑 지역 직업훈련센터 건립

2019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다

- 3. 29.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
- 5. 2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MOU 체결
- 8. 16. SBS, 밀알복지재단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 MOU 체결

- 9. 10.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불우 영화인 주거복지 지원사업 MOU 체결
- 10. 30. 대전광역시 서구청 장애인 저상버스 기증식

2020

사업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강화하다

- 5. 19. 제5차 정기대의원총회
- 5. 31. 재단 창립 이후 누적 기부금 200억원 달성
- 10. 27.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 수상
- 11. 9. 함안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개소
- 11. 13. 재단 창립 이후 누적 기부금 300억원 달성
- 12. 15. 대전광역시 표창 수상(대전광역시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 부문)

2021

사업의 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이다

- 3. 30. 제6차 정기대의원총회
- 5. 20. 재단 창립 이후 누적 기부금 400억원 달성
- 6. 30.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3호)
- 11. 10. 국무총리 표창 수상(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희망멘토링 부문)
- 11. 15. 2021년 신협 사회공헌의 날 개최
- 11. 25. 금융위원장상 수상(2021년 CSR 필름페스티벌)

2022

성장형 운영체계를 확보하다

- 1. 19. 베스티안재단 화상환자 지원사업 MOU 체결
- 1. 20. 전통한국음악예술원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MOU 체결
- 2. 23.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충 MOU 체결
- 3. 31. 제7차 정기대의원총회
- 12. 14.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사회공헌 우수 프로그램 부문)
- 12. 15. 2022년 신협 사회공헌의 날 개최
- 12. 27. 재단 창립 이후 누적 기부금 500억원 달성
- 12. 3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우수 협동조합 부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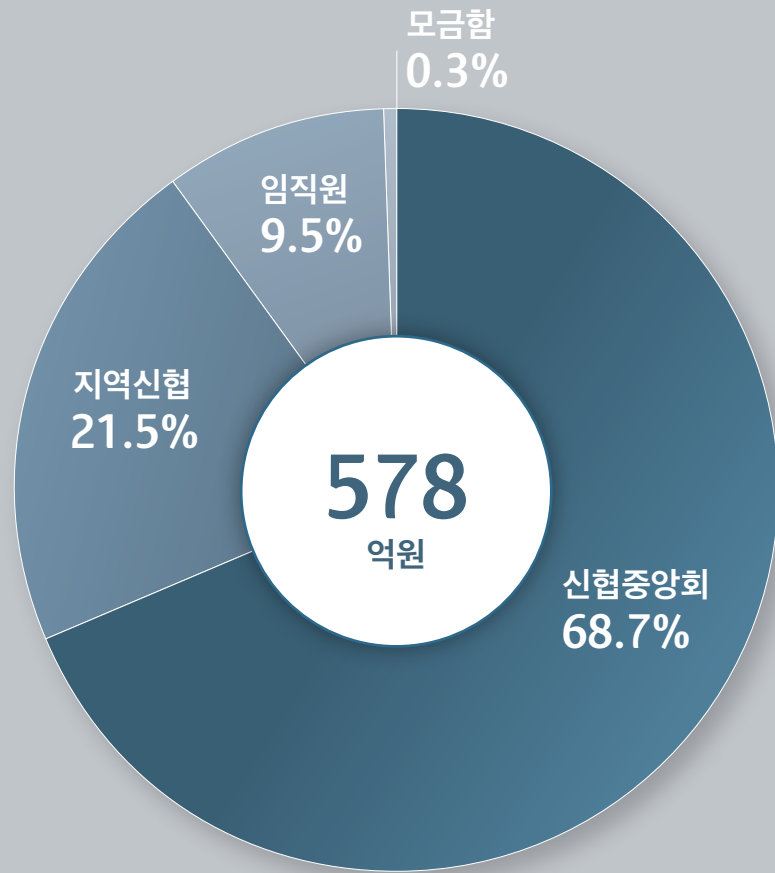
가치체계를 재정비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다

- 2. 22. 재단 컨설팅 수행
- 3. 28.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 7. 1. 대전시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서비스 개시
- 12. 14. 2023년 신협 사회공헌의 날 개최
- 12. 21. 대전광역시 표창 수상(대중교통 육성 공로)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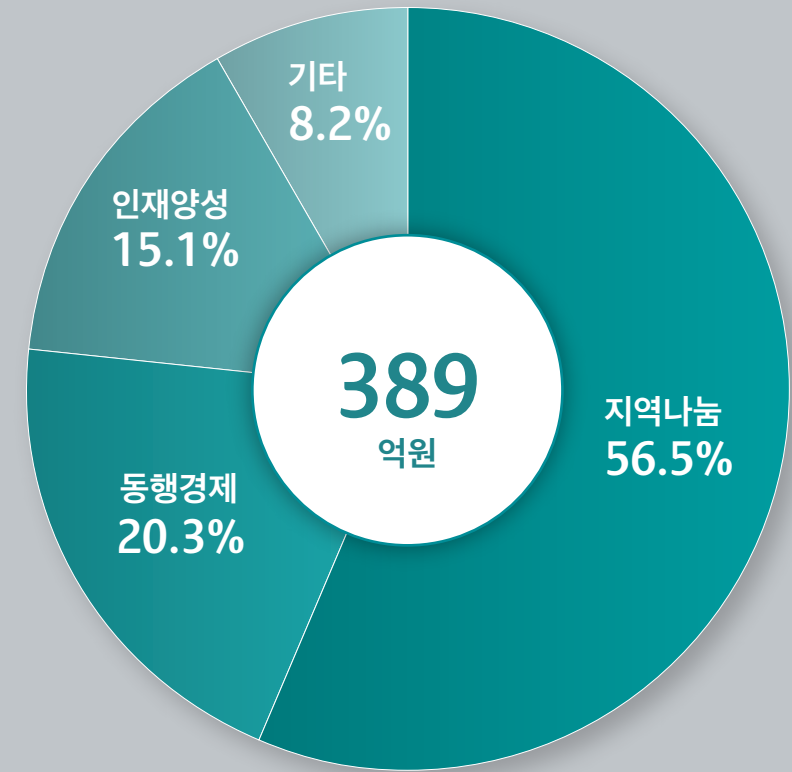
재단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다

- 3. 26. 제9차 정기대의원총회
- 6. 21. 재단 창립 이후 누적 기부금 600억원 달성



(단위: 천원)

연도	신협중앙회	지역신협	임직원	모금함	합계
2015년	1,250,755	1,135,804	497,211	-	2,883,770
2016년	1,297,000	950,121	746,596	10,102	3,003,577
2017년	1,505,806	955,676	718,089	12,293	3,191,863
2018년	1,818,170	1,024,550	578,447	19,978	3,441,144
2019년	3,817,160	1,380,878	556,264	27,442	5,784,742
2020년	11,629,461	1,376,233	589,706	13,853	13,613,054
2021년	11,161,010	2,251,529	592,932	31,256	14,037,529
2022년	4,075,048	1,607,334	563,160	13,032	6,258,573
2023년	3,156,953	1,767,525	632,451	18,195	5,576,000
누적	39,711,363	12,449,650	5,474,856	146,151	57,790,252



(단위: 천원)

연도	동행경제	인재양성	지역나눔	기타	합계
2015년	22,190	-	785,373	83,000	890,562
2016년	74,055	-	1,081,778	104,983	1,260,816
2017년	189,855	337,714	795,697	189,781	1,513,046
2018년	117,025	418,073	1,475,054	232,028	2,242,180
2019년	224,294	572,659	2,027,556	337,808	3,162,317
2020년	436,335	629,887	5,415,130	351,428	6,832,780
2021년	1,940,139	1,154,857	2,631,367	497,796	6,224,159
2022년	1,977,649	1,502,684	4,257,364	720,436	8,458,132
2023년	2,915,303	1,254,687	3,566,288	671,066	8,407,344
누적	7,896,845	5,870,560	22,035,607	3,188,325	38,991,338

	직위	성명	직책	임기
6대	이사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2024.3.26.~
	이사	손성은	신협중앙회 사업대표이사	2024.3.26.~
	이사	박종식	신협중앙회 이사	2024.3.26.~
	상임이사	우육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2024.3.26.~
	이사	이현주	서울지역협의회장	2024.3.26.~
	이사	김국정	부산지역협의회장	2024.3.26.~
	이사	윤종권	경남지역협의회장	2024.3.26.~
	이사	김덕호	인천지역협의회장	2024.3.26.~
	이사	전찬구	경기지역협의회장	2024.3.26.~
	이사	김상수	대구지역협의회장	2024.3.26.~
	이사	김재홍	경북지역협의회장	2024.3.26.~
	이사	이범식	대전지역협의회장	2024.3.26.~
	이사	김경환	충남지역협의회장	2024.3.26.~
	이사	최문주	광주지역협의회장	2024.3.26.~
5대	이사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송재근	신협중앙회 사업대표이사	2022.03.31.~2024.3.26.
	상임이사	우육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2022.03.31.~2024.3.26.
	이사	박종식	신협중앙회 이사	2022.03.31.~2024.3.26.
	이사	황태영	서울지역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송재봉	부산지역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김장환	경남지역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신선호	인천지역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최회환	경기지역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박정규	대구지역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김정혁	경북지역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김철수	대전지역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직위	성명	직책	임기	
5대	이사	윤여경	충남지역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정명수	광주지역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채성수	전남지역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임병욱	충북지역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양춘제	전북지역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이도식	강원지역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강창협	제주지역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조용현	전국상임이사협의회장	2022.03.31.~2024.3.26.	
	이사	송삼섭	전국실무책임자협의회장	2022.03.31.~2024.3.26.	
	감사	이기찬	신협중앙회 이사	2022.03.31.~2024.3.26.	
	감사	김학산	신협중앙회 이사	2022.03.31.~2024.3.26.	
	감사	고은성	전국두손모아봉사단장	2022.03.31.~2024.3.26.	
	4대	이사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송재근	신협중앙회 사업대표이사	2020.05.19.~2022.03.31.
상임이사		박영범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2020.05.19.~2022.03.31.	
이사		한숙자	신협중앙회 이사	2020.05.19.~2022.03.31.	
이사		김기성	서울지역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남기화	부산지역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이철호	경남지역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최승훈	인천지역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안병대	경기지역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오균호	대구지역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김재덕	경북지역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김복수	대전지역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최정만	충남지역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이기남	광주지역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5대	이사	김용식	전남지역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김진하	충북지역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유원영	전북지역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송계호	강원지역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고문화	제주지역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안준상	전국상임이사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이사	최재영	전국실무책임자협의회장	2020.05.19.~2022.03.31.	
	감사	이인길	신협중앙회 이사	2020.05.19.~2022.03.31.	
	감사	김춘석	신협중앙회 이사	2020.05.19.~2022.03.31.	
	감사	김길호	전국두손모아봉사단장	2020.05.19.~2022.03.31.	

	직위	성명	직책	임기
3대	이사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김경섭	신협중앙회 사업대표이사	2018.03.30.~2020.05.19.
	상임이사	이환영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2018.03.30.~2020.05.19.
	이사	한숙자	신협중앙회 이사	2018.03.30.~2020.05.19.
	이사	신기혁	서울지역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이진호	부산지역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이철호	경남지역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김수연	인천지역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안병대	경기지역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장하석	대구지역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배수봉	경북지역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정인동	대전지역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민경두	충남지역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정순오	광주지역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채성수	전남지역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이성희	충북지역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김지원	전북지역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윤대규	강원지역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고동환	제주지역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고영철	전국상임이사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이사	홍재호	전국두손모아봉사단장	2018.03.30.~2020.05.19.	
감사	이인길	신협중앙회 이사	2018.03.30.~2020.05.19.	
감사	김춘석	신협중앙회 이사	2018.03.30.~2020.05.19.	
감사	조종훈	전국실무책임자협의회장	2018.03.30.~2020.05.19.	
2대	이사장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제31대)	2016.03.31.~2018.03.30.
	이사	임정빈	신협중앙회 이사	2016.03.31.~2018.03.30.
	이사	손충길	신협중앙회 이사	2016.03.31.~2018.03.30.
	상임이사	주진우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2016.03.31.~2018.03.30.
	이사	백승재	서울지역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이사	전병오	부산지역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이사	모경책	경남지역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이사	황인준	인천지역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이사	안병대	경기지역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이사	임현섭	대구지역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이사	최동섭	경북지역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이사	노충환	대전지역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직위	성명	직책	임기
2대	이사	양승복	충남지역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이사	정순오	광주지역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이사	김학산	전남지역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이사	오명호	충북지역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이사	이석계	전북지역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이사	우광현	강원지역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이사	이석호	제주지역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이사	김주안	전국두손모아봉사단장	2016.03.31.~2018.03.30.
	이사	전찬구	전국상임이사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감사	곽평전	신협중앙회 이사	2016.03.31.~2018.03.30.
	감사	이희찬	신협중앙회 이사	2016.03.31.~2018.03.30.
	감사	최영훈	전국실무책임자협의회장	2016.03.31.~2018.03.30.
	1대	이사장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제31대)
이사		임정빈	신협중앙회 이사	2014.10.14.~2016.03.31.
이사		손충길	신협중앙회 이사	2014.10.14.~2016.03.31.
상임이사		주진우	신협중앙회 관리본부장	2014.10.14.~2016.03.31.
이사		백승재	서울지역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김명수	부산지역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임용철	경남지역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황인준	인천지역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안병대	경기지역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박종원	대구지역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최상봉	경북지역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성광제	대전지역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정일영	충남지역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김성운	광주지역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정삼균	전남지역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주형석	충북지역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유병환	전북지역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최현광	강원지역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양영철	제주지역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양춘제	전국상임이사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이사		배재홍	전국실무책임자협의회 사회공헌분과위원장	2014.10.14.~2016.03.31.
감사	이희찬	신협중앙회 이사	2014.10.14.~2016.03.31.	
감사	곽평전	신협중앙회 이사	2014.10.14.~2016.03.31.	
감사	최영훈	전국실무책임자협의회장	2014.10.14.~2016.03.31.	

연도	구분	직책	성명
2024	겸직	부문장	박규희
	겸직	사무국장	손석조
	전담	팀장	김슬기
	전담	대리	방유정
	겸직	대리	정석현
	전담	대리	장태양
	전담	주임	이성민
겸직	주임	송유진	
2023	겸직	부문장	손재완
	겸직	사무국장	이성만
	겸직	팀장	박찬길
	전담	과장	김슬기
	전담	대리	방유정
	전담	대리	장태양
	전담	주임	이성민
겸직	주임	송유진	
2022	겸직	부문장	손재완
	겸직	사무국장	이성만
	겸직	팀장	박찬길
	전담	과장	김슬기
	전담	주임	방유정
	전담	주임	장태양
	전담	주임	이성민
겸직	주임	정재민	
2021	겸직	부문장	김성주
	겸직	사무국장	이경범
	겸직	팀장	박찬길
	전담	과장	김슬기
	전담	주임	방유정
	전담	주임	장태양
	겸직	주임	윤상용
2020	겸직	부문장	김성주
	겸직	사무국장	이경범
	겸직	팀장	박찬길
	전담	대리	김슬기
	전담	주임	방유정
	전담	주임	장태양
	겸직	주임	박민지

연도	구분	직책	성명
2019	겸직	사무국장	송수현
	겸직	팀장	최종필
	겸직	차장	윤정희
	전담	대리	김슬기
	전담	주임	방유정
	전담	주임	장태양
	겸직	주임	박민지
2018	겸직	사무국장	안용환
	겸직	팀장	최운용
	겸직	차장	윤정희
	전담	대리	김슬기
	겸직	대리	이상기
	전담	주임	조재겸
	전담	주임	방유정
2017	겸직	사무국장	안용환
	겸직	팀장	정인철
	겸직	과장	김래영
	전담	대리	김슬기
	겸직	주임	이상기
	전담	주임	조재겸
	전담	사원	방유정
2016	겸직	사무국장	안용환
	겸직	팀장	정인철
	겸직	대리	김래영
	전담	대리	김슬기
	겸직	주임	이상기
	전담	주임	조재겸
	전담	사원	방유정
2015	겸직	사무국장	심태영
	겸직	팀장	정인철
	겸직	과장	임인수
	겸직	대리	김소희
	전담	주임	김동규
	전담	사원	방유정

연도	수상일	구분	시상기관	수상명	공적
2023	2023.12.26.	감사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공헌 활동 우수
	2023.12.21.	표창장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표창	대중교통 발전 및 시내버스 서비스향상
	2023.12.14.	감사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취약계층 아동 지원
	2023.12.14.	감사패	문화유산국민신탁	-	국가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
	2023.12.08.	감사패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전주한지 산업 후원 및 전통문화체험 지원
2022	2022.12.31.	표창장	사회적기업진흥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표창	협동조합 우수
	2022.12.14.	상장	2022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	사회공헌 활동 우수
	2022.11.22.	감사패	대전문화재단	-	해당 단체 지원
	2022.02.15.	감사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공헌 활동 우수
2021	2021.11.25.	상장	제10회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CSR필름페스티벌	금융위원회위원장상	재단 사업 홍보영상 출품
	2021.11.10.	표창장	나눔국민대상 멘토링 부문	국무총리표창	멘토링 활동 우수(이사장님)
2020	2020.11.06.	감사패	함안군	-	함안군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건립
	2020.10.30.	표창장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표창	차량지원사업 및 대전봉사단 지원사업 등
	2020.10.27.	포장증	대한적십자사	적십자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	재난재해구호사업 및 지역봉사단 사업 등
2019	2019.12.03.	감사장	퓨레이 초등학교(필리핀)	-	해외봉사활동
	2019.01.12.	감사패	어깨동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해당 단체 지원
	2019.01.08.	감사패	부산시치과의사회 나눔봉사단	-	해당 단체 지원
2018	2018.11.01.	감사장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협동조합 작은행사 지원 사업 후원
	2018.10.16.	표창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멘토링 사업 우수
	2018.10.07.	감사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	해당 단체 지원(중앙회)
2017	2017.12.30.	감사패	대한적십자사	-	사회공헌 활동 우수
	2017.09.23.	감사패	아름다운세당	-	해당 단체 지원
	2017.08.17.	감사장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	해당 단체 지원
2016	2016.12.31.	표창장	기획재정부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표창	사회공헌 활동 우수
	2016.11.10.	감사패	경주시	-	지진 및 태풍 '차바' 피해복구 지원
	2015.06.18.	감사장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	해당 단체 지원
	2013.04.29.	감사장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	해당 단체 지원

신협사회공헌재단 아너스클럽 명단

2024.08.31. 기준

아너스클럽 선정기준

개인(50명)		
구분	누적기부금	비고
엔젤	5천만원 이상	1명
노블	3천만원 이상	3명
그랜드마스터	2천만원 이상	2명
마스터	1천만원 이상	12명
챌린저	5백만원 이상	32명
합계		50명

법인(271신협)		
구분	누적기부금	비고
로얄	3억원 이상	1신협
다이아몬드	1억원 이상	23신협
골드	5천만원 이상	44신협
실버	3천만원 이상	40신협
브론즈	1천만원 이상	163신협
합계		271신협

아너스클럽 개인

구분	기부자	누적기부금(원)
엔젤	임현섭 복성신협 前이사장	50,297,000
노블	박영균 장안신협 이사장	42,970,000
노블	문철상 前신협중앙회장	31,675,000
노블	강재신 성남중앙신협 前상임이사	31,120,000
그랜드마스터	최영훈 대구대서신협 이사장	23,505,000
그랜드마스터	송재근 신협중앙회 前사업대표이사	22,600,000
마스터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15,710,000
마스터	주진우 구로신협 상임감사	13,445,000
마스터	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	13,300,000
마스터	전영호 팔공신협 이사장	13,110,000
마스터	안병대 장안신협 상임이사	12,098,030
마스터	김경섭 신협중앙회 前사업대표이사	12,000,000

구분	기부자	누적기부금(원)
마스터	신행선 제민신협 상임감사	11,960,000
마스터	김경식 경남제일신협 前상무	11,000,000
마스터	장병용 신협중앙회 前검사감독이사	10,440,000
마스터	김영순 천안우리신협 이사장	10,150,000
마스터	문실 신협중앙회 차장	10,061,000
마스터	이형욱 성가신협 前이사장	10,000,000
챌린저	이준호 신협중앙회 팀장	8,440,000
챌린저	안현수 화성우리신협 조합원	7,500,000
챌린저	정인철 신협중앙회 IT이사	7,311,600
챌린저	조종훈 대전동부신협 이사장	7,130,000
챌린저	조채원 미리별신협 이사장	7,000,000
챌린저	이성만 신협중앙회 부문장	6,970,000
챌린저	박철규 구즉신협 前상임이사	6,960,000
챌린저	박규희 신협중앙회 부문장	6,700,000
챌린저	손석조 신협중앙회 본부장	6,540,000
챌린저	백승재 강북신협 前이사장	6,405,000
챌린저	윤익수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	6,250,000
챌린저	송재용 남정주신협 이사장	6,142,000
챌린저	오균호 서대구신협 상임이사	6,130,000
챌린저	이경탁 전주삼천신협 상임감사	5,870,000
챌린저	이순애 해성신협 前이사장	5,700,000
챌린저	윤종권 진주행복신협 이사장	5,650,000
챌린저	배봉숙 신협중앙회 前디지털금융이사	5,630,000
챌린저	전찬구 이천신협 이사장	5,590,000
챌린저	서정선 성동신협 前이사장	5,430,000
챌린저	정진목 신협중앙회 본부장	5,160,000
챌린저	박세웅 의왕신협 이사장	5,150,000
챌린저	우육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5,140,000
챌린저	유영일 신협중앙회 본부장	5,140,000
챌린저	윤성근 신협중앙회 기획이사	5,140,000
챌린저	주원식 동서울신협 상임감사	5,130,000
챌린저	양현숙 천안우리신협 상무	5,095,000
챌린저	정은주 국일신협 상무	5,060,000
챌린저	홍재호 여수참조은신협 이사장	5,050,000
챌린저	양준모 신협중앙회 이사	5,010,000
챌린저	권혁철 충주야현신협 이사장	5,000,000

구분	기부자	누적기부금(원)
챌린저	서대근 군산중앙신협 이사장	5,000,000
챌린저	이수군 대경신협 이사장	5,000,000

아너스클럽 법인

구분	신협명	누적기부금(원)
로얄	광주문화	669,000,000
다이아몬드	청운	264,100,000
다이아몬드	광안	254,500,000
다이아몬드	장안	216,345,000
다이아몬드	대구대서	181,780,270
다이아몬드	삼익	175,400,000
다이아몬드	부산성의	165,500,000
다이아몬드	대동	161,800,000
다이아몬드	동서울	161,000,000
다이아몬드	구즉	156,010,000
다이아몬드	울산행복	145,000,000
다이아몬드	수지	142,420,216
다이아몬드	남천천	140,500,000
다이아몬드	부산시중앙	137,611,000
다이아몬드	경남중앙	135,000,000
다이아몬드	달구벌	131,700,000
다이아몬드	한라	120,000,000
다이아몬드	은평	117,000,000
다이아몬드	경남제일	110,000,000
다이아몬드	현대제철	104,181,020
다이아몬드	신목	103,300,000
다이아몬드	반월	102,075,000
다이아몬드	서대구	101,600,000
다이아몬드	서울옴	101,000,000
골드	나주	96,600,000
골드	든솔	96,600,000
골드	원주밝음	96,000,000
골드	계양	90,800,000
골드	의왕	88,400,000

구분	신협명	누적기부금(원)
골드	복수원	86,700,000
골드	김천	86,000,000
골드	복성	80,400,000
골드	원주	80,200,000
골드	대아	80,000,000
골드	군포	78,400,000
골드	상록	78,000,000
골드	한평	78,000,000
골드	천안제일	77,346,000
골드	광주어룡	77,000,000
골드	경남동부	70,000,000
골드	동수원	70,000,000
골드	제민	69,300,000
골드	미소	66,800,000
골드	부산진	65,500,000
골드	이천	63,500,000
골드	춘천	63,400,000
골드	제주중앙	62,200,000
골드	문창	62,000,000
골드	대구칠곡	61,700,000
골드	방림	61,500,000
골드	천안중앙	61,200,000
골드	가톨릭춘천	60,000,000
골드	북동	58,140,000
골드	서원주	57,500,000
골드	화서	57,300,000
골드	천안	56,396,000
골드	광주원광	55,980,000
골드	사상	55,502,000
골드	연수송도	53,996,000
골드	성남중앙	52,800,000
골드	목포	52,680,000
골드	세종중앙	52,200,000
골드	제일	51,500,000
골드	당진	51,200,000
골드	광장	51,000,000

구분	신탁명	누적기부금(원)
골드	남청주	50,200,000
골드	구덕	50,000,000
골드	대방	50,000,000
실버	우산	49,770,000
실버	전주상진	46,300,000
실버	대전우리	46,200,000
실버	부산동래	45,600,000
실버	도림	45,000,000
실버	인후	44,000,000
실버	주성	43,900,000
실버	대구대건	43,600,000
실버	전주파티마	43,100,000
실버	구로	43,000,000
실버	미추홀	42,600,000
실버	병점	42,600,000
실버	충주야현	41,300,000
실버	홍성	41,200,000
실버	등촌	40,200,000
실버	한빛	39,630,000
실버	서귀포	39,060,000
실버	청주상당	38,900,000
실버	전주동부	38,860,000
실버	광주중앙	37,200,000
실버	창원늘푸른	37,000,000
실버	서수원	36,800,000
실버	제주Y	36,400,000
실버	서울서부	36,300,000
실버	삼원	36,200,000
실버	동암	35,800,000
실버	울산남부	35,000,000
실버	꿀벌	34,833,000
실버	원당	34,800,000
실버	안산	33,638,890
실버	수원중앙	33,580,000
실버	무학	33,570,000
실버	비아	33,270,000

구분	신탁명	누적기부금(원)
실버	여수참조은	32,990,000
실버	김포제일	32,660,000
실버	청주성동	31,656,640
실버	세종우리	31,600,000
실버	데레사	31,296,660
실버	주민	30,800,000
실버	경기광주	30,200,000
브론즈	의령	29,700,000
브론즈	충주효성	28,400,000
브론즈	대전은누리	28,200,000
브론즈	행복	28,200,000
브론즈	마포	28,000,000
브론즈	강진	27,730,000
브론즈	천안우리	27,700,000
브론즈	국일	27,000,000
브론즈	전주중앙	26,830,000
브론즈	대명	26,200,000
브론즈	김제	25,800,000
브론즈	신제주	25,800,000
브론즈	전주대건	25,800,000
브론즈	제천	25,500,000
브론즈	강서	25,200,000
브론즈	청주서원	25,000,000
브론즈	단양	24,500,000
브론즈	송라	24,500,000
브론즈	은누리	24,353,690
브론즈	한우리	24,200,000
브론즈	부령	24,000,000
브론즈	안산중앙	23,800,000
브론즈	새안양	23,450,100
브론즈	이리	23,440,000
브론즈	전주중산	23,370,000
브론즈	미리벌	23,250,000
브론즈	신탄제일	23,200,000
브론즈	청주행복	23,100,000
브론즈	경북오천	23,000,000

구분	신탁명	누적기부금(원)
브론즈	포항서부	23,000,000
브론즈	회원	23,000,000
브론즈	오산	22,600,000
브론즈	금천	22,500,000
브론즈	월성	22,500,000
브론즈	광주웨슬리	22,220,000
브론즈	중흥	22,120,000
브론즈	달월	21,800,000
브론즈	풀무	21,800,000
브론즈	대구대동	21,700,000
브론즈	만수중앙	21,100,000
브론즈	복원	21,000,000
브론즈	함양	20,990,000
브론즈	화성우리	20,715,500
브론즈	군산팔마	20,620,000
브론즈	청주드림	20,600,000
브론즈	대경	20,500,000
브론즈	남광주	20,460,000
브론즈	부산장우	20,300,000
브론즈	당진우리	20,200,000
브론즈	정락	20,100,000
브론즈	경남마산	20,031,000
브론즈	광주신우	20,020,000
브론즈	성동	20,000,000
브론즈	제주	20,000,000
브론즈	단원	19,600,000
브론즈	북부산	19,500,000
브론즈	평택	19,100,000
브론즈	순천	18,830,000
브론즈	수원권선	18,800,000
브론즈	왜관	18,800,000
브론즈	진천	18,550,000
브론즈	목포대성	18,500,000
브론즈	팔공	18,210,000
브론즈	우리	17,990,000
브론즈	안도제일	17,810,000

구분	신탁명	누적기부금(원)
브론즈	대곶	17,800,000
브론즈	덕양	17,800,000
브론즈	동부	17,800,000
브론즈	새진주	17,408,000
브론즈	일산	17,400,000
브론즈	동호	17,300,000
브론즈	화곡	17,200,000
브론즈	영광합평	17,180,000
브론즈	소화	17,100,000
브론즈	목포우리	16,900,000
브론즈	전주성가	16,850,000
브론즈	대정	16,800,000
브론즈	제천북부	16,500,000
브론즈	진주행복	16,365,000
브론즈	공주중앙	16,200,000
브론즈	광명	16,200,000
브론즈	대전한일	16,200,000
브론즈	아산	16,200,000
브론즈	주덕	16,200,000
브론즈	군산월명	16,180,000
브론즈	순천두레	16,140,000
브론즈	중앙로	16,000,000
브론즈	남강	15,900,000
브론즈	고산	15,800,000
브론즈	대구성서	15,688,000
브론즈	군산대건	15,610,000
브론즈	김포	15,600,000
브론즈	서원경	15,500,000
브론즈	창원미래	15,500,000
브론즈	세종	15,400,000
브론즈	해운대	15,400,000
브론즈	구남	15,200,000
브론즈	부산시약사	15,200,000
브론즈	세모	15,200,000
브론즈	남인천	15,100,000
브론즈	늘푸른	15,000,000

신협사회공헌재단

법인 및 개인기부자 명단

구분	신흥명	누적기부금(원)
브론즈	동작	15,000,000
브론즈	양지	14,600,000
브론즈	서청주	14,510,850
브론즈	대구태영	14,500,000
브론즈	두암	14,500,000
브론즈	금빛	14,400,000
브론즈	남부천	14,400,000
브론즈	대전동부	14,200,000
브론즈	신탄진	14,200,000
브론즈	금모래	14,000,000
브론즈	당산	14,000,000
브론즈	대원	14,000,000
브론즈	장성	13,940,000
브론즈	운천장	13,797,000
브론즈	대전	13,700,000
브론즈	구미	13,400,000
브론즈	안성	13,308,670
브론즈	영암	13,291,500
브론즈	반도	13,200,000
브론즈	고한	13,000,000
브론즈	동대구	13,000,000
브론즈	울산동부	13,000,000
브론즈	북청주	12,977,120
브론즈	청양	12,940,000
브론즈	진부	12,900,000
브론즈	가나안	12,830,550
브론즈	구좌	12,600,000
브론즈	화정	12,320,000
브론즈	대전대흥	12,200,000
브론즈	매포	12,200,000
브론즈	중도	12,200,000
브론즈	인천한마음	12,006,786
브론즈	호남제일	11,850,000
브론즈	청주	11,850,000
브론즈	가톨릭수원교구	11,800,000
브론즈	영동중앙	11,800,000

구분	신흥명	누적기부금(원)
브론즈	제상	11,800,000
브론즈	김포한강	11,700,000
브론즈	남동	11,700,000
브론즈	북천안	11,700,000
브론즈	경기제일	11,600,000
브론즈	관악	11,600,000
브론즈	고창	11,505,000
브론즈	서광	11,400,000
브론즈	서귀포동부	11,300,000
브론즈	통진	11,200,000
브론즈	화원	11,200,000
브론즈	화지산	11,200,000
브론즈	동촌	11,000,000
브론즈	전주덕진	10,940,000
브론즈	서로	10,900,000
브론즈	태릉	10,866,212
브론즈	새서울	10,800,000
브론즈	원광	10,800,000
브론즈	여수중앙	10,600,000
브론즈	경기치과의사	10,400,000
브론즈	부산동부	10,300,000
브론즈	순천중앙	10,280,000
브론즈	원광중앙	10,210,000
브론즈	서울중앙교회	10,200,000
브론즈	삼척	10,100,000
브론즈	정선	10,000,000

☉ 법인 일시기부

신흥명	누적 기부금(원)
광주문화	669,000,000
청운	264,100,000
광안	254,500,000
장안	216,345,000
대구대서	181,780,270
삼익	175,400,000
부산성의	165,500,000
대동	161,800,000
동서울	161,000,000
구즉	156,010,000
울산행복	145,000,000
수지	142,420,216
남천천	140,500,000
부산시중앙	137,611,000
경남중앙	135,000,000
달구벌	131,700,000
한라	120,000,000
은평	117,000,000
경남제일	110,000,000
현대제철	104,181,020
신목	103,300,000
반월	102,075,000
서대구	101,600,000
서울으뜸	101,000,000
나주	96,600,000
든솔	96,600,000
원주밝음	96,000,000
계양	90,800,000
의왕	88,400,000
복수원	86,700,000
김천	86,000,000
복성	80,400,000
월주	80,200,000
대아	80,000,000

신흥명	누적 기부금(원)
군포	78,400,000
상록	78,000,000
한평	78,000,000
천안제일	77,346,000
광주어룡	77,000,000
경남동부	70,000,000
동수원	70,000,000
제민	69,300,000
미소	66,800,000
부산진	65,500,000
이천	63,500,000
춘천	63,400,000
제주중앙	62,200,000
문창	62,000,000
대구칠곡	61,700,000
방림	61,500,000
천안중앙	61,200,000
가톨릭춘천	60,000,000
북동	58,140,000
서원주	57,500,000
화서	57,300,000
천안	56,396,000
광주원광	55,980,000
사상	55,502,000
연수송도	53,996,000
성남중앙	52,800,000
목포	52,680,000
세종중앙	52,200,000
제일	51,500,000
당진	51,200,000
광장	51,000,000
남청주	50,200,000
구덕	50,000,000
대방	50,000,000
우산	49,770,000
전주상진	46,300,000

신흥명	누적 기부금(원)
대전우리	46,200,000
부산동래	45,600,000
도림	45,000,000
인후	44,000,000
주성	43,900,000
대구대건	43,600,000
전주파티마	43,100,000
구로	43,000,000
미추홀	42,600,000
병점	42,600,000
충주야현	41,300,000
홍성	41,200,000
등촌	40,200,000
한빛	39,630,000
서귀포	39,060,000
청주상당	38,900,000
전주동부	38,860,000
광주중앙	37,200,000
창원늘푸른	37,000,000
서수원	36,800,000
제주Y	36,400,000
서울서부	36,300,000
삼원	36,200,000
동암	35,800,000
울산남부	35,000,000
꿀벌	34,833,000
원당	34,800,000
안산	33,638,890
수원중앙	33,580,000
무학	33,570,000
비아	33,270,000
여수참조은	32,990,000
김포제일	32,660,000
청주성동	31,656,640
세종우리	31,600,000
데레사	31,296,66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주민	30,800,000	광주웨슬리	22,220,000	동호	17,300,000	금빛	14,400,000	관악	11,600,000	송파	9,000,000
경기광주	30,200,000	중흥	22,120,000	화곡	17,200,000	남부천	14,400,000	고창	11,505,000	소사	8,945,480
의령	29,700,000	달월	21,800,000	영광합평	17,180,000	대전동부	14,200,000	서광	11,400,000	전주혁신	8,940,000
충주효성	28,400,000	풀무	21,800,000	소화	17,100,000	신탄진	14,200,000	서귀포동부	11,300,000	북교	8,830,000
대전은누리	28,200,000	대구대동	21,700,000	목포우리	16,900,000	금모래	14,000,000	통진	11,200,000	남수원	8,800,000
행복	28,200,000	만수중앙	21,100,000	전주성가	16,850,000	당산	14,000,000	화원	11,200,000	서서울	8,800,000
마포	28,000,000	복원	21,000,000	대정	16,800,000	대원	14,000,000	화지산	11,200,000	예산중부	8,700,000
강진	27,730,000	함양	20,990,000	제천북부	16,500,000	장성	13,940,000	동촌	11,000,000	벌교	8,640,000
천안우리	27,700,000	화성우리	20,715,500	진주행복	16,365,000	온천장	13,797,000	전주덕진	10,940,000	양촌	8,600,000
국일	27,000,000	군산팔마	20,620,000	공주중앙	16,200,000	대천	13,700,000	서로	10,900,000	화성한마음	8,600,000
전주중앙	26,830,000	청주드림	20,600,000	광명	16,200,000	구미	13,400,000	태릉	10,866,212	경산	8,520,000
대명	26,200,000	대경	20,500,000	대전한일	16,200,000	안성	13,308,670	새서울	10,800,000	보은	8,500,000
김제	25,800,000	남광주	20,460,000	아산	16,200,000	영암	13,291,500	원광	10,800,000	제천남부	8,500,000
신제주	25,800,000	부산장우	20,300,000	주덕	16,200,000	반도	13,200,000	여수중앙	10,600,000	함열	8,440,000
전주대건	25,800,000	당진우리	20,200,000	군산월명	16,180,000	고한	13,000,000	경기치과의사	10,400,000	삼성대소	8,371,460
제천	25,500,000	정락	20,100,000	순천두레	16,140,000	동대구	13,000,000	부산동부	10,300,000	경기시흥	8,300,000
강서	25,200,000	경남마산	20,031,000	중앙로	16,000,000	울산동부	13,000,000	순천중앙	10,280,000	대창	8,300,000
청주서원	25,000,000	광주신우	20,020,000	남강	15,900,000	북청주	12,977,120	원광중앙	10,210,000	안덕	8,300,000
단양	24,500,000	성동	20,000,000	고산	15,800,000	청양	12,940,000	서울중앙교회	10,200,000	광희	8,200,000
송라	24,500,000	제주	20,000,000	대구성서	15,688,000	진부	12,900,000	삼척	10,100,000	도솔	8,200,000
온누리	24,353,690	단원	19,600,000	군산대건	15,610,000	가나안	12,830,550	정선	10,000,000	평택은실	8,100,000
한우리	24,200,000	북부산	19,500,000	김포	15,600,000	구좌	12,600,000	경기도건축사	9,900,000	해남	8,100,000
부평	24,000,000	평택	19,100,000	서원경	15,500,000	화정	12,320,000	내포	9,868,000	강북	8,000,000
안산중앙	23,800,000	순천	18,830,000	창원미래	15,500,000	대전대흥	12,200,000	제주서부	9,800,000	남서울	8,000,000
새안양	23,450,100	수원권선	18,800,000	세종	15,400,000	매포	12,200,000	포천제일	9,800,000	중앙	8,000,000
이리	23,440,000	왜관	18,800,000	해운대	15,400,000	중도	12,200,000	서인천	9,792,000	청량리	8,000,000
전주중산	23,370,000	진천	18,550,000	구남	15,200,000	인천한마음	12,006,786	송파동부	9,500,000	명성	7,950,000
미리벌	23,250,000	목포대성	18,500,000	부산시약사	15,200,000	호남제일	11,850,000	공주동부	9,200,000	미래	7,860,260
신탄제일	23,200,000	팔공	18,210,000	세모	15,200,000	청주	11,850,000	대전대덕	9,200,000	위미	7,850,000
청주행복	23,100,000	우리	17,990,000	남인천	15,100,000	가톨릭수원교구	11,800,000	대전중앙	9,200,000	익산믿음	7,850,000
경북오천	23,000,000	완도제일	17,810,000	늘푸른	15,000,000	영동중앙	11,800,000	서천	9,200,000	믿음	7,800,000
포항서부	23,000,000	대곶	17,800,000	동작	15,000,000	제상	11,800,000	세림	9,200,000	분당	7,800,000
회원	23,000,000	덕양	17,800,000	양지	14,600,000	김포한강	11,700,000	천안서부	9,200,000	안산제일	7,800,000
오산	22,600,000	동부	17,800,000	서청주	14,510,850	남동	11,700,000	인천대건	9,157,380	화성제일	7,750,000
금천	22,500,000	새진주	17,408,000	대구태영	14,500,000	북천안	11,700,000	군산제일	9,090,000	여수	7,700,000
월성	22,500,000	일산	17,400,000	두암	14,500,000	경기제일	11,600,000	광혜원	9,000,000	신정	7,600,000

신희명	누적 기부금(원)	신희명	누적 기부금(원)	신희명	누적 기부금(원)	신희명	누적 기부금(원)	신희명	누적 기부금(원)	신희명	누적 기부금(원)
창원	7,578,000	광주교회	6,020,000	전북치과의사	5,100,000	양양	3,900,000	구포	3,200,000	청주문의	2,900,000
영일만	7,561,100	나주이화	6,020,000	화순	5,040,000	여주	3,900,000	남대전	3,200,000	순천성동	2,870,000
전주삼천	7,460,000	충주중앙	5,950,000	사북	5,000,000	광주미래	3,880,000	대전충남치과의사	3,200,000	청주남부	2,850,000
부산거제	7,300,000	태안우리	5,804,800	무주반딧불	4,950,000	양주	3,847,080	성남대원	3,200,000	황간	2,850,000
광주동부	7,280,000	가평	5,800,000	광양	4,920,000	하나	3,830,000	양천	3,200,000	매곡	2,800,000
서해중앙	7,252,960	부천소망	5,800,000	사라	4,900,000	거창	3,801,000	전의	3,200,000	예산신우	2,712,610
제물포	7,200,000	영천	5,800,000	한남	4,850,000	남양주	3,800,000	충절로	3,200,000	영광굴비골	2,710,000
홍천	7,200,000	의정부	5,800,000	광주신안	4,740,000	황등	3,800,000	부안	3,110,000	대전교직원	2,700,000
양동행복	7,070,000	포천	5,800,000	정읍애	4,740,000	대사	3,790,000	금산중앙	3,100,000	대전다운	2,700,000
으뜸	7,050,000	온고을	5,790,000	아주대학교의료원	4,600,000	금왕	3,750,000	대구한마음	3,100,000	새울	2,700,000
경북동부	7,000,000	광주하남	5,740,000	양평	4,600,000	군산반석	3,700,000	서포항	3,100,000	선화	2,700,000
봉평	7,000,000	토평	5,725,740	칠금	4,600,000	대청	3,700,000	양등	3,100,000	종로	2,700,000
상봉	7,000,000	서신	5,720,000	노송	4,530,000	점진	3,700,000	인천항	3,100,000	천안미소	2,700,000
무안남부	6,910,000	연무	5,700,000	속초	4,500,000	담양한빛	3,670,000	제주동부	3,100,000	타타대우상용차	2,700,000
대봉천	6,900,000	예성	5,700,000	광주개인택시	4,470,000	여수제일	3,640,000	청주중앙	3,100,000	태안	2,700,000
성안	6,800,000	무주안성	5,650,000	전주가나안	4,430,000	경남한의사	3,613,000	여천	3,090,000	홍주	2,700,000
신우	6,800,000	소래	5,610,000	동제주	4,400,000	옥산	3,610,000	빛고을	3,030,000	진주중앙	2,673,000
은곡	6,800,000	열린	5,600,000	부흥	4,400,000	마장	3,600,000	삼례	3,000,050	금산비단	2,600,000
남부	6,750,000	평택성동	5,600,000	북인천	4,400,000	인천중부	3,600,000	마루	3,000,000	부평제일	2,600,000
계산	6,700,000	대구한일	5,500,000	한마음	4,300,000	진산	3,600,000	마산남성	3,000,000	양구	2,600,000
보목	6,500,000	중문	5,500,000	쌍봉	4,270,000	전평	3,580,000	밀양	3,000,000	부산행복	2,565,150
순천제일	6,440,000	군산해성	5,490,000	대전삼성	4,200,000	이리주현	3,530,000	방촌	3,000,000	거제행복	2,564,000
서라벌	6,412,450	오송	5,400,000	대전푸른	4,200,000	당진해나루	3,500,000	베다니교회	3,000,000	강구	2,500,000
광주총장	6,370,000	청십자	5,324,000	대전행복	4,200,000	서울치과의사	3,500,000	새청주	3,000,000	대구희망	2,500,000
미호	6,361,000	동광	5,300,000	서령	4,200,000	송림중앙	3,500,000	서울약사	3,000,000	대산	2,500,000
순창	6,340,000	애월	5,300,000	세종부강	4,200,000	해성	3,500,000	성북	3,000,000	동인천	2,500,000
풍양	6,300,000	표선	5,300,000	신대산	4,200,000	강화	3,400,000	안동중앙	3,000,000	부민	2,500,000
양우	6,220,000	녹동	5,290,000	인천성암	4,200,000	송도	3,400,000	울주	3,000,000	밀알	2,440,000
부산항운노조	6,200,000	용해	5,260,000	백암	4,100,000	용현	3,400,000	장위	3,000,000	성모	2,400,000
한밭	6,200,000	대구미래	5,200,000	석암	4,100,000	오창	3,350,000	태종대	3,000,000	제주치과의사	2,400,000
화성삼덕	6,200,000	대전유성	5,200,000	여흥	4,100,000	북광주	3,340,000	무안	2,951,940	증평	2,400,000
대성	6,110,000	동부산	5,200,000	영월	4,100,000	흥덕	3,250,000	서충주	2,950,000	학익	2,400,000
답동	6,100,000	서산	5,200,000	용인	4,100,000	하동	3,233,000	충주에덴	2,950,000	샘	2,370,000
송림	6,100,000	한국지엠	5,200,000	월곶	4,100,000	광주와이	3,220,000	순천동부	2,930,000	봉상	2,360,000
장성우리	6,100,000	보성	5,181,000	군산중앙	3,970,000	수안보	3,210,000	구리	2,900,000	금정	2,339,000
장호원	6,100,000	금산	5,100,000	검단	3,900,000	구봉	3,200,000	음성	2,900,000	계림	2,320,00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면곡	2,300,000	대구신라	1,600,000
서남	2,300,000	창신	1,600,000
경일	2,200,000	용진	1,560,000
대전서부	2,200,000	조성	1,550,000
대전영화	2,200,000	용안	1,540,000
복사골	2,200,000	봄내	1,500,000
아산우리	2,200,000	삼다리	1,500,000
안성제일	2,200,000	서대문	1,500,000
청주중부	2,200,000	원주참빛	1,500,000
청주직지	2,200,000	청주제일	1,500,000
송의	2,142,000	전주행복	1,490,000
무궁화	2,140,000	해남우리	1,410,000
강남	2,026,060	둔산	1,400,000
거제중앙	2,000,000	진해	1,400,000
경동	2,000,000	추부	1,400,000
남해	2,000,000	진안군청	1,380,000
부산원광	2,000,000	옥서	1,360,000
서울드림	2,000,000	다운	1,300,000
소공	2,000,000	대전 YMCA	1,300,000
아현천주교회	2,000,000	북대구	1,300,000
영주영남	2,000,000	영종	1,300,000
이문	2,000,000	삼애	1,260,000
포항제일	2,000,000	익산	1,260,000
호명	2,000,000	무장	1,220,000
장승포	1,987,000	부여	1,215,000
호성	1,950,000	공주	1,200,000
광주중부	1,940,000	문화교육원	1,200,000
대관령	1,900,000	비인	1,200,000
설천	1,850,000	아산미래	1,200,000
HD현대인프라코어	1,800,000	유천	1,200,000
선린	1,800,000	진주가나	1,200,000
진도	1,770,000	참우리	1,200,000
해제	1,770,000	창원행복	1,200,000
완도	1,730,000	케이티앤지	1,200,000
괴산	1,700,000	한산	1,200,000
인천치과의사	1,700,000	옥천	1,150,00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한별	1,150,000
광주전남치과의사	1,110,000
대구한의사	1,100,000
새누리	1,100,000
신림	1,100,000
정릉	1,100,000
전주개인택시	1,090,000
입하	1,060,000
예수병원	1,010,000
가톨릭명동	1,000,000
경남가온	1,000,000
경남원광	1,000,000
관동	1,000,000
달성대건	1,000,000
대전드림	1,000,000
대화	1,000,000
삼다	1,000,000
서산해누리	1,000,000
성삼우리	1,000,000
안강	1,000,000
연희	1,000,000
청천	1,000,000
통영복음	1,000,000
포항	1,000,000
광주YWCA	980,000
향수	900,000
울산치과의사	894,000
동청주	850,000
가톨릭인천교구청	800,000
성암	800,000
울산태화	800,000
부산부평	799,000
금마	770,000
삼광	740,000
장수	730,000
알찬	700,00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자갈치	650,000
전북서부항운노조	650,000
서울변호사	630,000
당감	600,000
성심	600,000
솔빛	600,000
전남대학교	570,000
고신	529,000
감포	500,000
강릉	500,000
강원랜드	500,000
금오제일	500,000
대한제당	500,000
디엔솔루션즈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00,000
서울행복	500,000
신길	500,000
아주	500,000
안동행복	500,000
압량	500,000
풍천	500,000
조선대학교	490,000
송천	450,000
광주약사	430,000
포두	430,000
광주전남의사	400,000
대구경북치과의사	400,000
청송	400,000
춘천와이	400,000
광주우리	380,000
고령	300,000
구룡포	300,000
마로	300,000
무학교회	300,000
영남치과기공사	300,000
예천한일	300,00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완주	260,000
전주페이퍼	240,000
여산일심	230,000
부산은행	218,000
(주)인켈	200,000
감물	200,000
대구행복	200,000
덕촌	200,000
북서울	200,000
삼청	200,000
성가	200,000
승학	200,000
안동	200,000
용산	200,000
의성	200,000
이원	200,000
장연	200,000
전주대학교	200,000
제천염연초	200,000
진보	200,000
청산	200,000
청원	200,000
충북건축사	200,000
충북약사	200,000
철성	200,000
동계	190,000
일신학원	150,000
광주서부	110,000
대구영광	100,000
봉화	100,000
부산울산경남건설기계	100,000
부산의사	100,000
서부산	100,000
안동성소병원	100,000
영남대학교의료원	100,000
영주장수	100,00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청신	100,000
춘양	100,000
충북치과의사	100,000
세플러코리아	90,000
광주용산	60,000
광주건축사	50,000
전북고속	50,000
광주은행	20,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0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930

☉ 모금함 일시기부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태릉	7,034,622
반월	4,451,380
내포	2,231,910
수원중앙	2,126,820
천안중앙	1,859,372
팔공	1,800,000
달구벌	1,645,140
안산	1,582,720
청주성동	1,579,770
대구신라	1,435,140
군포	1,342,290
오산	1,316,824
경기광주	1,314,930
정선	1,289,780
안동	1,281,195
제천북부	1,205,120
계양	1,181,060
경남동부	1,167,560
부산진	1,165,480
장안	1,141,910
여수참조은	1,133,31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김포	1,123,270	포항	629,680
양동행복	1,056,390	청주행복	626,500
광명	1,039,270	인천대건	625,000
상록	1,020,600	한밭	625,000
문창	982,250	청주중앙	621,108
경북오천	958,670	화성삼덕	615,940
송도	915,260	구미	615,380
온누리	877,470	장위	615,080
아산	871,200	양동	614,670
영일만	860,000	광안	611,610
인후	844,510	제물포	611,230
광주신우	843,800	청주서원	610,930
서청주	839,840	대창	608,320
이천	832,580	금모래	598,550
목포대성	814,380	행복	597,990
무안남부	789,770	삼삼우리	595,880
거제중앙	781,450	충주효성	595,410
미래	776,220	광주문화	594,630
북인천	739,640	화성한마음	581,660
천안제일	722,330	울산태화	578,610
진산	716,610	주성	575,720
인천한마음	715,150	남인천	572,650
두암	702,110	칠금	565,110
통진	700,170	순천두레	554,740
광혜원	698,100	믿음	531,130
부평제일	689,410	서라벌	527,990
신목	683,500	포산	524,400
울산남부	679,240	보목	523,920
양촌	677,540	서인천	520,820
청주드림	646,070	천안서부	520,390
충주야현	643,010	금천	518,750
백암	641,230	오창	515,430
순천	640,600	반도	514,230
보성	640,470	대전동부	513,461
구덕	637,322	임주참빛	511,420
강북	635,290	회원	504,72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부흥	504,000	부흥	504,000
전의	503,230	전의	503,230
가나안	501,820	가나안	501,820
홍성	501,590	홍성	501,590
대산	501,520	대산	501,520
여천	500,900	여천	500,900
충주에덴	499,460	충주에덴	499,460
남청주	496,610	남청주	496,610
춘천	490,730	춘천	490,730
미소	485,680	미소	485,680
군산해성	485,550	군산해성	485,550
태안우리	483,620	태안우리	483,620
주민	473,950	주민	473,950
강남	470,000	강남	470,000
비아	462,950	비아	462,950
전주삼천	456,780	전주삼천	456,780
플무	451,950	플무	451,950
한마음	446,820	한마음	446,820
군산월명	443,930	군산월명	443,930
대전대흥	434,590	대전대흥	434,590
북청주	431,970	북청주	431,970
화성제일	428,910	화성제일	428,910
해성	428,420	해성	428,420
대전유성	427,560	대전유성	427,560
제주중앙	424,580	제주중앙	424,580
마산남성	423,970	마산남성	423,970
한라	416,510	한라	416,510
안동행복	416,290	안동행복	416,290
김포한강	415,800	김포한강	415,800
미추홀	412,850	미추홀	412,850
제주	408,710	제주	408,710
검단	408,460	검단	408,460
송천	406,340	송천	406,340
대전대덕	405,860	대전대덕	405,860
경남제일	405,320	경남제일	405,320
울주	404,810	울주	404,81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신대산	403,790	신대산	403,790
서산	399,440	서산	399,440
양지	397,960	양지	397,960
한빛	396,950	한빛	396,950
포두	390,940	포두	390,940
해운대	388,040	해운대	388,040
삼척	386,700	삼척	386,700
세종우리	385,410	세종우리	385,410
대전중앙	383,960	대전중앙	383,960
김포제일	379,400	김포제일	379,400
당산	375,430	당산	375,430
충절로	370,870	충절로	370,870
대방	364,500	대방	364,500
고한	363,950	고한	363,950
성심	363,790	성심	363,790
여주	359,970	여주	359,970
마로	357,940	마로	357,940
대전푸른	354,140	대전푸른	354,140
대성	353,500	대성	353,500
대원	353,220	대원	353,220
은곡	348,440	은곡	348,440
경산	348,280	경산	348,280
서원경	346,810	서원경	346,810
안강	346,270	안강	346,270
광희	345,480	광희	345,480
군산중앙	344,450	군산중앙	344,450
당감	341,790	당감	341,790
제주Y	340,860	제주Y	340,860
한우리	340,480	한우리	340,480
대구철곡	339,250	대구철곡	339,250
창원행복	337,380	창원행복	337,380
정릉	335,390	정릉	335,390
서귀포	334,970	서귀포	334,970
성가	334,730	성가	334,730
군산반석	333,680	군산반석	333,680
북원	333,470	북원	333,47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김천	331,530	김천	331,530
국일	329,552	국일	329,552
부평	329,460	부평	329,460
동암	327,850	동암	327,850
대경	326,070	대경	326,070
삼익	324,610	삼익	324,610
호명	319,290	호명	319,290
향수	316,430	향수	316,430
광양	316,330	광양	316,330
한아름	316,210	한아름	316,210
담양한빛	313,300	담양한빛	313,300
원주밝음	304,280	원주밝음	304,280
광주웨슬리	304,270	광주웨슬리	304,270
종양	303,100	종양	303,100
대전다운	300,140	대전다운	300,140
녹동	300,100	녹동	300,100
경기제일	298,550	경기제일	298,550
송림	298,120	송림	298,120
방촌	296,990	방촌	296,990
공주중앙	296,340	공주중앙	296,340
청주	289,490	청주	289,490
디엔솔루션즈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86,580	디엔솔루션즈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86,580
부산거제	284,350	부산거제	284,350
제주서부	283,960	제주서부	283,960
대화	282,120	대화	282,120
김제	280,850	김제	280,850
쌍봉	278,690	쌍봉	278,690
광주우리	276,880	광주우리	276,880
늘푸른	276,770	늘푸른	276,770
동호	276,350	동호	276,350
남강	274,740	남강	274,740
현대제철	269,800	현대제철	269,800
승학	269,790	승학	269,790
함양	269,000	함양	269,000
진주행복	268,490	진주행복	268,49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포천제일	268,380	포천제일	268,380
한산	265,990	한산	265,990
인천항	263,960	인천항	263,960
진부	262,490	진부	262,490
아주	260,000	아주	260,000
삼다	258,020	삼다	258,020
나주	257,270	나주	257,270
매포	252,420	매포	252,420
남천천	252,000	남천천	252,000
대곶	251,210	대곶	251,210
연무	248,980	연무	248,980
포항서부	247,850	포항서부	247,850
서대구	247,830	서대구	247,830
삼성대소	247,680	삼성대소	247,680
전주행복	244,370	전주행복	244,370
제천	243,820	제천	243,820
영동중앙	240,810	영동중앙	240,810
세종부강	239,860	세종부강	239,860
북성	239,050	북성	239,050
비사벌	237,490	비사벌	237,490
소사	235,950	소사	235,950
황성	234,680	황성	234,680
북부산	230,740	북부산	230,740
대구성서	229,370	대구성서	229,370
구리	228,390	구리	228,390
전주상진	227,960	전주상진	227,960
천안미소	226,439	천안미소	226,439
토평	224,960	토평	224,960
대전행복	224,470	대전행복	224,470
양구	224,350	양구	224,350
인천중부	223,955	인천중부	223,955
순천동부	219,090	순천동부	219,090
부산동부	215,170	부산동부	215,170
대아	215,080	대아	215,080
청운	211,730	청운	211,730
안성	210,510	안성	210,51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서원주	208,800	용진	166,060
청량리	208,670	선린	165,960
음성	208,400	원주	165,760
표선	207,920	이리주현	164,850
신길	204,840	중흥	164,840
감포	203,400	광주원광	163,110
무주안성	203,230	대청	162,440
남대전	201,940	부산성의	161,800
당진	200,000	공주동부	158,470
광주와이	198,880	신림	158,440
영월	198,700	속초	152,861
전주덕진	195,000	구봉	151,850
남부천	194,780	흥덕	151,640
청송	194,660	둔산	150,273
비인	192,180	원주제일	150,170
은평제일	189,490	천안	150,000
온천장	187,590	동촌	149,780
삼양	185,000	청산	149,620
거제행복	184,340	서충주	149,350
부산행복	183,720	전주중산	148,800
예산신우	183,630	춘천와이	148,390
부민	183,000	순천제일	147,690
거창	181,540	영광합평	147,320
참우리	181,520	부산치과의사	147,130
울산행복	181,140	선화	145,560
주덕	179,930	한별	145,080
오송	178,610	남동	144,810
영광굴비굴	174,120	군산팔마	144,340
서울서부	171,320	알찬	141,490
중앙	171,100	부산시중앙	140,440
대구영광	169,720	마포	139,930
밀양	168,300	공주	139,110
봉평	168,080	천안우리	134,410
유천	167,730	황등	133,090
제민	167,500	서귀포동부	132,910
부산동래	167,200	서해중앙	131,97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화원	131,930
압량	130,860
면곡	129,210
미리벌	129,110
대전영화	127,900
새서울	126,67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6,350
복수원	125,710
자갈치	124,490
왜관	123,260
화지산	122,320
베다니교회	122,080
용해	121,750
구로	121,500
여산일심	121,480
정읍애	119,540
하동	119,250
해제	117,630
달성대건	117,520
전주복지	116,960
합천	116,520
제천남부	114,620
부안	114,510
전주파티마	112,690
양주	112,660
대전삼성	112,610
구남	112,380
황간	112,280
마장	111,760
도솔	110,000
강릉	109,430
대정	108,700
광주미래	108,350
칠성	107,880
아산미래	107,700
새울	107,63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대전온누리	107,470
이원	107,230
서부산	106,870
서울남부	106,840
서신	105,890
여흥	105,400
동부산	105,020
양평	104,340
부산원광	102,910
대사	102,850
무장	102,100
대전한일	102,040
평택은실	101,630
전주동산	101,370
사라	100,100
대구한의사	100,000
양천	100,000
한국지엠	100,000
나주이화	99,420
수지	99,180
동부	97,760
서산해누리	97,690
금산	97,440
보은	96,360
성모	95,950
원당	94,890
고성	94,060
광주중앙	92,770
동해목호	92,630
단원	90,900
으뜸	87,260
제상	87,130
제일	85,730
안덕	85,710
은평	85,070
애월	85,05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영종	84,310
장성우리	84,300
송라	84,000
대구대동	83,290
새청주	80,350
광주총장	79,000
송의	79,000
진천	77,070
화정	76,120
달월	75,690
대봉천	74,110
진도	74,030
상봉	73,590
분당	72,050
대명	71,580
설천	70,730
대전 YMCA	70,070
당진우리	68,590
원광중앙	68,470
한평	67,630
옥천	67,490
서울드림	66,940
신탄제일	66,620
고산	66,490
대구한마음	66,460
등촌	66,460
관동	66,210
예천한일	66,000
전평	65,810
송림중앙	65,000
담동	63,500
익산민음	62,700
전북서부향운노조	61,320
증평	61,000
부산제일	60,430
위미	59,145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여량	59,000
중문	58,430
영천	58,000
금정	57,680
전주대건	57,470
무학교회	55,730
신탁중앙회	54,080
남해	53,800
관악	51,210
부산부평	49,280
예산중부	49,000
진주중앙	48,930
완도제일	48,610
만수중앙	47,580
무학	47,130
광주중부	45,500
명성	44,340
대구태영	44,150
열린	42,830
정락	42,230
청십자	39,820
점진	39,690
대전서부	37,700
완주	37,620
봉상	36,000
광주동부	34,670
남서울	33,630
연수승도	33,000
울산중앙	32,950
금왕	32,380
든솔	31,850
동제주	31,180
신우	31,000
의성	30,620
광주신안	30,500
데레사	27,000

신탁명	누적 기부금(원)
경남중앙	26,640
노송	25,580
문화교육원	23,590
강서	23,520
평택성동	21,850
마산상공회의소	21,600
우리	21,000
동아대학교병원	20,410
세종중앙	17,660
여수제일	16,370
금산비단	15,910
동인천	14,670
양우	12,600
은평중앙	12,250
평택	11,370
불내	7,260
신제주	6,570

🕒 개인 일시기부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임현섭 복성신탁 前이사장	50,000,000
박영균 장안신탁 이사장	41,840,000
문철상 前신탁중앙회장	31,315,000
강재신 성남중앙신탁 前상임이사	30,000,000
최영훈 대구대서신탁 이사장	22,375,000
송재근 신탁중앙회 前사업대표이사	18,000,000
김윤식 신탁중앙회장	15,000,000
박종식 삼익신탁 이사장	13,300,000
주진우 구로신탁 상임감사	13,275,000
안병대 장안신탁 상임이사	12,098,030
김경섭 신탁중앙회 前사업대표이사	12,000,000
전영호 팔공신탁 이사장	12,000,000
신형선 제민신탁 상임감사	11,960,000
김경식 경남제일신탁 前상무	11,000,000
이형목 성가신탁 前이사장	10,000,0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장병용 신탁중앙회 前검사감독이사	10,000,000
김영순 천안우리신탁 이사장	9,670,000
문실 신탁중앙회 차장	8,921,000
이준호 신탁중앙회 팀장	7,300,000
정인철 신탁중앙회 IT이사	6,171,600
송재용 남청주신탁 이사장	6,005,000
박철규 구죽신탁 前상임이사	6,000,000
조종훈 대전동부신탁 이사장	6,000,000
이상만 신탁중앙회 부문장	5,830,000
손석조 신탁중앙회 본부장	5,400,000
백승재 강북신탁 前이사장	5,275,000
박규희 신탁중앙회 부문장	5,020,000
권혁철 충주야현신탁 이사장	5,000,000
서대근 군산중앙신탁 이사장	5,000,000
서정선 성동신탁 前이사장	5,000,000
오교호 서대구신탁 상임이사	5,000,000
이수균 대경신탁 이사장	5,000,000
이순애 해상신탁 前이사장	5,000,000
주원식 동서울신탁 상임감사	5,000,000
조채원 미리벌신탁 이사장	4,700,000
배봉숙 신탁중앙회 前디지털금융이사	4,500,000
윤종권 진주행복신탁 이사장	4,300,000
정은주 국립신탁 상무	4,130,000
이재천 광주중앙신탁 이사장	4,100,000
김경무 동촌신탁 이사장	4,000,000
우육현 신탁중앙회 관리이사	4,000,000
유영일 신탁중앙회 본부장	4,000,000
윤성근 신탁중앙회 기획이사	4,000,000
홍재호 여수참조은신탁 이사장	3,920,000
양준모 신탁중앙회 이사	3,900,000
양현숙 천안우리신탁 전무	3,500,000
조숙영 부산성익신탁 상임이사	3,500,000
정상균 신탁중앙회 前이사	3,275,000
이경익 신탁중앙회 순회감독역	3,140,000
김홍식 옥산신탁 전무	3,000,000
나영환 성남중앙신탁 이사장	3,000,0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박인식 청주중앙신탁 이사장	3,000,000
손성은 신탁중앙회 사업대표이사	3,000,000
윤익수 신탁중앙회 대외협력이사	3,000,000
이희준 신탁중앙회 검사감독이사	3,000,000
인옥순 전주동부신탁 이사장	3,000,000
정진목 신탁중앙회 본부장	3,000,000
박경순 삼성대소신탁 상무	2,800,000
양춘제 전주파티마신탁 이사장	2,575,000
손재완 신탁중앙회 부문장	2,500,000
장정은 안산신탁 과장	2,500,000
윤정희 신탁중앙회 차장	2,410,000
전찬구 이천신탁 이사장	2,370,000
정대상 동암신탁 이사장	2,300,000
고영철 광주문화신탁 이사장	2,000,000
김상규 무장신탁 前이사장	2,000,000
노원호 청주남부신탁 이사장	2,000,000
민병진 신탁중앙회 前검사감독이사	2,000,000
손미자 승학신탁 前이사장	2,000,000
송삼섭 인후신탁 전무	2,000,000
신필호 광혜원신탁 전무	2,000,000
유재철 대구태영신탁 이사장	2,000,000
이기찬 수지신탁 이사장	2,000,000
이문규 신탁중앙회 교수	2,000,000
이용욱 원당신탁 상임이사	2,000,000
이종근 대전삼성신탁 이사장	2,000,000
이종희 청원신탁 前이사장	2,000,000
정남태 대경신탁 상임이사	2,000,000
정명수 광주충장신탁 이사장	2,000,000
조수구 대구대동신탁 이사장	2,000,000
최정만 천안제일신탁 이사장	2,000,000
최종설 화성삼덕신탁 前이사장	2,000,000
한숙자 춘천신탁 상임이사	2,000,000
허만기 대구성서신탁 前이사장	2,000,000
황은옥 천안미소신탁 상무	1,970,000
손영진 한라신탁 부장	1,960,000
문홍식 정락신탁 상무	1,800,0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이성영 신탁중앙회 前부문장	1,800,000
임인수 신탁중앙회 본부장	1,800,000
이경선 경북오천신탁 부장	1,750,000
전현정 군산중앙신탁 전무	1,650,000
이새벌누리 도림신탁 대리	1,550,000
김용태 강구신탁 전무	1,500,000
손일남 복성신탁 상임감사	1,500,000
안용환 부산동래신탁 이사장	1,500,000
유정근 신탁중앙회 본부장	1,500,000
이문재 증평신탁 이사장	1,500,000
이환영 신탁중앙회 前관리이사	1,500,000
최재홍 이천신탁 상임이사	1,460,000
민영숙 신탁중앙회 차장	1,300,000
신태영 동작신탁 前상임감사	1,300,000
임태규 대아신탁 상임이사	1,300,000
김형관 신탁중앙회 前실장	1,279,000
박용남 신탁중앙회 부문장	1,200,000
장준오 신탁중앙회 前순회감독역	1,200,000
김선미 성남중앙신탁 전무	1,100,000
홍선영 신탁중앙회 차장	1,100,000
권영봉 세종우리신탁 前상임이사	1,000,000
김경수 신탁중앙회 전문이사	1,000,000
김상현 신탁중앙회 전문이사	1,000,000
김석록 강릉신탁 前이사장	1,000,000
김연준 신탁중앙회 前과장	1,000,000
김원준 한밭신탁 이사장	1,000,000
김윤복 원주밝음신탁 前부장	1,000,000
김인영 가나안신탁 상무	1,000,000
김재택 안동행복신탁 前이사장	1,000,000
김종백 대구성서신탁 이사장	1,000,000
김진하 제일신탁 前이사장	1,000,000
김태식 서원경신탁 前이사장	1,000,000
김한수 동대구신탁 이사장	1,000,000
명순구 신탁중앙회 전문이사	1,000,000
목성태 수지신탁 상임이사	1,000,000
박상선 신탁중앙회 순회감독역	1,000,0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박영범 문창신탁 상임감사	1,000,000
박영호 광안신탁 前상임이사	1,000,000
박진재 울산행복신탁 대리	1,000,000
박철동 서충주신탁 이사장	1,000,000
배상국 데려사신탁 이사장	1,000,000
서근철 중도신탁 상임이사	1,000,000
서동준 단양신탁 이사장	1,000,000
설정용 광주원광신탁 상무	1,000,000
송순용 신탁중앙회 前실장	1,000,000
송호남 울산태화신탁 前이사장	1,000,000
신정복 달구벌신탁 상임이사	1,000,000
안준상 당진우리신탁 이사장	1,000,000
윤정구 순천신탁 이사장	1,000,000
이상호 前신탁중앙회장	1,000,000
윤현구 동부산신탁 前이사장	1,000,000
이원준 신탁중앙회 전문이사	1,000,000
이창구 청양신탁 前이사장	1,000,000
이철호 경남중앙신탁 前이사장	1,000,000
익명기부	1,000,000
임상호 광명신탁 前이사장	1,000,000
임철수 천안미소신탁 이사장	1,000,000
장동영 원주밝음신탁 前상임이사	1,000,000
장일순 진주행복신탁 상임이사	1,000,000
전명자 구봉신탁 前이사장	1,000,000
정기희 담동신탁 前이사장	1,000,000
정두화 신탁중앙회 전문이사	1,000,000
조영동 청주남부신탁 상임감사	1,000,000
진석규 신탁중앙회 前사업대표이사	1,000,000
진승현 부산시중앙신탁 상임감사	1,000,000
최규석 신탁중앙회 前부장	1,000,000
최동석 신탁중앙회 순회감독역	1,000,000
최병인 신탁중앙회 본부장	1,000,000
하상근 경북오천신탁 이사장	1,000,000
하인호 동호신탁 이사장	1,000,000
한성희 분당신탁 이사장	1,000,000
허영진 신탁중앙회 단장	1,000,0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홍두한 대구대건신탁 이사장	1,000,000
김영하 신탁중앙회 본부장	900,000
김원철 원광중앙신탁 前상임이사	900,000
홍준화 양주신탁 전무	900,000
박여숙 금빛신탁 이사장	850,000
김기성 태릉신탁 前이사장	800,000
이권상 믿음신탁 차장	800,000
최영식 서울옴스신탁 상임감사	800,000
이건명 대성신탁 前이사장	770,000
김성주 광주웨슬리안신탁 상임감사	700,000
박순희 수지신탁 센터장	700,000
박찬길 신탁중앙회 교수	700,000
홍원표 천안신탁 상임감사	700,000
강연수 신탁중앙회 본부장	600,000
김선곤 신탁중앙회 팀장	600,000
김슬기 신탁사회공헌재단 팀장	600,000
김형선 신탁중앙회 본부장	600,000
장주영 청운신탁 차장	600,000
정진석 신탁중앙회 본부장	600,000
차민재 대전우리신탁 전무	600,000
최효근 신탁중앙회 前연수원장	600,000
임수정 우산신탁 전무	590,000
배재홍 금모래신탁 이사장	575,000
이성훈 신탁중앙회 팀장	519,000
강범수 신탁중앙회 부문장	500,000
강형민 신탁중앙회 본부장	500,000
권영호 안동행복신탁 이사장	500,000
권오영 단양신탁 前이사장	500,000
김경환 목포신탁 차장	500,000
김광영 신탁중앙회 前팀장	500,000
김금열 안동신탁 前부장	500,000
김남철 신탁중앙회 前단장	500,000
김상범 신탁중앙회 부문장	500,000
김수철 신탁중앙회 본부장	500,000
김영수 신탁중앙회 본부장	500,0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임규배 총절로신협 과장	120,000	이현주 대구성서신협 부장	100,000
정신국 총절로신협 부장	120,000	이혜란 청십자신협 과장	100,000
김경윤 은평제일신협 차장	115,030	이홍세 대구성서신협 이사	100,000
강은희 대전대덕신협 前부장	100,000	임습기 세종우리신협 과장	100,000
공정현 진천신협 前부장	100,000	장희성 군산중앙신협 부장	100,000
권명숙 대구성서신협 감사	100,000	전성철 동암신협 상임감사	100,000
권태현 청십자신협 전무	100,000	정경철 서청주신협 상임감사	100,000
김경태 신협중앙회 前반장	100,000	정영준 완월천주교회신협 前이사장	100,000
김남식 신협중앙회 前부장	100,000	정예람 청십자신협 前서기	100,000
김은비 양양신협 서기	100,000	정용태 서대구신협 부이사장	100,000
김재희 청십자신협 前주임	100,000	정현석 연수송도신협 상임이사	100,000
김종구 대명신협 이사장	100,000	조혜진 대구성서신협 차장	100,000
김주용 청십자신협 前차장	100,000	조효지 경남제일신협 차장	100,000
김지훈 청십자신협 前주임	100,000	진용기 가톨릭수원교구신협 전무	100,000
김해숙 풍양신협 전무	100,000	최무화 등촌신협 부장	100,000
류효석 대경신협 대리	100,000	최중순 무학신협 前전무	100,000
박재년 청운신협 차장	100,000	최한근 대구성서신협 감사	100,000
부영식 제상신협 상무	100,000	함중순 사북신협 前전무	100,000
서성영 대구성서신협 前주임	100,000	여은주 우리신협 과장	70,000
손영찬 고창신협 이사장	100,000	장석용 여수참조은신협 상임감사	60,000
신영중 영주영남신협 前이사장	100,000	정미경 한평신협 대리	60,000
신헌주 남천천신협 前전무	100,000	최종문 병점신협 감사	60,000
심필자 광명신협 前전무	100,000	강성수 금빛신협 前이사장	50,000
원광태 청십자신협 前상무	100,000	김정근 병점신협 이사	50,000
유태혁 대전대흥신협 대리	100,000	노현경 대구성서신협 前서기보	50,000
윤미숙 한별신협 상무	100,000	박세경 강서신협 전무	50,000
윤용석 대구성서신협 이사	100,000	백미영 광주우리신협 상무	50,000
이금성 국립신협 전무	100,000	손소라 대구성서신협 前서기	50,000
이금철 여수참조은신협 상무	100,000	신희정 가톨릭수원교구신협 前주임	50,000
이대길 청십자신협 이사장	100,000	안창훈 대구성서신협 과장	50,000
이배승 세모신협 부장	100,000	이세화 장성신협 대리	50,000
이일영 흥천신협 이사장	100,000	이은유 광주우리신협 前주임	50,000
이정민 광주우리신협 차장	100,000	이장복 광장신협 前대리	50,000
이철수 양양신협 前이사장	100,000	익명기부	50,000
이필운 대구성서신협 이사	100,000	전가혜 대구성서신협 前주임	50,000
이혜련 청십자신협 前대리	100,000	정현주 대구성서신협 대리	50,0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추현정 순천두레신협 차장	48,300
유혜자 대화신협 前차장	35,220
윤다정 광주우리신협 대리	30,000
이미선 광주우리신협 前주임	30,000
임진경 광주우리신협 부장	30,000
황정희 한우리신협 차장	30,000
차민 광주우리신협 주임	20,000
고진훈 인동신협 前부장	10,000
장종환 신협중앙회 과장	10,000
김영민 총절로신협 과장	6,000
김은경 총절로신협 前사원	6,000
강나래 인동신협 前서기보	5,000
김윤섭 부천소망신협 前서기	5,000
김태진 인동신협 前주임	5,000
김혜련 인동신협 前서기	5,000
서미숙 인동신협 前사원	5,000

기타 일시기부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김천신협 조합원 일동	135,121,676
대동신협 지정기탁 단체기부	55,890,000
차인표 前홍보대사	50,000,000
전국실무책임자협의회	49,800,881
전국상임이사협의회	32,320,000
연수송도신협 동호회	26,404,060
제주 신사회	22,000,000
김홍빈과 희망만들기	20,000,000
신협전국실무책임자일동	20,000,000
신협여성이사장협의회	13,000,000
전국상임감사협의회	13,000,000
경남동부신협 직원 일동	10,000,000
제주 서사회	9,182,580
전주한지협동조합	9,000,000
신협벽산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8,589,020
신협대학 5기 졸업생 일동	8,308,3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서울상임이사협의회	8,000,000
성심신협 홍보위원회	7,350,000
사회적예탁금 예금자기여분	7,222,019
신협공제 마스터즈	6,800,000
2018 인천경기 신협인 한마음 전진대회	6,704,600
신협MBA 6기 일동	6,270,000
인천 제물포평의회	6,000,000
전국기독교신협이사장협의회	6,000,000
전북실무책임자협의회	6,000,000
전북신협 리더스 다이제스트	5,411,840
대구경북축구단	5,000,000
백암신협 두손모아봉사단	5,000,000
속초신협 임직원 일동	5,000,000
신협밴드	5,000,000
전국치과의사신협	5,000,000
전북신협 골프대회	5,000,000
전실험 제18대운영위원일동	5,000,000
제주 신우회	5,000,000
광주전남지역 상생발전협의회	4,930,000
(취컴원	4,105,500
전북상생발전협의회	4,000,000
제주도신협축구단	4,000,000
전북신협 따따블 캠페인	3,820,000
경기북부평의회	3,500,000
대전충남FC 축구단 일동	3,500,000
2016 인천경기 신협인 한마음전진대회	3,467,315
최순자 서해중앙신협 조합원	3,173,960
경기실무책임자협의회	3,000,000
신협부산축구동호회	3,000,000
인천두손모아봉사단	3,000,000
전국지역협의회장단	3,000,000
전북신협 여성상임이사 및 실무책임자협의회	3,000,000
전북실무책임자협의회 및 전북신협축구단	3,000,000
충절로신협 조합원 일동	3,000,0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원주참빛신협 임직원일동	2,713,353
진해복음신협 홍보위원회	2,500,000
구로신협 산악회 일동	2,410,000
제민신협 본점골프동호회	2,410,000
중앙회 소리모아합창단	2,078,934
김기봉	2,000,000
대구대동신협 임원 일동	2,000,000
대구중부평의회	2,000,000
신협서울축구단	2,000,000
신협중앙회99동기회	2,000,000
인천실무책임자협의회	2,000,000
전국여직원회	2,000,000
전국직장신협협의회	2,000,000
한밭대 금융경제학과 일동	2,000,000
청주중부신협 임직원 일동	1,950,000
등대회 (대전지역 신협 여직원 모임)	1,740,000
꿈밀회 (목포지역 신협 여직원 모임)	1,700,000
새서울신협 조합원 일동	1,590,000
Club신협&FP	1,571,000
신협경남지역협의회	1,509,770
숨비소리(제주남부여직원회)	1,500,000
의왕신협 조합원 일동	1,487,500
경기가톨릭이사장협의회	1,400,000
24년 연수원 신임이사장 교육생 일동	1,355,000
신협공제 아카데미	1,300,000
전남지역이사장협의회	1,300,000
서귀포신협 자선골프동호회	1,240,000
대전충남여성실무책임자협의회	1,200,000
신협중앙회95동기회	1,200,000
대성신협 조합원 일동	1,150,000
충주한울타리목련회	1,126,000
서울지역 신협인 한마음대회	1,100,000
장안신협 조의훈 조합원	1,076,000
대구경북상임이사협의회	1,050,000
강화신협주부산악회	1,000,0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국립신협산악회	1,000,000
군산지역 신협 임직원일동	1,000,000
김숙희	1,000,000
대구경북 공제지도역 일동	1,000,000
대전충남상임이사협의회	1,000,000
동암신협 임직원일동	1,000,000
부울경상임이사협의회	1,000,000
새안양신협 임직원 일동	1,000,000
서귀포부녀회	1,000,000
서울채권관리협의회	1,000,000
신협MBA 10기 일동	1,000,000
신협MBA 15기 일동	1,000,000
신협발전연구회	1,000,000
신협중앙회05동기회	1,000,000
신협중앙회94동기회	1,000,000
인천경기상임이사협의회	1,000,000
전북신협 골프동호회	1,000,000
전북여성 실무책임자협의회	1,000,000
제주중앙신협 조합원	1,000,000
충남북부 이사장 평의회	1,000,000
충북신협이사장일동	1,000,000
한밭대학교 동문회	1,000,000
송림중앙신협 임직원 일동	950,000
24년 연수원 신임이사장 증설반 교육생 일동	900,000
디엔솔루션즈앤한화애어로 스페이스신협 직원 일동	899,150
이강완 청량리신협 조합원	895,000
대경신협 조합원 일동	880,000
2019년 해외봉사단 일동	860,000
옥산신협 임원일동	850,000
제민신협 도남골프동호회	840,000
신협MBA 13기 일동	800,000
연수원건축추진반	800,000
반월신협 조합원 기부	726,000
18년 연수원 1차 신임이사장 교육생 일동	690,0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17년 연수원 1차 상임임원 교육생 일동	680,000
블라썸여좌사회적협동조합	602,600
대한연탄	600,000
제주동부임직원 일동	600,000
23년 연수원 제2차 전략적의사결정 교육생 일동	580,000
대구실무책임자협의회	543,921
고권성 제민신협 조합원	500,000
광주전남상임이사협의회	500,000
대동신협 지정기탁 임직원기부	500,000
대전여신실무연구회	500,000
대전충남신협야구단	500,000
동암신협 임직원 일동	500,000
순천임직원 일동	500,000
신협MBA 14기 일동	500,000
신협MBA 19기 일동	500,000
신협중앙회08동기회	500,000
안산중앙신협 사업위원회 일동	500,000
천안미소신협 임직원 일동	500,000
충북상임이사협의회	500,000
15년 연수원 제2차 실무책임자교육생 일동	474,400
신송회	467,570
신협중앙회 11층 모금함	464,313
㈜청주엘마트	457,660
이선근 천안중앙신협 조합원	418,150
18년 연수원 서번트리더십 교육생 일동	400,000
인천제물포댄스팀	400,000
전북상임이사협의회	400,000
전국신협축구동호회	395,000
천안우리신협 조합원 일동	380,360
화성제일신협 임직원 하계수련회	375,870
21년 연수원 제1차 지점장 역량강화 교육생 일동	370,000
16년 연수원 1차 직원리더십교육생 일동	368,0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16년 연수원 2차 지점장 역량강화교육	362,000
23년 연수원 제3차 전략적의사결정 교육생 일동	355,600
19년 연수원 예비간부A반 교육생 일동	350,000
18년 연수원 2차 신입이사장 교육생 일동	348,400
Club신협&FP동호회	328,500
19년 연수원 전략적의사결정 교육생 일동	310,000
대전지역 신협 일동	310,000
강원상임이사협의회	300,000
육현창 노송신협 이사	300,000
전북신협 공제 플레이어 1기	300,000
조원진	300,000
중앙회 마라톤 동호회	300,000
16년 연수원 제1차 신입 상임임원교육	288,000
19년 연수원 신입 이사장 교육생 일동	283,800
화성우리신협 어린이조합원	280,000
20년 연수원 신입이사장 B반 교육생 일동	277,520
제이식자재마트	261,780
승학신협 여성대학 일동	253,355
경기중평다솜회	252,014
18년 연수원 기획실무1차 교육생 일동	251,650
21년 연수원 서번트리더십 교육생 일동	244,400
24년 연수원 서번트 리더십 교육생 일동	240,000
17년 연수원 2차 지점장역량강화 교육생 일동	215,000
호명신협 조합원 일동	214,050
광혜원신협 직원일동	210,000
구죽신협 조합원 일동	210,000
봉평신협 직원일동	204,480
16년 1차 예비간부직원 교육생 일동	200,000
김철선 진주중앙신협 조합원	200,000
달월신협 여직원회	200,0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둔산신협 조합원	200,000
유가영 김포신협 조합원	200,000
유은재 김포신협 조합원	200,000
이환양	200,000
최재영 안산중앙신협 조합원	200,000
충남복실무책임자협의회 일동	200,000
19년 연수원 1차 조직관리 리더십 교육생 일동	190,100
부산시중앙 생활체육동호회	187,340
노대웅 비아신협 조합원	181,890
김명희 미소신협 조합원	165,120
허순희 풀무신협 조합원	163,000
19년 연수원 여신상품해설 교육생 일동	161,800
광혜원신협 여자산악회	160,000
15년 연수원 제1차 감사실장 및 검사원 교육생 일동	159,300
15년 연수원 제3차 여신심사역 보수 교육생 일동	158,100
17년 연수원 1차 서번트리더십 (이사장) 교육생 일동	150,000
신협MBA 22기 일동	150,000
연수송도신협 임직원 일동	150,000
동성친목회	147,335
18년 제1차 예비간부 교육생 일동	142,000
익명	141,800
서대구신협 조합원 일동	135,650
19년 연수원 2차 감정평가 교육생 일동	129,000
19년 연수원 1차 감정평가실무 교육생 일동	126,000
이윤석 성심신협 조합원	120,000
신협연수원 교수부	116,900
양촌신협 영마트	115,120
익명	112,500
19년 연수원 2차 여신상품해설 교육생 일동	109,400
16년 연수원 2차 실무책임자 교육생 일동	108,200
16년 연수원 2차 경영분석과정 교육생 일동	108,0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19년 연수원 2차 감사능력향상 교육생 일동	106,500
신우신협 조합원 돌레길 동호회	106,034
안병임 당감신협 조합원	104,260
삼익신협 조합원	102,000
15년 연수원 제2차 간부직원자격취득 A반 일동	100,000
김은정	100,000
구본식 군산월명신협 조합원	100,000
박철희 김포신협 조합원	100,000
박시운 김포신협 조합원	100,000
안현수 화성우리신협 조합원	100,000
원광중앙신협직원상조회	100,000
정영숙 김포신협 조합원	100,000
조계자 회원신협 조합원	100,000
20년 연수원 1차 상임임원 교육생 일동	95,000
명성신협 조합원	90,170
15년 연수원 중임이사장 교육생 일동	90,000
장안&전주파티마신협 직원 일동	90,000
17년 연수원 1차 감사능력향상 A반 교육생 일동	88,000
17년 연수원 2차 여신심사역보수 교육생 일동	85,000
중흥신협 어린이조합원	80,000
19년 연수원 2차 여신업무 방법서해설 교육생 일동	79,000
오창신협 직원일동	77,000
순천성동신협 조합원	76,000
김현미 한밭신협 조합원	66,890
16년 1차 BSC(성과관리) 교육생 일동	64,000
최기자 군산중앙신협 조합원	61,980
15년 연수원 BSC교육생 일동	60,500
17년 연수원 감사능력향상 B반 교육생 일동	60,000
장성신협 조합원 일동	60,000
17년 연수원 2차 실무책임자 교육생 일동	59,000
17년 연수원 3차 경영분석 교육생 일동	57,0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무명기부	56,640
경기광주신협 조합원	54,730
광명지역아동센터	52,460
탑할인마트 대흥점	51,300
16년 3차 채권관리 교육생 일동	51,000
20년 연수원 경영분석 1차 교육생 일동	50,000
김향옥 미리밭신협 조합원	50,000
신경철 경북오천신협 조합원	50,000
정선용 행복신협 조합원	50,000
정선임	50,000
조윤정	50,000
조재경	50,000
18년 연수원 1차 금융마케팅실무 교육생 일동	49,300
신협중앙회 14층 모금함	49,210
16년 1차 지도금융전문가양성 교육생 일동	48,000
당감신협 조합원	47,720
회원신협 전임원	47,340
옥천신협 조합원	47,260
연수원 여신관계법령 1차 교육생 일동	47,120
15년 연수원 제4차 여신심사역 보수 교육생 일동	46,000
금산비단신협 조합원	44,730
우리신협 조합원	42,700
18년 연수원 2차 공제교육생 일동	42,200
덕산삼성외과의원	41,240
17년 1차 중임이사장 교육생 일동	41,000
주순희 삼척신협 조합원	40,510
16년 1차 자금운용 교육생 일동	40,000
16년 2차 BSC성과관리 교육생 일동	40,000
17년 연수원 1차 실무책임자 교육생 일동	39,000
한순복 서라벌신협 조합원	36,380
15년 연수원 제2차 여신심사역 보수 B반 교육생 일동	36,000

기부자	누적 기부금(원)
17년 연수원 1차 지점장역량강화 교육생 일동	35,000
박성남 광주중부신협 조합원	34,700
원주제일신협 조합원	33,240
채종성 반월신협 조합원	31,250
안상림	30,000
16년 연수원 1차 중견직원 능력개발 교육생일동	29,800
이영재 정릉신협 조합원	28,050
이명순 성심신협 조합원	27,740
채준석 서신신협 조합원	24,730
17년 연수원 2차 테리더십 (실무책임자) 교육생 일동	20,000
김희용 복수원신협 조합원	20,000
이숙희 동서울신협 조합원	20,000
회원신협 조합원	20,000
연수송도신협 파크골프동호회	14,220
나정순	12,000
강진영	11,240
양주365플러스편의점	10,500
홍향표 경기광주신협 조합원	8,480
김미애 한마음신협 조합원	8,280
최가연	7,040
강도성 전주성가신협 조합원	6,457
위귀아	6,320
김호남 예산신우신협 조합원	5,310
라이프온상품구매	4,000
송금실 중흥신협 조합원	3,100
군산반석신협 조합원	2,830
정덕심	2,280
유영애 분당신협 조합원	2,210
김동석 비아신협 조합원	1,819

● 개인 정기기부

가미경	가명길	가명진	가운호	강준덕	고경호	고영순	고 현	곽진영	권기병	권순정	권창원	김강선	김광식	김기백	김남훈	김도형	김명란	김민경	김보경	김서리	김성순	김소중	김승준	김연정	김영준	김용식	김윤태	김익래	김재영
가정식	가명훈	강소현	강은주	강태욱	고나라	고영춘	고혜영	곽현기	권기표	권승욱	권태홍	김건우	김광우	김기성	김다람	김동관	김명섭	김민기	김보미	김서운	김성애	김소희	김승환	김연지	김영철	김용완	김윤대	김익환	김재욱
가철진	가미라	강술이	강은혜	강태원	고나라	고영해	고희숙	곽현찬	권기현	권연남	권하영	김건희	김광자	김기수	김다솜	김동기	김명수	김민서	김보섭	김석록	김성엽	김순석	김시연	김연태	김영태	김용인	김윤복	김인경	김재유
갈민희	가미선	강수관	강인구	강태호	고다영	고예지	공명준	곽희범	권나영	권영민	권해경	김경남	김광준	김기영	김다연	김동률	김명순	김민성	김보영	김석주	김성욱	김술림	김시운	김연희	김영현	김용재	김윤석	김인기	김재준
감승기	가미순	강수근	강인규	강태희	고동석	고완석	공민선	구경모	권난희	권영섭	권해숙	김경덕	김광중	김기욱	김다영	김동미	김명식	김민수	김보윤	김석현	김성완	김술민	김시웅	김 영	김영혜	김용제	김윤섭	김인범	김재천
강건석	가미현	강수란	강인기	강판수	고동완	고용문	공병돈	구기정	권대규	권영식	권해미	김경미	김광태	김기웅	김다은	김동석	김명옥	김민식	김복수	김석희	김성운	김승선	김신애	김영경	김영환	김용철	김윤숙	김인성	김재현
강경목	강민구	강수진	강인영	강하룡	고동화	고원섭	공보현	구다은	권대주	권영철	권혁기	김경민	김광훈	김기원	김다현	김동섭	김명유	김민아	김복순	김신경	김성은	김승태	김신연	김영곤	김영훈	김용태	김윤식	김인수	김재홍
강경미	강민석	강순덕	강자연	강하임	고동환	고원혁	공선희	구동희	권대훈	권영호	권혁달	김경범	김교성	김기은	김다혜	김동수	김명재	김민안	김봉구	김선곤	김성인	김수경	김신혜	김영국	김영희	김윤태	김윤용	김인숙	김재훈
강경아	강민성	강순심	강재신	강해미	고명선	고유라	공영국	구명선	권도경	권영희	권혁도	김경석	김교혁	김기정	김다희	김동숙	김명정	김민영	김봉기	김선구	김성일	김수기	김신희	김영규	김예람	김용학	김윤재	김인순	김정겸
강경애	강민우	강순열	강재연	강해지	고명순	고유미	공우필	구미애	권도영	권예슬	권혁원	김경신	김 구	김기중	김단연	김동영	김명주	김민욱	김봉남	김선국	김성재	김수동	김실비아	김영균	김예련	김용현	김윤정	김인술	김정곤
강경주	강민재	강승건	강재은	강혁진	고문기	고유배	공원규	구미진	권도형	권오건	권혁신	김경수	김구봉	김기중	김달호	김동오	김명중	김민용	김봉득	김선균	김성전	김수미	김아름	김영길	김예린	김용호	김윤주	김인식	김정규
강현호	강민정	강승연	강재필	강현모	고문호	고유성	공이한	구민영	권도훈	권오산	권현재	김경숙	김구영	김기창	김대규	김동완	김명철	김민재	김봉선	김선근	김성제	김수민	김아빈	김영남	김예성	김용화	김윤진	김인아	김정근
강경화	강민주	강승원	강전만	강현목	고미숙	고은별	공재택	구분기	권동건	권오성	권해경	김경식	김구환	김기천	김대민	김동우	김명현	김민정	김봉운	김선기	김성조	김수빈	김아성	김영대	김예슬	김용환	김윤창	김인영	김정기
강경희	강민지	강승진	강전욱	강현수	고미애	고은빛	공정현	구분은	권동오	권오연	권해린	김경아	김국도	김기탁	김대선	김동욱	김명호	김민주	김봉채	김선길	김성주	김수아	김아영	김영덕	김예은	김용훈	김윤재	김인옥	김정길
강계승	강민호	강승희	강정구	강현숙	고미영	고은석	공춘배	구선희	권두리	권오영	권해정	김경애	김근일	김기태	김대성	김동원	김명환	김민준	김봉천	김선미	김성준	김수연	김아현	김영도	김예진	김용희	김윤환	김인자	김정내
강광식	강범수	강신경	강정석	강현정	고미희	고은선	공혜숙	구성근	권문근	권용국	권해진	김경업	김권준	김기현	김대수	김동위	김명훈	김민지	김봉호	김선배	김성중	김수열	김안수	김영만	김예희	김우곤	김윤희	김인철	김정돈
강구복	강병구	강신아	강정신	강현철	고민정	고은성	곽건호	구성모	권문성	권용래	권효주	김경연	김귀순	김기형	김대연	김동일	김문숙	김민철	김부희	김선복	김성진	김수용	김애경	김영모	김옥경	김우영	김은경	김인태	김정락
강국근	강병기	강신아	강정실	강현철	고병성	고은숙	곽경근	구성현	권미소	권용재	권효주	김경열	김귀순	김기호	김대용	김동주	김문순	김민형	김부규	김선숙	김성철	김수원	김애림	김영미	김옥미	김우민	김은미	김인희	김정만
강권호	강병수	강신태	강정애	강형구	고보순	고은순	곽경래	구소현	권미소	권용현	금경준	김경욱	김귀훈	김기화	김대우	김동진	김문영	김민호	김부돌	김선순	김성탄	김수인	김애숙	김영민	김옥선	김우석	김은비	김일곤	김정미
강규선	강병일	강신혜	강정오	강형무	고보승	고은임	곽경열	구양서	권미숙	권유경	김길호	김경운	김귀리	김기환	김대원	김동찬	김문옥	김민희	김부연	김선실	김성태	김수정	김애연	김영배	김옥숙	김우성	김은선	김일규	김정민
강근	강병주	강아름	강정우	강형민	고보훈	고은주	곽경호	구연희	권미영	권유성	금노웅	김경운	김규범	김기훈	김대장	김동파	김문정	김마을	김부용	김선애	김성학	김수지	김애자	김영범	김옥중	김우진	김은성	김일도	김정분
강금숙	강병준	강여울	강정원	강형수	고봉균	고은총	곽경희	구용진	권미정	권윤호	금단은	김경인	김규석	김기홍	김대정	김동현	김문찬	김배균	김비오	김선영	김성현	김수진	김양곤	김영빈	김완배	김우혁	김은수	김일섭	김정석
강금이	강병철	강여진	강정임	강혜란	고봉기	고은혜	곽도신	구우석	권민정	권윤희	금동서	김경일	김규섭	김길남	김대준	김동호	김문희	김병구	김빛나	김선용	김성호	김수천	김양근	김영삼	김완섭	김우현	김은숙	김일에	김정선
강기수	강병호	강연수	강조행	강혜정	고봉섭	고은희	곽도한	구은정	권민호	권은경	금문희	김경임	김규식	김길량	김대중	김동화	김미경	김병재	김삼균	김선우	김성훈	김수철	김양선	김영석	김완수	김우형	김은실	김일용	김정섭
강기원	강보경	강연숙	강종대	강혜지	고봉성	고이주	곽동현	구자경	권민희	권은미	금병오	김경자	김규열	김길봉	김대혁	김동환	김미나	김병주	김삼미	김선웅	김성희	김수현	김양수	김영선	김완영	김운경	김은아	김일환	김정수
강기천	강보람	강연지	강준규	강호길	고봉진	고인귀	곽동현	구자만	권병길	권은선	금유진	김경주	김규태	김길상	김대현	김동훈	김미라	김병준	김삼규	김선주	김세경	김수형	김양우	김영수	김완우	김 용	김은애	김자경	김정숙
강길원	강봉관	강영남	강준혁	강호정	고석상	고재영	곽명지	구자일	권보민	권은정	금희섭	김경진	김규형	김길호	김대형	김두성	김미란	김병중	김상기	김선중	김세규	김수희	김양욱	김영숙	김완주	김원겸	김은영	김자연	김정식
강나래	강봉도	강영미	강지수	강효호	고석준	고정연	곽병호	구점식	권보상	권익선	기경선	김경철	김규호	김꽃남	김대환	김두철	김미소	김병곤	김상돈	김선화	김세출	김숙희	김양진	김영시	김완태	김원교	김은옥	김자현	김정아
강나혜	강상환	강영옥	강지영	강효순	고석준	고정연	곽상대	구정모	권 봄	권 일	기경선	김경태	김근만	김나경	강나혜	강서연	강영지	강지윤	강효원	고선종	고정욱	곽선영	구제환	권세봄	권재각	기남후	김경하	김근섭	김나라
강남훈	강석구	강영하	강지은	강훈진	고선희	고정훈	곽선정	구지원	권색별	권재일	기정근	김경한	김근수	김나라	강다솜	강석권	강예나	강지혜	강홍수	고성주	고재영	곽세진	구진숙	권성순	권재현	기현범	김경현	김근영	김나영
강달수	강석천	강예슬	강진구	강희경	고성협	고종인	곽숙기	구춘성	권성욱	권정미	길경도	김경호	김근호	김나은	김대성	김득수	김미아	김병돈	김상범	김철호	김세인	김순주	김에스터	김영아	김 용	김원준	김은진	김재관	김정우
강대균	강석호	강예은	강진기	강희석	고수경	고주완	곽순주	구효정	권성자	권정아	길기수	김경화	김금란	김나현	김대준	김대혁	김미아	김병삼	김상수	김성경	김세정	김순진	김여울	김영애	김용길	김원중	김은하	김재구	김정운
강대성	강선미	강옥자	강진향	강희정	고수현	고준애	곽시내	국명근	권성화	권정일	길다혜	김경환	김금빈	김나형	김대성	김대혁	김미아	김병삼	김상수	김성관	김세중	김순천	김여진	김영오	김용구	김원철	김은혜	김재기	김정은
강태훈	강선욱	강완규	강진훈	강희창	고승규	고중석	곽영복	국민성	권성희	권정희	길미욱	김경훈	김금수	김난밀	김대준	김대혁	김미아	김병삼	김상수	김성규	김세현	김승환	김연겸	김영은	김용권	김원태	김은호	김재동	김정의
강도균	강선우	강용운	강진홍	강권수	고승연	고중현	곽예선	국영호	권세린	권주영	길민제	김경희	김금숙	김난희	김대준	김대혁	김미아	김병삼	김상수	김성기	김세호	김슬기	김연경	김영완	김용규	김원환	김은화	김재룡	김정인
강도원	강성규	강우영	강진희	강그네	고승찬	고진숙	곽 용	국윤혜	권세진	권준식	길전중	김계환	김금열	김 남	김대준	김대혁	김미아	김병삼	김상수	김성남	김세홍	김슬아	김연국	김영용	김용기	김유경	김은희	김재립	김정주
강도형	강성무	강우구	강창모	강성현	고아라	고진아	곽용주	국중민	권소진	권중추	길해경	김고운	김금용	김남곤	김대준	김대혁	김미아	김병삼	김상수	김성관	김세희	김승구	김연규	김영우	김용길	김유근	김은구	김재명	김정중
강도희	강성미	강원웅	강창민	강철구	고여향	고진훈	곽원섭	국지현	권소희	권중홍	길현호	김 곤	김금자	김남기	김대준	김대혁	김미아	김병삼	김상일	김성미	김소라	김승길	김연덕	김영웅	김용덕	김유나	김은만	김재석	김정진
강동국	강성민	강원일	강창열	강태구	고영광	고진희	곽은주	권경숙	권수진	권지승	길가경	김관식	김기탁	김남석	강동길	강성민	강유리	강창진	고건혁	고영대	고창규	곽재혁	권경희	권수현	권지은	김가영	김광록	김기동	김남식
강동민	강성민	강유리	강창진	고건혁	고영대	고창규	곽재혁	권경희	권수현	권지은	김가영	김광록	김기동	김남식	강동민	강성숙	강유림	강창훈	고경남	고영미	고창세	곽정규	권구범	권순경	권지은	김가영	김광록	김기동	김남식
강동연	강성식	강유현	강채원	고경렬	고영민	고태암	곽정임	권구성	권순규	권지현	김가은	김광민	김기란	김남우	강동연	강성식	강유현	강채원	고경렬	고영민	고태암	곽정임	권구성	권순규	권지현	김가은	김광민	김기란	김남우
강동우	강성실	강윤경	강재하	고경선	고영빈	고태호	곽정훈	권근아	권순미	권진상	길가현	김광선	김기룡	김남인	강동우	강성실	강윤경	강재하	고경선	고영빈	고태호	곽정훈	권근아	권순미	권진상	길가현	김광선	김기룡	김남인
강동환	강성진	강윤지	강천식	고경주	고영섭	고하영	곽정희	권금옥	권순애	권진선	길가희	김광섭	김기면	김남창	강동환	강성진	강윤지	강천식	고경주	고영섭	고하영	곽정희	권금옥	권순애	권진선	길가희	김광섭	김기면	김남창
강래순	강성호	강윤철	강철우	고경현	고영수	고 혁	곽지은	권금자	권순웅	권진욱	길갑성	김광수	김기모	김남철	강래순	강성호	강윤철	강철우	고경현	고영수	고 혁	곽지은	권금자	권순웅	권진욱	길갑성	김광수	김기모	김남철

김정희	김주연	김지효	김창집	김태은	김현남	김혜리	김효은	나의성	남주희	노준상	류미지	명지영	문인호	민경상	박경하	박다남	박미향	박상아	박성재	박승기	박영희	박은장	박정호	박준성	박창민	박현철	방계혁	배성열	백도선																																																													
김정훈	김주열	김지훈	김창현	김태이	김현미	김혜린	김효일	나의영	남준모	노진	류미화	명지혜	문영주	민경수	박경화	박다혜	박미현	박성열	박성준	박승아	박예림	박은정	박정화	박준영	박창석	박현호	방다연	배성철	백두현																																																													
김정희	김주영	김진	김창호	김태정	김현보	김혜림	김효정	나재형	남준영	노진수	류민아	모경책	문영태	민경옥	박경희	박대규	박미혜	박상옥	박성진	박승교	박예슬	박은주	박정환	박준용	박창영	박현화	방덕진	배술빈	백미																																																													
김재만	김주자	김진교	김창훈	김태진	김현석	김혜미	김효주	나하람	남지영	노창해	류병욱	모다연	문영호	민경원	박계숙	박대석	박미화	박상완	박성찬	박승기	박예은	박은지	박정후	박준재	박창완	박형국	방문경	배송진	백미선																																																													
김제현	김주전	김진국	김재룡	김태현	김현선	김혜민	김효준	나학엽	남진경	노충환	류선덕	모병하	문영희	민경자	박계준	박대학	박미희	박상용	박성철	박승두	박예지	박은진	박정훈	박준현	박창우	박형근	방미영	배수근	백미애																																																													
김조립	김주현	김진기	김제민	김태형	김현섭	김혜빈	김효진	나현옥	남진영	노태엽	류선주	모수용	문옥천	민경주	박관수	박덕중	박민규	박상우	박성하	박승명	박예진	박은혜	박정희	박준호	박창환	박형우	방성균	배수봉	백미영																																																													
김종갑	김주형	김진덕	김제연	김태홍	김현수	김혜신	김후락	나현정	남진희	노태현	류성근	모진수	문완석	민관식	박관용	박덕주	박민균	박상옥	박성학	박승원	박옥순	박은희	박제민	박준홍	박재수	박형준	방성수	배수지	백성현																																																													
김종구	김주호	김진만	김제영	김태환	김현숙	김혜성	김훈	나혜선	남척희	노혜열	류성철	모찬배	문용식	민광기	박관혁	박덕창	박민상	박상운	박성현	박승조	박옥희	박의선	박제용	박지민	박재완	박형진	방소라	배순덕	백석빈																																																													
김종규	김주환	김진석	김제원	김태희	김현아	김혜숙	김훈동	나화연	남태옥	노현경	류수빈	목성태	문유빈	민동기	박광문	박동규	박민석	박상은	박성희	박승현	박완기	박인규	박종관	박지선	박철	박혜경	방영선	배승경	백선미																																																													
김종근	김주희	김진선	김제은	김택형	김현옥	김혜옥	김훈옥	남광모	남형미	노현석	류승권	목요한	문윤석	민동익	박광우	박동석	박민섭	박상준	박세돈	박시훈	박용건	박인숙	박종국	박지성	박철동	박혜란	방영희	배안식	백선화																																																													
김중대	김준교	김진섭	김제만	김택화	김현우	김혜원	김훈정	남광호	남형창	노혜광	류승훈	문경록	문은오	민리나	김광현	박동선	박민연	박상진	박세련	박시현	박용남	박인옥	박종길	박지연	박철우	박혜린	방윤정	배영복	백성호																																																													
김중덕	김준기	김진술	김천수	김푸름	김현욱	김혜인	김홍도	남궁균	남희우	노혜주	류양순	문경연	문의식	민병문	박광구	박동섭	박민영	박상혁	박세영	박시훈	박용만	박인우	박종남	박지영	박철원	박혜미	방은석	배웅식	백성희																																																													
김중렬	김준년	김진수	김천식	김필재	김현율	김혜정	김홍섭	남궁미희	남희정	노혜진	류연준	문경임	문이슬	민병원	박교순	박동엽	박민우	박상현	박세웅	박신기	박용배	박일남	박종대	박지예	박철홍	박혜민	방정아	배원남	백소현																																																													
김중만	김준래	김진숙	김천웅	김하경	김현정	김혜중	김희경	남궁준	남희준	노희경	류안영	문경환	문정민	민상돈	박귀열	박동중	박민주	박상휘	박세원	박신애	박용생	박임용	박종득	박지원	박철환	박혜순	방정현	배원호	백송																																																													
김중문	김준명	김진순	김천일	김하나	김현주	김혜지	김희광	남궁찬	노경덕	노희성	류은지	문경희	문정숙	민상영	박규민	박동주	박민지	박상희	박세진	박신영	박용성	박장규	박종란	박지윤	박철희	박혜영	방정환	배유리	백수륜																																																													
김중배	김준빈	김진실	김철	김하늘	김현준	김혜진	김희석	남궁탁	노경진	노희옥	류일하	문기봉	문정원	민석훈	박규정	박동준	박민호	박세로미	박세훈	박신정	박용우	박제갑	박종미	박지은	박초롱	박혜옥	방주현	배유미	백של분																																																													
김중백	김준석	김진아	김철규	김하영	김현지	김호	김희선	남궁희	노광식	노희정	류재구	문기정	문정임	민세홍	박규태	박동진	박민희	박서연	박세희	박신혜	박용의	박제건	박종민	박지인	박춘식	박혜원	방지애	배유진	백승동																																																													
김중범	김준섭	김진애	김철수	김하은	김현진	김호겸	김희성	남규리	노다운	노희중	류재혁	문기풍	문정현	민순자	박규현	박동철	박배수	박서영	박소담	박아정	박용제	박제년	박종범	박지현	박춘현	박혜운	방진석	배윤경	백승만																																																													
김중석	김준엽	김진영	김철우	김학규	김현철	김호경	김희연	남근아	노동혁	류정이	문기훈	문정화	민영숙	김중성	김준영	김진용	김철환	김학민	김현태	김호곤	김희은	남기병	노민경	류지선	문다운	문정희	민영찬	김중수	김준옥	김진우	김철효	김학산	김현화	김호근	김희정	남기찬	노성운	당은빈	류지현	문대준	문주현	민웅기	류찬석	문대훈	문준봉	민은주	문인선	문명룡	문지연	민준기	박근규	박말선	박병국	박선경	박소희	박여진	박우영	박재운	박종열	박진관	박태호	박호철	배경상	배장완	백승재																									
김중영	김준환	김진음	김초연	김학운	김형국	김호성	김희진	남다영	노세련	도길남	류창욱	문동수	문중렬	민인선	김중엽	김준희	김진이	김춘복	김학인	김형규	김호수	김희환	남덕우	노수경	도민지	류철인	문명룡	문지연	민준기	김중오	김중규	김진주	김춘석	김학준	김형동	김호영	남동연	노수진	도선기	류충호	문미경	문지현	민지원	박근원	박명숙	박병기	박선규	박송근	박연옥	박원	박재유	박종우	박진규	박필길	박홍래	배경직	배재홍	백승태																																
김중옥	김중근	김진철	김춘희	김학중	김형두	김호준	남동엽	노수환	도선미	류태숙	문미영	문지효	민진홍	김중옥	김중기	김진태	김충곤	김학현	김형래	김호진	남민경	노승덕	도수빈	류하정	문민정	문창배	민혜순	김중옥	김중우	김진하	김충기	김한규	김형록	김홍균	나경숙	남민정	노승필	도에원	류한철	문보라	문창숙	민현기	박근이	박명순	박병선	박선미	박송화	박연탁	박원규	박재형	박종용	박진덕	박필호	박홍범	배광수	배정흔	백승택																																	
김중욱	김중환	김진혁	김충연	김한나	김형문	김홍기	나경진	남보다	노승한	도은지	류혜경	문보현	문창순	민형식	김중윤	김지만	김진현	김치호	김한비	김형민	김홍길	나경호	남상수	노시욱	도재경	류혜선	문보희	문창현	민혜경	김중윤	김지민	김진형	김치훈	김한성	김혜배	김홍락	나경환	남상인	노신혜	도재철	류효상	문봉규	문창호	민혜원	박근성	박명자	박병춘	박선애	박수경	박영건	박원희	박재홍	박종일	박진선	박하영	박효기	배근태	배종열	백아름																															
김중원	김지만	김진현	김치호	김한비	김형민	김홍길	나경호	남상수	노시욱	도재경	류혜선	문보희	문창현	민혜경	김중윤	김지민	김진형	김치훈	김한성	김혜배	김홍락	나경환	남상인	노신혜	도재철	류효상	문봉규	문창호	민혜원	김중익	김지선	김진홍	김철성	김한주	김형석	김홍래	나경훈	남석동	노양숙	도정훈	류효석	문산고	문철상	김중일	김지성	김진희	김태경	김한주	김형선	김홍명	나기황	남선영	노열호	도종찬	류홍수	문상훈	문철환	김중업	김준호	김진윤	김초롱	김학영	김형관	김희상	남기화	노성진	도귀은	류찬석	문대훈	문준봉	민은주	문인선	문명룡	문지연	민준기	박근규	박말선	박병국	박선경	박소희	박여진	박우영	박재운	박종열	박진관	박태호	박호철	배경상	배장완	백승재
김중영	김준희	김진이	김춘복	김학인	김형규	김호수	김희환	남덕우	노수경	도민지	류철인	문명룡	문지연	민준기	김중오	김중규	김진주	김춘석	김학준	김형동	김호영	남동연	노수진	도선기	류충호	문미경	문지현	민지원	김중옥	김중기	김진태	김충곤	김학현	김형래	김호진	남민경	노승덕	도수빈	류하정	문민정	문창배	민혜순	박근이	박명순	박병선	박선미	박송화	박연탁	박원규	박재형	박종용	박진덕	박필호	박홍범	배광수	배정흔	백승택																																	
김중욱	김중환	김진혁	김충연	김한나	김형문	김홍기	나경진	남보다	노승한	도은지	류혜경	문보현	문창순	민형식	김중윤	김지민	김진형	김치훈	김한성	김혜배	김홍락	나경환	남상인	노신혜	도재철	류효상	문봉규	문창호	민혜원	김중익	김지선	김진홍	김철성	김한주	김형석	김홍래	나경훈	남석동	노양숙	도정훈	류효석	문산고	문철상	김중일	김지성	김진희	김태경	김한주	김형선	김홍명	나기황	남선영	노열호	도종찬	류홍수	문상훈	문철환	김중업	김준호	김진윤	김초롱	김학영	김형관	김희상	남기화	노성진	도귀은	류찬석	문대훈	문준봉	민은주	문인선	문명룡	문지연	민준기	박근규	박말선	박병국	박선경	박소희	박여진	박우영	박재운	박종열	박진관	박태호	박호철	배경상	배장완	백승재
김중영	김준희	김진이	김춘복	김학인	김형규	김호수	김희환	남덕우	노수경	도민지	류철인	문명룡	문지연	민준기	김중오	김중규	김진주	김춘석	김학준	김형동	김호영	남동연	노수진	도선기	류충호	문미경	문지현	민지원	김중옥	김중기	김진태	김충곤	김학현	김형래	김호진	남민경	노승덕	도수빈	류하정	문민정	문창배	민혜순	박근이	박명순	박병선	박선미	박송화	박연탁	박원규	박재형	박종용	박진덕	박필호	박홍범	배광수	배정흔	백승택																																	
김중욱	김중환	김진혁	김충연	김한나	김형문	김홍기	나경진	남보다	노승한	도은지	류혜경	문보현	문창순	민형식	김중윤	김지민	김진형	김치훈	김한성	김혜배	김홍락	나경환	남상인	노신혜	도재철	류효상	문봉규	문창호	민혜원	김중익	김지선	김진홍	김철성	김한주	김형석	김홍래	나경훈	남석동	노양숙	도정훈	류효석	문산고	문철상	김중일	김지성	김진희	김태경	김한주	김형선	김홍명	나기황	남선영	노열호	도종찬	류홍수	문상훈	문철환	김중업	김준호	김진윤	김초롱	김학영	김형관	김희상	남기화	노성진	도귀은	류찬석	문대훈	문준봉	민은주	문인선	문명룡	문지연	민준기	박근규	박말선	박병국	박선경	박소희	박여진	박우영	박재운	박종열	박진관	박태호	박호철	배경상	배장완	백승재
김중영	김준희	김진이	김춘복	김학인	김형규	김호수	김희환	남덕우	노수경	도민지	류철인	문명룡	문지연	민준기	김중오	김중규	김진주	김춘석	김학준	김형동	김호영	남동연	노수진	도선기	류충호	문미경	문지현	민지원	김중옥	김중기	김진태	김충곤	김학현	김형래	김호진	남민경	노승덕	도수빈	류하정	문민정	문창배	민혜순	박근이	박명순	박병선	박선미	박송화	박연탁	박원규	박재형	박종용	박진덕	박필호	박홍범	배광수	배정흔	백승택																																	
김중욱	김중환	김진혁	김충연	김한나	김형문	김홍기	나경진	남보다	노승한	도은지	류혜경	문보현	문창순	민형식	김중윤	김지민	김진형	김치훈	김한성	김혜배	김홍락	나경환	남상인	노신혜	도재철	류효상	문봉규	문창호	민혜원	김중익	김지선	김진홍	김철성	김한주	김형석	김홍래	나경훈	남석동	노양숙	도정훈	류효석	문산고	문철상	김중일	김지성	김진희	김태경	김한주	김형선	김홍명	나기황	남선영	노열호	도종찬	류홍수	문상훈	문철환	김중업	김준호	김진윤	김초롱	김학영	김형관	김희상	남기화	노성진	도귀은	류찬석	문대훈	문준봉	민은주	문인선	문명룡	문지연	민준기	박근규	박말선	박병국	박선경	박소희	박여진	박우영	박재운	박종열	박진관	박태호	박호철	배경상	배장완	백승재
김중영	김준희	김진이	김춘복	김학인	김형규	김호수	김희환	남덕우	노수경	도민지	류철인	문명룡	문지연	민준기	김중오	김중규	김진주	김춘석	김학준	김형동	김호영	남동연	노수진	도선기	류충호	문미경	문지현	민지원	김중옥	김중기	김진태	김충곤	김학현	김형래	김호진	남민경	노승덕	도수빈	류하정	문민정	문창배	민혜순	박근이	박명순	박병선	박선미	박송화	박연탁	박원규	박재형	박종용	박진덕	박필호	박홍범	배광수	배정흔	백승택																																	
김중욱	김중환	김진혁	김충연	김한나	김형문	김홍기	나경진	남보다	노승한	도은지	류혜경	문보현	문창순	민형식	김중윤	김지민	김진형	김치훈	김한성	김혜배	김홍락	나경환	남상인	노신혜	도재철	류효상	문봉규	문창호	민혜원	김중익	김지선	김진홍	김철성	김한주	김형석	김홍래	나경훈	남석동	노양숙	도정훈	류효석	문산고	문철상	김중일	김지성	김진희	김태경	김한주	김형선	김홍명	나기황	남선영	노열호	도종찬	류홍수	문상훈	문철환	김중업	김준호	김진윤	김초롱	김학영	김형관	김희상	남기화	노성진	도귀은	류찬석	문대훈	문준봉	민은주	문인선	문명룡	문지연	민준기	박근규	박말선	박병국	박선경	박소희	박여진	박우영	박재운	박종열	박진관	박태호	박호철	배경상	배장완	백승재
김중영	김준희	김진이	김춘복	김학인	김형규	김호수	김희환	남덕우	노수경	도민지	류철인	문명룡	문지연	민준기	김중오	김중규	김진주	김춘석	김학준	김형동	김호영	남동연	노수진	도선기	류충호	문미경	문지현	민지원	김중옥	김중기	김진태	김충곤	김학현	김형래	김호진	남민경	노승덕	도수빈	류하정	문민정	문창배	민혜순	박근이	박명순	박병선	박선미	박송화	박연탁	박원규	박재형	박종용	박진덕	박필호	박홍범	배광수	배정흔	백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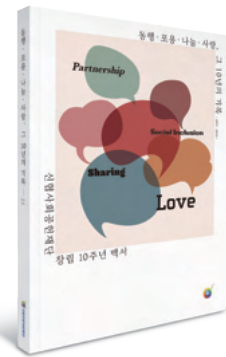
백지훈 부영희 서상철 서정남 석창근 성유미 손민기 손정숙 송명아 송의천 송효선 신두호 신용래 신지현 심다래
백진이 빈명옥 서상현 서정동 석효원 성은아 손민수 손정연 송명철 송인경 송효진 신명기 신용선 신지혜 심동섭
백창기 빈준일 서샘 서정문 선범영 성은정 손민지 손정화 송미숙 송인옥 송효현 신명동 신용섭 신지훈 심문섭
백창록 빈태진 서선미 서정민 선범래 성지숙 손병완 손종수 송미희 송인옥 송희빈 신명진 신용수 신진아 심미경
백창현 빈현태 서선희 서정선 선수희 성지은 손보경 손종철 송민경 송인종 송희천 신명호 신용재 신진영 심미나
백철수 서성석 서정숙 선영철 성지혜 손보라 손종현 송민근 송재근 시호근 신무섭 신용호 신진하 심민희
백평화 서성영 서정원 선우현 성장신 손봉수 손주연 송민석 송재범 신가람 신문호 신우리 신진호 심보경
백하진 서세능 서정호 선윤경 성필원 손상익 손준혁 송민우 송재봉 신가현 신미애 신유리 신창선 심상숙
백학기 사재웅 서수진 서정훈 선정훈 성현지 손상현 손지만 송민재 송재열 신간승 신미정 신유림 신창우 심상일
백해정 사효진 서순애 서제민 선지숙 성혜선 손석영 손지연 송민정 송재용 신걸섭 신미경 신유정 신춘양 심상훈
백현숙 서가은 서순원 서중걸 선지은 성호영 손석조 손지영 송민호 송재학 신경아 신민형 신유진 신총휴 심서영
백해경 서강원 서순희 서중원 선행송 성홍경 손석조 손지호 송병일 송재혁 신경주 신민술 신윤범 신태환 심서현
백해정 서경남 서아란 서준호 설경애 성후용 손세희 손진숙 송보라 송재호 신경진 신민재 신윤호 신필호 심석주
백혜진 서경민 서아름 서준희 설동철 성희창 손소라 손진호 송복종 송정상 신경찬 신민재 신윤희 신하연 심선기
백호현 서경석 서연석 서지섭 설미경 소광현 손수경 손차남 송부용 송정안 신경현 신민준 신은선 신학철 심선미
백효진 서경순 서연형 서지영 설성식 소미영 손수민 손창현 송삼섭 송정은 신경환 신배승 신은숙 신한모 심선옥
범경자 서경임 서영란 서지혜 설수철 소병지 손수영 손철규 송상곤 송정희 신계숙 신버리 신은실 신해진 심선현
변경남 서경화 서영민 서지훈 설윤문 소선희 손아인 손춘연 송상원 송제성 신관복 신봉균 신은영 신행석 심세진
변경미 서경환 서영석 서지희 설정용 소연섭 손애경 손총길 송석유 송중섭 신관호 신봉기 신은옥 신현주 심수경
변규리 서관중 서영옥 서진숙 설정원 소영국 손양락 손태연 송석은 송주열 신광하 신상숙 신은정 신혁재 심수연
변기현 서 광 서영은 서진원 설최옥 소영옥 손연경 손태호 송석준 송주영 신교현 신상철 신은주 신현식 심승현
변미경 서국향 서영철 서진주 설 회 소은경 손연수 손학수 송석호 송주희 신구철 신석수 신은희 신현아 심연섭
변보미 서근철 서영철 서창고 성경희 소재익 손연옥 손한빛 송선영 송준관 신권현 신선희 신익동 신현정 심영보
변상관 서기호 서애원 서창민 성경진 소정섭 손영국 손한식 송선영 송준섭 신기혁 신성원 신인선 신현지 심영섭
변상준 서길동 서용숙 서창배 성광제 소정주 손영금 손혜규 송세운 송준호 신기훈 신성임 신장홍 신현철 심영채
변상진 서단비 서용식 서재원 성 규 소지현 손영대 손현태 송소연 송지연 신길문 신세준 신재명 신현호 심우용
변석봉 서대관 서우철 서팔수 성기덕 소진성 손영수 손현술 송소영 송지원 신평샘 신세환 신재섭 신현희 심우태
변성희 서대석 서운섭 서하람 성기민 소진영 손영식 손현진 송수현 송지현 신나래 신송이 신재열 신형석 심윤미
변승열 서대현 서원빈 서하림 성기석 소해리 손영실 손현호 송수호 송지호 신남석 신수경 신재우 신형철 심은섭
변양민 서도원 서원선 서한샘 성기섭 소현아 손영준 손혜경 송순용 송지훈 신남철 신수연 신재욱 신혜경 심은영
변영수 서동균 서원지 서한서 성낙문 소황희 손영진 손혜인 송승훈 송진국 신다나 신수현 신재일 신혜연 심은우
변영훈 서동열 서원호 서해지 성낙준 손건철 손영찬 손혜진 송아람 송진석 신다정 신수희 신재정 신혜인 심재구
변용석 서동욱 서유경 서향아 성낙현 손경관 손영한 손홍민 송아름 송창수 신다희 신숙이 신재준 신혜정 심재금
변유진 서동일 서유라 서현석 성남수 손경철 손영호 손효종 송아현 송창용 신대식 신순덕 신재필 신혜영 심재성
변윤하 서동준 서유진 서현정 성단비 손공익 손혜진 송각호 송연봉 송창호 신대운 신슬기 신재희 신호영 심재익
변은선 서명숙 서유진 서현주 성도빈 손관태 손혜화 송경미 송영규 송총희 신도형 신승민 신정구 신호용 심재천
변재은 서모란 서은수 서현지 성명모 손광호 손완화 송총복 송영석 송총호 신승숙 신정복 신호진 신재필
변정남 서문준 서은숙 서현희 성명희 손구환 손왕경 송경진 송영식 송태근 신동강 신승주 신정승 신흥균 심재현
변정숙 서미선 서은지 서형진 성문수 손금화 손용우 송계호 송영직 송태연 신동기 신승한 신정아 신흥순 심정규
변정진 서미화 서은혜 서혜련 성문식 손기룡 손윌순 송규산 송영호 송태진 신동락 신승훈 신정인 신희은 심정민
변종국 서미희 서이규 서혜령 성미경 손기석 손유빈 송 근 송예림 송한샘 신동민 신안민 신정환 신흥한 심정희
변중섭 서민수 서인화 서혜승 성민규 손나래 손유신 송기영 송용필 송해동 신동빈 신엄지 신제민 신희성 심종연
변지연 서민식 서일기 서혜지 성민희 손다나 손유진 송기창 송용현 송해운 신동석 신연정 신종철 신희정 심준혁
변진호 서민정 서일영 서혜진 성병옥 손다영 손유현 송기철 송용호 송해춘 신동선 신영란 신종현 신희중 심지애
변현재 서민주 서자영 서 희 성병원 손대우 손은모 송나경 송우석 송혁재 신동섭 신영수 신종환 심가연 심지영
변혜일 서민지 서자원 서희원 성석표 손대운 손은영 송나예 송운영 송현중 신동수 신영순 신주영 심경보 심지유
복병민 서배근 서찬디 석민자 성순이 손동권 손은주 송다은 송 원 송현주 신동욱 신영성 신준우 심경보 심진주
봉윤희 서범석 서재석 석봉화 성시찬 손동윤 손인란 송대용 송유상 송현희 신동윤 신영중 신준호 심규박 심진호
봉지은 서병건 서재성 석새봄 성영미 손동승 손제완 송도신 송유정 송현희 신동준 신영철 신준환 심규진 심춘화
부경남 서병규 서재은 석연경 성영정 손문근 손재완 송동근 송유진 송형식 신동진 신영희 신중권 심규홍 심태기
부석중 서보경 서재형 석영균 성용덕 손미경 손재현 송동용 송은미 송혜지 신동찬 신완식 신지영 심규화 심태영
부영식 서보혁 서재호 석용주 성우진 손미영 손정규 송두한 송은우 송홍주 신동호 신용규 신지욱 심기섭 심태환
부영준 서빛나 서재희 석지현 성우현 손 민 손정민 송 란 송의준 송효근 신동화 신용균 신지은 심기훈 심필자

심현래 안수홍 안철민 양성화 양춘제 여환규 오미선 오유균 오해미 우정희 유근평 유성균 유인승 유현석 윤미영
심현배 안솔기 안철분 양성훈 양춘희 여환수 오민지 오유미 오해연 우종국 유기선 유성삼 유인영 유현옥 윤미현
심현보 안승권 안철순 양소라 양태수 연경석 오병길 오윤건 오현동 우창호 유기태 유성일 유인중 유현진 윤 민
심현아 안승용 안해솔 양소는 양한나 연광모 오병서 오윤록 오현숙 우태자 유나니 유성종 유인희 유현천 윤민이
심현정 안승재 안해정 양소진 양현숙 연수일 오병용 오윤선 오현순 우태준 유나라 유성주 유재구 유형우 윤민정
심형섭 안아름 안현동 양수빈 양혜영 연순모 오병훈 오윤제 오현진 우현덕 유다슬 유성훈 유재형 유형직 윤민호
심혜진 안영덕 안현수 양솔기 양화영 연정민 오봉천 오윤환 오현희 우현주 유다영 유세은 유재훈 유혜경 윤병용
심홍규 안영선 안현정 양승민 양희석 연정혜 오빛나 오은경 오형석 우혜민 유다정 유소영 유재홍 유혜린 윤병채
심효섭 안영애 안현지 양승복 양희승 연제덕 오삼록 오은숙 오형택 우혜진 유대수 유승은 유정근 유혜상 윤보람
안영진 안현주 양연희 양희승 연지은 오상옥 오은영 오혜림 원경이 유덕영 유수민 유정선 유혜자 윤상경
안오근 안해숙 양시원 양희승 연지환 오상은 오은정 오혜정 원구홍 유덕현 유수봉 유정숙 유호민 윤상선
안윤근 안해웅 양애정 양희정 연지흙 오상재 오은지 오훈표 원다혜 유도연 유수연 유정열 유호범 윤상운
안광규 안윤운 안해운 양연주 양희진 연희정 오상조 오은천 오희경 원명희 유도원 유수정 유정임 유호정 윤상준
안광현 안용원 안해은 양영석 양희철 염가영 오상철 오익교 오희라 원문배 유도순 유수현 유정화 유호형 윤상희
안교수 안용현 안해진 양영은 이상우 염광선 오석재 오인자 옥관호 원문순 유돈신 유슬기 유정희 유홍렬 윤샘
안귀만 안용환 안호상 양영익 어예슬 염덕선 오성호 오인창 옥세진 원문호 유동수 유승만 유종광 유훈원 윤서운
안규환 안원옥 안호중 양영준 어장우 염대수 오성화 오자평 옥정석 원미란 유동춘 유승우 유종수 유희경 윤석구
안규훈 안원일 안호태 양영철 어진 염명란 오세경 오장면 옥진성 원보은 유동현 유승재 유종진 유희자 윤석순
안근영 안원중 안홍렬 양영현 어춘선 염미경 오세권 오장환 옥철영 원선희 유동호 유승중 유종현 유희지 윤석영
안기완 안유리 안효민 양옥희 염경식 염선분 오세동 오재경 옥철주 원성목 유득일 유승훈 유종환 유희진 윤석일
안기정 안유빈 안효빈 양우석 염규영 염성규 오세명 오재덕 왕문석 원성숙 유래현 유아름 유주홍 육근혁 윤선미
안기현 안유승 안효선 양원창 염기두 염성용 오세운 오정선 왕성일 원정연 유만근 유안석 유지성 육근민 윤선영
안길남 안유진 안효원 양윤식 염다슬 염은주 오소림 오정아 왕윤식 원종민 유명일 유영관 유지숙 육신훈 윤성관
안꽃샘 안유찬 안효준 양은석 염미영 염윤래 오소림 오정원 왕윤식 원종임 유명일 유영관 유지숙 육신훈 윤성관
안남희 안은숙 안효진 양은열 염석우 염은주 오승연 오정임 왕준호 원종임 유명환 유영범 유지영 육진명 윤성근
안다애 안은아 안홍락 양은정 염석찬 염종규 오승택 오종근 왕한욱 원주희 유문학 유영석 유지원 육진수 윤성식
안미경 안은주 안희주 양이슬 염수영 염지현 오수경 오종원 용록중 원준형 유미량 유영수 유지은 윤경수 윤성옥
안미선 안을래 안희태 양인아 염영숙 염필용 오수연 오종운 용선영 원중우 유미애 유영숙 유지현 윤광복 윤성철
안미숙 안인숙 양갑모 양인영 염제선 염형택 오수영 오종호 용아름 원창연 유민경 유영애 유지혜 윤광한 윤성훈
안미향 안재용 양경복 양인조 염준길 예경자 오수인 오주석 우광식 원치명 유민근 유영우 유지훈 윤광호 윤소연
안민지 안재호 양경진 양제선 염지연 예민호 오수정 오주리아 우광현 원하연 유민서 유영은 유진경 윤구한 윤소영
안병국 안정식 양나영 양제희 염지현 예선주 오순화 오지연 우근호 원해중 유민희 유영일 유진상 윤국진 윤소정
안병선 안정남 양동민 양정길 염진철 오경문 오슬기 오지영 우기훈 원항숙 유배근 유영준 유진선 윤규미 윤솔기
안병인 안정민 양동석 양정숙 염해숙 오경백 오승배 오지원 우남희 원홍주 유병돈 유영태 유진섭 윤금섭 윤수남
안병천 안정수 양동욱 양정옥 염혜영 오경수 오승은 오지은 우누리 원희정 유병래 유영호 유진식 윤기문 윤수빈
안병현 안정우 양만재 양정일 염희영 오경숙 오승준 오지현 우다경 원희지 유병림 유영희 유진식 윤기용 윤수영
안보람 안정우 양명석 양정화 염희정 오경환 오승진 오지혜 우미선 유병일 유예진 유진열 윤나라 윤수진
안상국 안정훈 양명선 양제민 여도연 오규직 오승협 오진숙 우병기 위성국 유병중 유완철 유진용 윤나래 윤수현
안상민 안종상 양명자 양종모 여동기 오근호 오승환 오진아 우병택 위양숙 유병진 유용선 유진희 윤나연 윤순자
안상영 안종수 양미경 양주현 여명구 오근식 오시내 오진호 이상동 위은영 유병철 유용수 유찬수 윤다솔 윤승아
안 석 안종훈 양미령 양주혜 여영주 오금석 오신덕 오창익 이상봉 위은오 유병학 유옥형 유찬중 윤대규 윤승정
안선남 안주영 양미선 양준모 여운주 오기훈 오신영 오창현 우성구 위인지 유병환 유윤하 유창기 윤대훈 윤아란
안선영 안주용 양미숙 양준미 여운지 오남규 오아름 오창호 우소라 위정현 유복순 유용렬 유창현 윤덕배 윤아영
안선주 안주하 양민영 양준혁 여은경 오다영 오연경 오재영 우쌍식 위지윤 유상미 유원영 유재화 윤덕순 윤양호
안성은 안주화 양민재 양준호 여은주 오단비 오영광 오창라 우영광 유가미 유상민 유원옥 유태학 윤덕환 윤여권
안성호 안준상 양범석 양준열 여은지 오동규 오영수 오춘석 우영도 유강욱 유상우 유유두 유태혁 윤도희 윤여송
안소연 안준태 양보석 양지원 여인석 오동훈 오영철 오태관 우옥현 유경만 유상현 유은성 유하나 윤동영 윤여정
안수경 안지윤 양복남 양지은 여지은 오두환 오예슬 오태현 우재성 유경민 유선미 유은사 유한길 윤동일 윤여현
안수만 안지홍 양상민 양진중 여진영 오명운 오예진 오한경 우 정 유경선 유선에 유은숙 유한빛 윤두환 윤여훈
안수빈 안진수 양상승 양창덕 여태현 오명은 오용근 오한성 우정규 유경현 유선영 유은영 유한솔 윤명철 윤영경
안수지 안진홍 양성애 양창운 여현주 오명호 오용진 오한승 우정민 유광균 유선훈 유은찬 유한천 윤명희 윤연자
안수형 안창훈 양성철 양창희 여혜숙 오문종 오유경 오항교 우정화 유광섭 유선희 유은채 유현철 윤미숙 윤연준

윤연호	윤지수	은소라	이경현	이기수	이도전	이명희	이병강	이상섭	이선영	이소윤	이승의	이영수	이우진	이은욱	이재욱	이정현	이주황	이진우	이태균	이현복	이홍주	임기신	임소영	임인수	임한웅	장동영	장소연	장재익	장현국
윤영관	윤지영	은수지	이경현	이기용	이도현	이보상	이병곤	이상성	이선예	이소정	이승중	이영순	이우형	이은용	이재운	이정호	이주현	이진철	이태린	이현상	이 화	임기환	임승은	임인호	임행미	장동원	장소희	장재정	장 혁
윤영규	윤지예	은현하	이경호	이기우	이도현	이무길	이병구	이상수	이선용	이소현	이승주	이영식	이윤희	이은유	이재웅	이정홍	이주현	이진태	이태선	이현석	이화목	임기훈	임수연	임인희	임현빈	장동혁	장수빈	장재철	장현숙
윤영길	윤지현	음민수	이경화	이기욱	이도형	이문규	이병국	이상숙	이선우	이솔비	이승진	이영신	이웅용	이은정	이재원	이정화	이주호	이진현	이태성	이현수	이화언	임길성	임수옥	임장묵	임현섭	장두호	장수연	장재혁	장현우
윤영도	윤지희	이가연	이경환	이기자	이도훈	이문수	이병권	이상아	이선이	이솔이	이승찬	이영욱	이원경	이은주	이재운	이정훈	이주화	이진형	이태승	이현숙	이화영	임나혜	임수운	임재범	임현성	장래환	장수웅	장재현	장현호
윤영동	윤진경	이가영	이경훈	이기정	이도희	이문영	이병길	이상열	이선주	이송림	이승태	이영웅	이원규	이은지	이재은	이정희	이주훈	이진호	이태연	이현순	이화준	임낙섭	임수정	임재삼	임현수	장료금	장수운	장재호	장형열
윤영선	윤진영	이가혜	이경희	이기주	이도섭	이문재	이병로	이상영	이선진	이송이	이승택	이영은	이원복	이은진	이재익	이재광	이주희	이진홍	이태영	이현아	이화진	임남규	임수진	임재원	임현우	장만순	장수정	장정기	장형주
윤영주	윤진태	이가희	이계완	이기중	이동영	이문표	이병무	이상욱	이선행	이수경	이승혁	이영인	이원빈	이은철	이재정	이제열	이준구	이진희	이태일	이현영	이확신	임남순	임수환	임재준	임현주	장 면	장수진	장정숙	장해란
윤영진	윤진호	이갑수	이계월	이기찬	이동건	이문형	이병우	이상원	이선향	이수미	이승현	이영일	이원석	이은총	이재준	이제창	이준석	이찬기	이태철	이현오	이환승	임남실	임수화	임재현	임현지	장명은	장승희	장정순	장호덕
윤영훈	윤차영	이강문	이교운	이기호	이동규	이문호	이병원	이상운	이선호	이수민	이승호	이영주	이원우	이은혜	이재훈	이조은	이준석	이찬기	이태훈	이현옥	이환영	임대용	임승기	임재호	임현희	장명희	장승익	장정아	장호수
윤오선	윤창식	이강민	이근주	이기환	이동근	이미경	이병인	이상은	이선호	이수빈	이승환	이영준	이원우	이은호	이재현	이종갑	이준엽	이창구	이태희	이현우	이황재	임대일	임승기	임재호	임현희	장문선	장승익	장정용	장홍선
윤용덕	윤철승	이강보	이관노	이길범	이동기	이미나	이병일	이상인	이선희	이수연	이승훈	이영진	이원익	이은희	이재형	이종근	이준한	이창배	이평연	이현정	이효상	임동준	임승효	임정민	임혜경	장 미	장승태	장정운	장환용
윤용석	윤철희	이강산	이관우	이길상	이동도	이미라	이병준	이상일	이철아	이수윤	이승희	이영찬	이원재	이용선	이재홍	이종금	이준형	이창석	이필숙	이현주	이효석	임무혁	임시영	임정주	임혜지	장미선	장시황	장정주	장희성
윤용원	윤충길	이강식	이광수	이나경	이동섭	이미래	이보라	이상준	이성구	이수자	이시우	이영철	이원형	이용천	이재훈	이종달	이준호	이창식	이하늘	이현준	이효식	임문혁	임시형	임정희	임혜진	장미화	장애선	장정훈	장희수
윤용일	윤충식	이강인	이광연	이나라	이동수	이미선	이보란	이상진	이성국	이수정	이시현	이영하	이원호	이의용	이재희	이종만	이준홍	이창열	이하린	이현진	이효연	임미숙	임아라	임종성	임호성	장민석	장연희	장종규	장희정
윤우석	윤충일	이강진	이광우	이나래	이동식	이미소	이보람	이상태	이성규	이수지	이신규	이영현	이유경	이의장	이전빈	이종모	이준희	이창영	이하석	이현채	이효원	임미영	임아름	임종세	임화정	장민수	장영규	장종근	장희준
윤원희	윤치선	이강철	이광원	이나리	이동엽	이미수	이보름	이상해	이성룡	이수진	이신애	이영호	이유나	이의진	이전호	이종무	이중권	이창우	이하얀	이현철	이효인	임민규	임아영	임종운	임효근	장민욱	장영근	장종은	전기혜
윤은정	윤 탁	이강평	이광주	이나연	이동영	이미애	이보미	이상현	이성만	이수현	이신영	이영훈	이유리	이이석	이점표	이종문	이중근	이창운	이하영	이현태	이효정	임민안	임영균	임종호	임효진	장민정	장영동	장종찬	전경아
윤의수	윤태웅	이강현	이광진	이나은	이동우	이미연	이보영	이상혁	이성목	이수환	이아라	이영희	이유미	이익도	이정건	이종민	이중열	이창일	이하은	이현희	이효주	임민주	임영근	임종홍	임희찬	장민하	장영수	장종환	전계도
윤인건	윤필수	이 건	이광찬	이나형	이동욱	이미영	이보윤	이상현	이성민	이수홍	이아란	이예림	이유선	이익섭	이정근	이종범	이중의	이창재	이하정	이형근	이효중	임민지	임영선	임주현	▲	장민혁	장영식	장주영	전관일
윤장영	윤한글	이건명	이광택	이난수	이동인	이미은	이보형	이상협	이성배	이수희	이아람	이예욱	이유신	이익원	이정남	이종선	이중혁	이창현	이하진	이형민	이효진	임병길	임영수	임준용	▲	장민호	장영은	장주희	전광희
윤재상	윤혜식	이건우	이광호	이남경	이동일	이미정	이보혜	이상호	이성세	이숙영	이아름	이예원	이유은	이익재	이정림	이종수	이지나	이창형	이학래	이형석	이훈구	임병문	임영인	임준우	▲	장병근	장영은	장준영	전국진
윤재철	윤혁신	이건창	이광희	이남지	이동찬	이미진	이봉연	이상훈	이성애	이순관	이아람	이오선	이유정	이인길	이정미	이종승	이지선	이창훈	이학수	이형숙	이홍석	임병택	임영현	임준호	장가영	장병용	장영조	전기량	
윤재호	윤현경	이경관	이국렬	이남훈	이동철	이미향	이봉우	이상희	이성연	이순기	이아연	이오재	이유진	이인선	이정민	이종열	이지성	이창희	이학희	이형욱	이희경	임보나	임영희	임지문	장경덕	장보영	장요성	장준호	전남일
윤재희	윤현구	이경근	이권상	이내숙	이동현	이미현	이봉진	이새롬	이성영	이순애	이아영	이오현	이유환	이인영	이정백	이종영	이지수	이재림	이한구	이형일	이희락	임보현	임예림	임지선	장경민	장상석	장용근	장지선	전남정
윤 정	윤현식	이경노	이권홍	이누리	이동호	이미혜	이봉한	이세별누리	이성일	이순재	이아현	이옥규	이윤구	이인자	이정범	이종우	이지숙	이재아	이한길	이형주	이희문	임봉기	임옥화	임지섭	장경숙	장상숙	장용태	장지영	전누리
윤정구	윤현정	이경대	이귀순	이능의	이동환	이민경	이산호	이서련	이성중	이순정	이안나	이옥란	이윤미	이인정	이정법	이종욱	이지연	이재영	이한나	이형진	이희은	임부근	임완식	임지아	장경영	장상원	장용현	장지우	전동림
윤정빈	윤현종	이경량	이귀자	이다갑	이동훈	이민석	이삼조	이서영	이성주	이순주	이안새라	이옥연	이윤범	이인주	이정석	이종재	이지연	이재은	이한솔	이혜경	이희정	임상호	임용석	임지연	장경환	장상주	장우석	장지원	전두열
윤정상	윤현주	이경래	이규경	이다솔	이동희	이민수	이상각	이서진	이성준	이순태	이애자	이옥진	이윤상	이일권	이정섭	이종진	이지영	이재혁	이한일	이혜란	이희준	임상희	임용수	임지영	장경희	장석규	장우성	장지은	전명규
윤정원	윤현철	이경미	이규량	이다솜	이두영	이민아	이상경	이서현	이성태	이순확	이양수	이원규	이윤석	이일수	이정수	이종찬	이지애	이천수	이한준	이혜림	이희진	임서연	임용식	임지은	장계영	장석중	장원석	장진성	전명우
윤정윤	윤형식	이경민	이규백	이다영	이득경	이민영	이상구	이서호	이성현	이 슬	이양재	이왕상	이윤숙	이일영	이정숙	이종찬	이지운	이천환	이한희	이혜미	이희환	임서희	임용철	임지희	장관배	장석진	장원선	장진숙	전명자
윤정주	윤형주	이경범	이규복	이다윤	이래곤	이민정	이상근	이서희	이성호	이슬기	이어진	이용권	이윤아	이임수	이정아	이종학	이지용	이철상	이해경	이혜민	인세중	임석재	임우훈	임지혜	장광숙	장석필	장원형	장진우	전무희
윤정호	윤혜경	이경보	이규상	이다정	이래호	이민종	이상권	이 석	이성화	이슬비	이연복	이용근	이윤재	이자빈	이정연	이종현	이지원	이철우	이해나	이혜영	인일권	임석환	임우진	임진경	장광심	장석호	장유나	장진주	전미래
윤정환	윤혜림	이경복	이규섭	이다현	이래화	이민지	이상규	이석갑	이성환	이슬이	이연아	이용민	이윤정	이자혜	이정열	이종화	이지은	이철호	이해선	이혜은	인진숙	임선하	임운식	임진형	장귀순	장선아	장유미	장차원	전미선
윤정희	윤혜영	이경선	이규한	이다희	이리진	이민호	이상기	이석만	이성희	이승경	이연정	이용선	이윤지	이장복	이정영	이종훈	이지철	이철홍	이해성	이혜인	인찬교	임선희	임운연	임진화	장근욱	장선욱	장윤정	장창식	전미애
윤종경	윤혜정	이경숙	이규홍	이단비	이만석	이민희	이상길	이석문	이세련	이승구	이연주	이용수	이윤호	이장영	이정완	이주남	이지현	이철희	이혜인	이혜자	인태승	임של미	임원택	임진희	장금덕	장성근	장윤희	장천식	전미진
윤종권	윤혜현	이경순	이그린	이달호	이만성	이방자	이상덕	이석수	이세리	이승권	이연진	이용술	이윤희	이장화	이정우	이주란	이지혜	이정훈	이혜진	이혜진	임건수	임성경	임원희	임창두	장기순	장성수	장은선	장철수	전민영
윤종민	윤호영	이경아	이근경	이대로	이만수	이방현	이상돈	이석암	이세빈	이승규	이연희	이용욱	이은경	이장희	이정원	이주림	이지환	이조룡	이향우	이혜천	임경란	임성률	임유리	임채은	장기운	장성우	장은숙	장태양	전민오
윤종숙	윤홍관	이경열	이근수	이대섭	이만진	이배규	이상동	이석양	이세영	이승률	이 영	이용주	이은규	이재구	이정윤	이주미	이지훈	이조선	이향철	이호건	임경섭	임성목	임유미	임천귀	장기철	장성익	장은정	장태조	전백근
윤종학	윤홍식	이경우	이근형	이대식	이명근	이백규	이상록	이석영	이세웅	이승만	이영고	이용준	이은기	이재명	이정은	이주석	이 진	이춘경	이향호	이호상	임경옥	임성수	임유민	임철순	장기출	장성조	장은혜	장택봉	전병관
윤주원	윤홍주	이경옥	이근호	이대영	이명미	이법경	이상명	이석용	이세진	이승미	이영근	이용창	이은난	이재민	이정인	이주성	이진만	이춘아	이현경	이호성	임경은	임성애	임운수	임춘산	장남진	장성진	장이슬	장필수	전병국
윤주홍	윤환희	이경원	이금성	이대훈	이명석	이법례	이상목	이석우	이세화	이승민	이영구	이용택	이은미	이재복	이정재	이주순	이진명	이춘옥	이현구	이호세	임경철	임성욱	임윤영	임치민	장남호	장성태	장익수	장필용	전병순
윤주환	윤효민	이경익	이금옥	이대희	이명숙	이법만	이상무	이석운	이세희	이승범	이영국	이용혁	이은복	이재삼	이정주	이주연	이진선	이춘우	이혁기	이호연	임관혁	임성일	임은성	임태규	장다연	장성환	장인석	장하람	전병오
윤주희	윤효성	이경재	이금철	이덕우	이명실	이법석	이상미	이석재	이소라	이승수	이영기	이용현	이은삼	이재석	이정표	이주영	이진슬	이춘림	이혁준	이호정	임광빈	임성현	임은아	임태삼	장다정	장세남	장인식	장하석	전병우
윤준민	윤희성	이경주	이금희	이덕원	이명옥	이법선	이상민	이석환	이소람	이승아	이영민	이용희	이은석	이재선	이정하	이주용	이진아	이충련	이형경	이호준	임규덕	임성화	임은영	임태훈	장대오	장세림	장일순	장한결	전병익
윤준식	윤희진	이경중	이기문	이도건	이명현	이법수	이상보	이석희	이소민	이승용	이영복	이우근	이은선	이재연	이정학	이주은	이진안	이치한	이현규	이호진	임규배	임세라	임은택	임택열	장덕남	장세속	장일환	장한별	전병철
윤준형	윤희천	이경진	이기민	이도연	이명호	이법식	이상봉	이선경	이소연	이승우	이영삼	이우용	이은실	이재열	이정환	이주진	이진연	이치현	이현덕	이호철	임균택	임세정	임익균	임하늘	장동민	장세원	장재명	장해임	전병하
윤준호	은경사	이경철	이기쁨	이도원	이명화	이법준	이상석	이선미	이소영	이승원	이영선	이우인	이은아	이재영	이정향	이주하	이진영	이태경	이현명	이호태	임그림	임세현	임익동	임학식	장동성	장세정	장재열	장행선	전병현
윤준보	은동철	이경탁	이기성	이도익	이명훈	이법희	이상선	이선민	이소운	이승운	이영섭	이우종	이은예	이재왕	이정현	이주한	이진용	이태규	이현배	이호현	임근택	임소연	임인경	임한섭	장동연	장세희	장재원	장향미	전병호

전보람	전재달	정경환	정동길	정성욱	정연현	정윤정	정종철	정태호	정효은	조명제	조성익	조용목	조정행	조형순	주은옥	진 샘	차제호	천은숙	최다영	최병수	최소영	최영숙	최은영	최중민	최진화	최홍비	하보람	한만숙	한유우
전봉구	전재현	정경희	정동수	정성원	정영권	정윤철	정종필	정태환	정효일	조명진	조성조	조용범	조정환	조혜경	주재중	진석규	차종환	천재은	최달규	최병열	최소정	최영식	최은옥	최중민	최진희	최홍영	하삼곤	한만태	한용일
전상우	전재호	정공희	정동우	정성은	정영기	정윤화	정주리	정택연	정휘숙	조무일	조성진	조용식	조정훈	조혜리	주재현	진선미	차주연	천주영	최대규	최병오	최승이	최영원	최은율	최중석	최찬수	최홍환	하식민	한명순	한용희
전상훈	전재홍	정관석	정동혁	정성호	정영대	정은경	정주영	정필연	정휘주	조문영	조성현	조용원	조종석	조혜민	주정모	진성수	차지훈	천주환	최대순	최병욱	최송홍	최영인	최은정	최중선	최찬순	최환희	하신국	한명욱	한유리
전선미	전정원	정광기	정래경	정성훈	정영란	정은선	정주희	정필영	정홍기	조문정	조성화	조용현	조종훈	조혜연	주지용	진성용	차진아	천지선	최대식	최병욱	최수경	최영일	최은지	최중수	최창국	최황현	하선빈	한명진	한유림
전선임	전제영	정광수	정만영	정성희	정영배	정은숙	정준영	정하늘	정희영	조미경	조성환	조우권	조주미	조혜영	주지형	진세현	차창훈	천지현	최덕주	최병은	최수근	최영재	최은진	최중순	최창순	최효근	하선용	한미선	한유미
전선희	전중학	정광순	정맹열	정세라	정영삼	정은영	정준태	정학영	정희재	조미리	조성훈	조우희	조주영	조혜자	주진우	진승현	차천은	천형석	최덕출	최병인	최수범	최영주	최은혜	최중익	최창영	최효정	하성용	한미혜	한윤권
전성근	전중호	정광준	정명관	정세열	정영석	정은주	정준희	정한섭	정희진	조미순	조성희	조원경	조준배	조혜정	주창욱	진애리	차한일	천혜성	최도연	최병준	최수빈	최영준	최은호	최중원	최창주	최훈조	하성홍	한병관	한윤식
전성룡	전주석	정구미	정명근	정세윤	정영섭	정은지	정지만	정한아	정희철	조미정	조세희	조원재	조준봉	조혜진	주치영	진영관	차혁수	천혜인	최든억	최병하	최수연	최영천	최은희	최중윤	최창진	최취성	하성훈	한복희	한윤옥
전성만	전준하	정구호	정명주	정세현	정영숙	정은진	정지영	정한욱	제갈철	조민경	조수구	조원태	조준승	조호근	전성욱	진영만	차현아	천호석	최든철	최병학	최수영	최영호	최의호	최종일	최창호	최희성	하승용	한상태	한은영
전성욱	전준희	정구호	정명주	정세현	정영숙	정은진	정지영	정한욱	제갈철	조민경	조수민	조원표	조준승	조호제	전성철	진영애	차현운	천 훈	최동규	최복남	최수일	최영홍	최익재	최중찬	최창환	최희성	하승호	한상문	한은정
전성철	전지혜	정국찬	정명희	정소라	정영애	정의균	정지완	정해룡	제 정	조민수	조수범	조원혁	조중호	조호진	전성환	전진원	정근오	정묘배	정소연	정영진	정의서	정지우	정해선	제현하	조민식	조수영	조원희	조지영	조홍래
전성훈	전찬구	정규동	정문균	정소영	정영훈	정의훈	정지용	정해송	조가영	조민영	조수인	조유민	조지원	조환희	전성훈	전찬구	정규동	정문균	정소영	정영훈	정의훈	정지용	정해송	조가영	조민영	조수인	조유민	조지원	조환희
전세정	전찬만	정규선	정문현	정소윤	정예솔	정이든	정지윤	정해순	조 감	조민우	조수진	조유정	조지은	조황기	전세정	전찬만	정규선	정문현	정소윤	정예솔	정이든	정지윤	정해순	조 감	조민우	조수진	조유정	조지은	조황기
전소라	전찬숙	정규영	정미경	정소현	정예은	정이홍	정지은	정해원	조경미	조민제	조숙영	조유현	조지향	조효순	전소라	전찬숙	정규영	정미경	정소현	정예은	정이홍	정지은	정해원	조경미	조민제	조숙영	조유현	조지향	조효순
전소연	전찬일	정규정	정미라	정소희	정예채	정의현	정지형	정해운	조경민	조민지	조순호	조윤미	조지형	조효정	전소연	전찬일	정규정	정미라	정소희	정예채	정의현	정지형	정해운	조경민	조민지	조순호	조윤미	조지형	조효정
전소영	전창근	정규현	정미래	정 솔	정완기	정인경	정지호	정현진	조경봉	조민희	조솔기	조윤식	조지희	조효지	전소영	전창근	정규현	정미래	정 솔	정완기	정인경	정지호	정현진	조경봉	조민희	조솔기	조윤식	조지희	조효지
전소희	전창훈	정근래	정미선	정승훈	정요승	정인태	정 진	정혁재	조경수	조백연	조승민	조운호	조지현	조효진	전소희	전창훈	정근래	정미선	정승훈	정요승	정인태	정 진	정혁재	조경수	조백연	조승민	조운호	조지현	조효진
전수정	전창희	정금숙	정미연	정수례	정용락	정인동	정진경	정혁진	조경옥	조병규	조승수	조윤희	조진수	조홍래	전수정	전창희	정금숙	정미연	정수례	정용락	정인동	정진경	정혁진	조경옥	조병규	조승수	조윤희	조진수	조홍래
전솔기	전출세	정기수	정미영	정수민	정용민	정인선	정진규	정현	조경진	조병남	조승실	조은기	조진영	조홍식	전솔기	전출세	정기수	정미영	정수민	정용민	정인선	정진규	정현	조경진	조병남	조승실	조은기	조진영	조홍식
전승민	전춘근	정기열	정미정	정수연	정용준	정인수	정진목	정현경	조경행	조병식	조승현	조은비	조찬효	조희애	전승민	전춘근	정기열	정미정	정수연	정용준	정인수	정진목	정현경	조경행	조병식	조승현	조은비	조찬효	조희애
전시원	전충근	정기영	정미화	정수옥	정용찬	정인용	정진석	정현기	조경현	조병옥	조승훈	조은별	조창신	조희원	전시원	전충근	정기영	정미화	정수옥	정용찬	정인용	정진석	정현기	조경현	조병옥	조승훈	조은별	조창신	조희원
전 언	전태욱	정기호	정민국	정수임	정용홍	정인용	정진성	정현길	조경호	조병철	조승희	조은비	조재원	조희은	전 언	전태욱	정기호	정민국	정수임	정용홍	정인용	정진성	정현길	조경호	조병철	조승희	조은비	조재원	조희은
전영길	전태웅	정기희	정민규	정수재	정우석	정인철	정진식	정현민	조경희	조병훈	조시연	조은아	조철민	조희진	전영길	전태웅	정기희	정민규	정수재	정우석	정인철	정진식	정현민	조경희	조병훈	조시연	조은아	조철민	조희진
전영민	전하늘	정나영	정민기	정수정	정우성	정인호	정진영	정현석	조광훈	조본곤	조신국	조은영	조철수	조희창	전영민	전하늘	정나영	정민기	정수정	정우성	정인호	정진영	정현석	조광훈	조본곤	조신국	조은영	조철수	조희창
전영수	전해성	정나원	정민수	정수지	정우영	정인홍	정진우	정현아	조광희	조봉주	조아라	조은정	조철호	좌기남	전영수	전해성	정나원	정민수	정수지	정우영	정인홍	정진우	정현아	조광희	조봉주	조아라	조은정	조철호	좌기남
전영숙	전현대	정남태	정민아	정수진	정우용	정일권	정진주	정현우	조국연	조비아	조아람	조은지	조춘성	주경근	전영숙	전현대	정남태	정민아	정수진	정우용	정일권	정진주	정현우	조국연	조비아	조아람	조은지	조춘성	주경근
전영애	전현정	정내수	정민용	정수창	정우진	정일규	정진혁	정현정	조국제	조상기	조아영	조은진	조태식	주경열	전영애	전현정	정내수	정민용	정수창	정우진	정일규	정진혁	정현정	조국제	조상기	조아영	조은진	조태식	주경열
전영일	전형석	정다습	정민재	정수화	정우창	정일남	정진형	정현주	조권규	조상만	조아현	조은하	조태완	주경택	전영일	전형석	정다습	정민재	정수화	정우창	정일남	정진형	정현주	조권규	조상만	조아현	조은하	조태완	주경택
전영준	전형진	정다애	정민정	정숙정	정우철	정일영	정진호	정현지	조권룡	조상민	조안나	조은혜	조하라	주기정	전영준	전형진	정다애	정민정	정숙정	정우철	정일영	정진호	정현지	조권룡	조상민	조안나	조은혜	조하라	주기정
전영진	전혜란	정다영	정민지	정순오	정윤규	정장식	정진효	정형일	조권희	조상우	조양기	조은호	조하영	주길중	전영진	전혜란	정다영	정민지	정순오	정윤규	정장식	정진효	정형일	조권희	조상우	조양기	조은호	조하영	주길중
전영철	전혜영	정다운	정민혜	정순옥	정 원	정장용	정차영	정형준	조규남	조상진	조연화	조은희	조한나	주 ≠내	전영철	전혜영	정다운	정민혜	정순옥	정 원	정장용	정차영	정형준	조규남	조상진	조연화	조은희	조한나	주 ≠내
전영태	전혜정	정다운	정범준	정순화	정원경	정재근	정찬권	정형진	조규동	조상현	조영구	조익한	조한비	주민정	전영태	전혜정	정다운	정범준	정순화	정원경	정재근	정찬권	정형진	조규동	조상현	조영구	조익한	조한비	주민정
전영호	전혜진	정다운	정범삼	정슬기	정원빈	정재선	정찬남	정혜란	조규학	조상후	조영국	조인경	조한솔	주보선	전영호	전혜진	정다운	정범삼	정슬기	정원빈	정재선	정찬남	정혜란	조규학	조상후	조영국	조인경	조한솔	주보선
전용규	전호진	정다진	정병진	정승교	정원상	정재용	정찬도	정혜린	조규한	조상회	조영란	조인순	조해남	주성빈	전용규	전호진	정다진	정병진	정승교	정원상	정재용	정찬도	정혜린	조규한	조상회	조영란	조인순	조해남	주성빈
전용범	전효정	정다혜	정보영	정승욱	정원영	정재일	정찬용	정혜미	조기열	조서영	조영배	조인영	조해령	주성률	전용범	전효정	정다혜	정보영	정승욱	정원영	정재일	정찬용	정혜미	조기열	조서영	조영배	조인영	조해령	주성률
전용석	전희영	정다훈	정복수	정승윤	정원주	정재철	정찬익	정혜숙	조기철	조신명	조영서	조재덕	조해민	주성원	전용석	전희영	정다훈	정복수	정승윤	정원주	정재철	정찬익	정혜숙	조기철	조신명	조영서	조재덕	조해민	주성원
전용욱	정가진	정다희	정복숙	정승주	정원진	정재호	정찬희	정혜인	조길원	조선인	조영수	조재범	조해규	주세운	전용욱	정가진	정다희	정복숙	정승주	정원진	정재호	정찬희	정혜인	조길원	조선인	조영수	조재범	조해규	주세운
전용익	정갑순	정답인	정상훈	정승준	정원호	정재효	정창기	정혜자	조남호	조선정	조영우	조제상	조향숙	주세익	전용익	정갑순	정답인	정상훈	정승준	정원호	정재효	정창기	정혜자	조남호	조선정	조영우	조제상	조향숙	주세익
전용환	정경남	정대상	정상희	정시우	정유라	정재희	정창식	정혜정	조다습	조선희	조영윤	조재원	조향훈	주세희	전용환	정경남	정대상	정상희	정시우	정유라	정재희	정창식	정혜정	조다습	조선희	조영윤	조재원	조향훈	주세희
전웅수	정경로	정대선	정석은	정신국	정유미	정정석	정채연	정혜진	조대현	조성국	조영은	조재진	조현민	주수린	전웅수	정경로	정대선	정석은	정신국	정유미	정정석	정채연	정혜진	조대현	조성국	조영은	조재진	조현민	주수린
전유나	정경만	정대성	정석춘	정신배	정유석	정정순	정철우	정호근	조대희	조성길	조영인	조재훈	조현식	주승기	전유나	정경만	정대성	정석춘	정신배	정유석	정정순	정철우	정호근	조대희	조성길	조영인	조재훈	조현식	주승기
전유리	정경민	정덕모	정석현	정신옥	정유정	정정오	정철호	정호영	조덕제	조성래	조영재	조정기	조현용	주아영	전유리	정경민	정덕모	정석현	정신옥	정유정	정정오	정철호	정호영	조덕제	조성래	조영재	조정기	조현용	주아영
전유미	정경석	정덕미	정석현	정신은	정유진	정정화	정초경	정호정	조동현	조성루	조영집	조정남	조현우	주애선	전유미	정경석	정덕미	정석현	정신은	정유진	정정화	정초경	정호정	조동현	조성루	조영집	조정남	조현우	주애선
전유상	정경선	정덕순	정석화	정아름	정유철	정조원	정춘기	정호택	조동휘	조성무	조영철	조정래	조현준	주영정	전유상	정경선	정덕순	정석화	정아름	정유철	정조원	정춘기	정호택	조동휘	조성무	조영철	조정래	조현준	주영정
전윤수	정경애	정도근	정성희	정아성	정유환	정조희	정치민	정홍진	조동희	조성민	조영철	조정민	조현호	주영숙	전윤수	정경애	정도근	정성희	정아성	정유환	정조희	정치민	정홍진	조동희	조성민	조영철	조정민	조현호	주영숙
전윤일	정경욱	정도면	정성기	정애란	정유나	정종근	정지영	정화섭	조래성	조성빈	조영태	조정민	조현호	주영숙	전윤일	정경욱	정도면	정성기	정애란	정유나	정종근	정지영	정화섭	조래성	조성빈	조영태	조정민	조현호	주영숙
전윤정	정경원	정도평	정성도	정양주	정윤돈	정종영	정철오	정화영	조만상	조성우	조영희	조정아	조현희	주영희	전윤정	정경원	정도평	정성도	정양주	정윤돈	정종영	정철오	정화영	조만상	조성우	조영희	조정아	조현희	주영희
전이산	정경자	정도훈	정성래	정연규	정윤성	정종원	정태수	정화진	조면정	조성욱	조옥근	조정우	조형규	주우석	전이산	정경자	정도훈	정성래	정연규	정윤성	정종원	정태수	정화진	조면정	조성욱	조옥근	조정우	조형규	주우석
전인기	정경철	정도희	정성모	정연이	정윤순	정종재	정태연	정환섭	조명기	조성용	조옥선	조정은	조형기	주원식	전인기	정경철	정도희	정성모	정연이	정윤순	정종재	정태연	정환섭	조명기	조성용	조옥선	조정은	조형기	주원식
전인영	정경화	정동기	정성실	정연지	정윤영	정종진	정태열	정희식	조명선	조성윤	조용관	조정하	조형백	주윤희	전인영	정경화	정동기	정성실	정연지										

한효주	허영진	현지영	홍성욱	홍지현	황선용	황정애
한훈오	허영훈	현지훈	홍성준	홍진선	황성수	황정욱
한희영	허요학	현진호	홍성지	홍창기	황성욱	황정택
함동현	허운행	현진화	홍성진	홍창우	황성원	황정현
함민호	허유림	현태경	홍성철	홍창의	황성진	황정호
함상백	허유미	현학열	홍성하	홍천호	황성하	황정희
함설안	허은정	현혜진	홍세영	홍춘기	황소미	황종일
함성식	허은진	현희용	홍수련	홍하영	황수경	황주현
함소희	허인석	호종환	홍수연	홍한기	황수진	황준호
함수용	허인환	홍갑순	홍수현	홍혜룡	황순원	황지나
함승철	허 정	홍경진	홍수희	홍혜영	황순조	황지윤
함승현	허정규	홍경택	홍순석	홍혜진	황순홍	황진규
함영보	허정오	홍경표	홍순신	홍혜화	황승미	황진길
함윤주	허정은	홍경희	홍순심	홍홍식	황승태	황진선
함재선	허정현	홍관표	홍순영	화은경	황승현	황진술
함종순	허종수	홍광명	홍순용	황가영	황연우	황진수
함지원	허준범	홍광석	홍순호	황건하	황영선	황진순
함효선	허준식	홍근영	홍순화	황경순	황영숙	황진식
함희경	허준호	홍길선	홍승표	황경용	황영우	황찬수
허갑순	허지수	홍길표	홍승희	황경진	황영은	황찬용
허갑철	허지아	홍나래	홍신의	황경하	황용진	황태일
허경범	허지연	홍다정	홍연재	황고준	황운하	황태호
허남궁	허지은	홍다혜	홍연화	황국진	황유정	황태화
허남상	허진주	홍대용	홍영건	황규남	황윤경	황학성
허대권	허진희	홍대현	홍영만	황규섭	황윤석	황현규
허대규	허창운	홍대현	홍영준	황금탑	황윤식	황현수
허든규	허재원	홍동현	홍영철	황기수	황윤영	황현영
허동욱	허해철	홍두한	홍옥표	황기연	황윤희	황현정
허동원	허 현	홍명호	홍원식	황기호	황은경	황현주
허두은	허현아	홍미라	홍원표	황남숙	황은옥	황현철
허만호	허현주	홍미희	홍윤지	황남원	황은지	황현희
허미애	허형숙	홍민경	홍윤희	황대영	황은택	황혜라
허미주	허혜영	홍민기	홍은주	황덕환	황은혜	황혜정
허미향	허 흥	홍민석	홍은지	황도영	황의근	황혜진
허미화	허효재	홍봉기	홍은진	황돈순	황의성	황호선
허민정	현기호	홍봉희	홍은표	황동섭	황의철	황호성
허민지	현덕진	홍석급	홍응준	황동호	황인규	황 희
허방훈	현명훈	홍석우	홍의성	황두일	황인상	황희진
허상용	현미란	홍석준	홍이슬	황명진	황인성	
허선영	현상준	홍석진	홍인택	황민석	황인수	
허성민	현석민	홍석태	홍자영	황민지	황인준	
허성범	현석천	홍석환	홍재영	황범석	황인홍	
허성영	현소정	홍선영	홍재호	황병도	황자욱	
허소영	현승기	홍실희	홍정아	황병일	황재동	
허소중	현승민	홍성구	홍정운	황보배	황재모	
허수희	현승탁	홍성국	홍정희	황보욱	황재순	
허승희	현승현	홍성권	홍종달	황보은지	황제일	
허시영	현에스더	홍성규	홍종대	황상기	황제현	
허연수	현영선	홍성근	홍종용	황상범	황정도	
허영규	현영애	홍성관	홍종의	황상용	황정두	
허영숙	현우권	홍성복	홍준화	황상욱	황정민	
허영운	현재상	홍성봉	홍지영	황서리	황정승	
허영일	현정현	홍성수	홍지윤	황선영	황정안	



신협사회공헌재단 창립 10주년 백서
동행·포용·나눔·사랑, 그 10년의 기록(2014-2024)

발행일 2024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
발행처 신협사회공헌재단
제작 (주)디자인소호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신협인들의 힘을 모아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2014년 설립한 이래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그늘진 곳에
신협의 따뜻한 가치를 전파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온 결실과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어둡고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동행과 나눔의 실천을 이어 나가겠습니다.